



인제군 하추리 사람들의 삶

하추리 사람들

이 학 주

인제문화원

인제군 하추리 사람들의 삶

하추리 사람들

이 학 주



인제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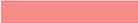
이 학 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에서 출생했다. 현재 춘천시 후평동에서 살고 있다. 대학은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다녔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2000.2)를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고,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를 강의하고 있다. KBS춘천라디오에서 2010년 4월부터 2017년까지 <강원로드>를 800회 방송했다.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다.

| 인제군 하추리 사람들의 삶 |

하추리 사람들



하추리 사람들

초판인쇄 2017년 12월 21일

초판발행 2017년 12월 31일

펴낸이 남덕우

저자 이학주

기획인 백창현

펴낸곳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5

전화 (033)461-6678 / 팩스 (033)461-0220

편집·인쇄 도서출판 산책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дук길 23

전화 (033)254-8912

※ 이 책은 인제군청의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하추리 사람들



제4회 도리깨축제 거리행진



제4회 도리깨축제 절구질



천렵장면



가족사진



밥 짓기 체험



연자방아 체험



2017 강원민속예술축제 도리깨질소리 공연



2017 강원민속예술축제 도리깨질소리 공연 후 단체사진



2017 하추리 거리제



2017 하추리 도리깨 축제



하추리 계곡



하추리 농사 현장



하추리 생산 잡곡



농촌체험마을 으뜸촌



2017 청계골 제당



2017 칠석제



2017 도리깨고사



하추리 새마을도정공장



2006년 수해장면



마을 식당



발간사

참 멋진 인재, 인재인



인재는 참 멋진 곳입니다. 인재에 살면서 내가 참 멋진 곳에 살고 있다고 항상 느낍니다.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더 아름답고 멋진 것은 인재 사람이지요. 어쩌면 하나처럼 모두 예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이런 느낌은 저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인재사람들이 모두 갖는 느낌이라 봅니다.

절대 남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살기 위해 남을 짓누르지도 않습니다. 이웃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참 인재인의 모습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상생(相生)이지요. 인재인들 사이에서 상극(相剋)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인재인의 모습은 마음 밑바닥에 자리한 참 멋진 생각 때문일 겁니다. 저는 참 멋진 인재인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해도 더 하고 싶습니다.

참 멋진 인재인은 제가 인재에서 행사를 치를 때나 인재인의 생활을 담은 책이 나올 때마다 더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박하고 열심히 일하며 이웃을 아끼는 마음을 말입니다. 요즘 같이 지구촌시대에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이런 인재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사를 치를 때나 책 속에 기록된 인재인의 마음은 생활에서도 역시 같습니다. 참 멋진 인재사람들의 마음은 아마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긴 시간에 걸쳐서 인제읍 하추리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지명, 민속신앙, 민간요법, 세시풍속 등 하추리 사람들이 살아 온 내력을 찾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은 하추리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제를 빛나게 할 훌륭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마을 별로 이어서 낸다면 우리 인제인에게는 최고로 가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인제의 현재이면서 인제인이 살아 온 역사이니깐요. 참 멋진 인제인의 삶 자체이지요.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 하추리를 찾아 현지조사를 하고, 관련 문헌을 뒤져 정리하느라, 불철주야 애를 쓴 이학주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서문

도리깨질 소리의 매력

하추리는 그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추리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찌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지난 유월부터 하추리를 드나들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저를 놀라게 한 사실은 단결력이었습니다. 강원도민속예술 축제에 인제군 대표로 나갔습니다. 바로 '도리깨질 소리'로요. 바쁜 농사철이지만 누구 하나 연습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모두 모였지요. 저녁을 같이 먹고 7시쯤이면 연습을 했습니다. 무려 두어 시간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그렇게 하추리 사람들은 불평 한 마디 없이 도리깨를 두드렸습니다. 불평 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했습니다. 격려는 물론 많았고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용평면 공설운동장에서 도리깨질소리를 공연했지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더 멋있었습니다. '이제 잘 하고 못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서로들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도리깨질소리는 도리깨축제에도 그렇게 멋지게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고 공연하고 즐기며, 축제에 참가한 손님과 함께 하는 모습은 가히 최고였습니다. 아마도 하추리 사람들은 세상 어느 곳보다 마을공동체를 잘 가꾸어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추리 사람들은 모두 예쁘게 아름답게 마을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최고의 상을 받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하추리 사람들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말 예쁘고 멋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때가 되면 밥을 나누어 주시며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해주신 그 모습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책은 하추리 사람들의 민속지입니다. 책의 내용은 지명, 민속신앙, 세시풍속, 민간요법, 생산민속, 민속놀이, 설화 민요 등을 모두 아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력이 투여되는 작업이라, 아무래도 영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하추리 사람들이 챙겨 주시고, 나중에 다시 보완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업비용을 책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남덕우 인제문화원장님, 그리고 기획에서부터 제작과정에 일일이 신경을 써주신 백창현 사무국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참 따뜻한 분들입니다.

이 책은 모두 하추리 주민의 제보로 만들었습니다. 농사터에서, 마을 행사에서, 마을회관에서 제가 찾을 때마다 반가운 표정으로 맞아주시고 제보를 아끼지 않고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이분들의 것입니다. 모든 하추리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춘천 무편서실(無偏書室)에서
문래산인(文來山人) 이학주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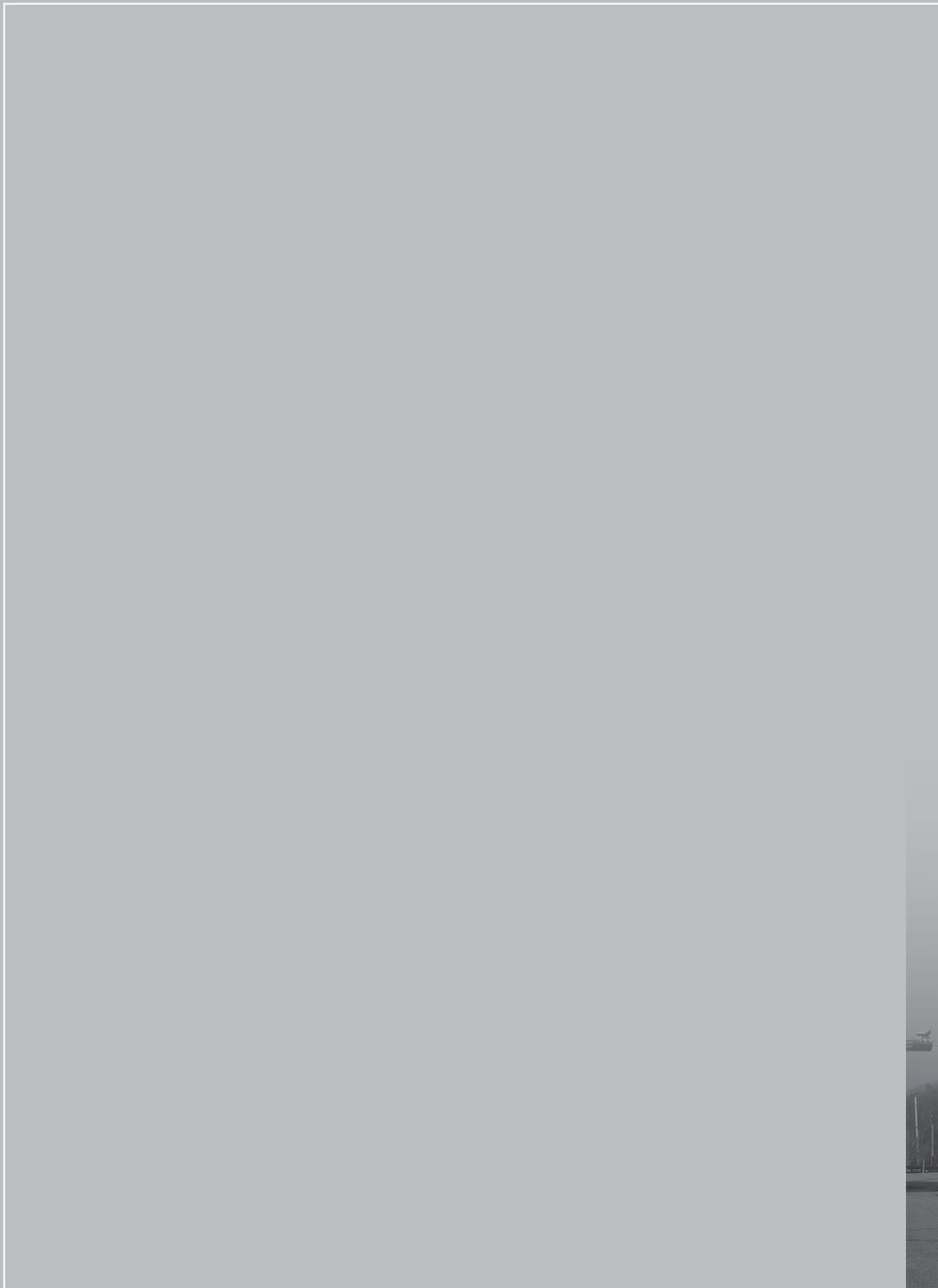
목 차

contents

발간사

서 문

제1장	하추리개관	23
제2장	땅이름	33
제3장	역사	69
제4장	세시풍속	87
제5장	의식주	97
제6장	구비문학	111
제7장	생산민속	149
제8장	일생의례	167
제9장	민속놀이	179
제10장	민간요법	197
제11장	민속신앙	211
제12장	내가 아는 하추리	231



제장
하추리 개관



제 1 장

하추리 개관

하추리 노인회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글귀가 있다. 여덕위린(與德爲隣)이라는 액자에 써진 글귀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뜻을 풀어놓았다. “덕으로써 이웃한다는 뜻으로, 덕이 있으면 모두가 친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 풀어 놓았다.

하추리는 귀농귀촌인이 절반을 넘는다. 그러니 토박이가 반도 안 된다. 그런데 마을에 가보면 정말 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두 덕 있는 이웃임을 누가 가든 직감할 수 있다. 마을행사가 있을 때는 다들 열성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 가정의 대소사도 함께 챙겨줌을 눈을 크게 뜨지 않아도 보인다. 이웃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눈에 보일 정도이다. 이런 마을을 일러 우리는 이상향이라 한다.

또 노인회관의 한 구석에는 이런 글귀도 있다. 천증세월인증수(天增歲月人增)



壽)라고 쓴 액자이다.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나이를 더한다는 말이다. 세월이 더하면 문명이 발전할 게고, 나이를 더하면 현명해 질게다. 목숨 수(壽)자는 수명이니 나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함께 이웃이 살아가는 방도를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았을 게다.

그 때문일까 노인회관에는 벽을 따라 상장이 빼곡하게 걸려있고, 이웃들과 함께 한 추억이 담긴 여행사진이 역시 술하게 걸려있다. 농악연습을 한 흔적도 보이고, 노인들이 메밀밭을 가꾼 사진이며 메일도 걸려 있다. 노인회장의 사진만 걸려 있는 여느 노인회관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이런 흔적은 하추리사람들을 볼 수 있는 증거들이다. 음식을 먹을 때 권하는 풍속도 그대로 볼 수 있다. 참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야말로 무릉도원이고 이상향이다. 옛날 『청구야담』에 <무릉도원을 찾은 권 진사>라 제목하여 인제의 무릉도원을 쓴 글이 있음을 보았다. 그때 권 진사가 노인을 따라 소를 타고 갔던 곳이 하추리가 아닐까. 참 예쁜 마을이었다.



하추리 노인회 메밀밭 김매기(2013. 8. 26)

아래에 있는 마을 관련 구술을 보면 필자의 이 글이 허튼 말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하추리 개관

옛날 하추리를 처음 개간한 사람들은 밀양 박 씨들이었어요. 박 씨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최 씨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씨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삼척 김 씨네가 들어오고 했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하추리를 개간했어요. 그래 박 씨네 집안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니 다른 성 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 여기 하추리 들어와서는 박 씨네고, 저기 검은석이라는 데는 최 씨네고, 그리고 더디미는 한 씨네 한 덩굴이야.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산소는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박 씨네가 밀양 박 씨네가 수복 때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선달 벼슬을 해가지고, 그래 산에 망부석이 없어



하추리 상장 및 자매결연

요. 이 아래 최 씨네 망부석이, 내가 구학문을 못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 몇 대라는 걸 무슨 벼슬을 했다는 걸 알건데. 거 한문을 모르니까 그냥 볼 뿐이지요. 그래 하추리 지역에는 최 씨네가 망부석을 세웠으니 윗대부터 뭐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지요. 그게 보존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하추리가 다른 동네보다 단합은 잘 돼요. 귀농하신 분도 아주 잘 따르고요. 그러니 하추리가 복 받았다고 그러지요.

처음 박 씨네가 여기에 장외와 존을 모두 했어요. 지금 말하면 이장이지요. 그 다음에는 구장이라 했고요. 박 씨네가 장외를 할 때 여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 용수라고 그 분이 이장을 하면서 호수가 많아가지고 단일 리로 하려니 호수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저 위의 박수터를 하추2리로 만들고, 가래울은 하추1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인구가 자꾸 줄어서 하추리가 단일 리로 됐어요. (김영모 제보)

하추리 마을가꾸기

하추리 꽃길조성을 했으나 2006년수해 때 모두 떠내려갔다. 잠곡축제에 이어 도리깨축제를 열어 마을 알리기를 하였다. 하추리마을 사무실과 판매장에 가면 갖가지 마을 가꾸기의 결실이 붙어있다.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도리깨 축제, 행복리센터1호점, 2016년 팜스테이마을 3위, 농어촌인성학교, 으뜸농촌체험휴

양마을, 산촌버섯마을, 으뜸촌농촌관광사업등급 경관, 서비스1등급 체험숙박음식,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산림청장, 정보화마을 우수마을-행정자치부장관, 귀농귀촌 우수마을 미래창조 대상- 2016미래창조귀농귀촌박람회, 2017가족사랑 농촌체험마을-교보대산농촌재단 등이다.

마을에는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판매장, 방앗간, 노인회관, 도리깨 방아 체험장, 가마솥 밥 짓기 체험장, 만들기 체험장, 공연장, 가래치기 체험운동장, 물고기 체험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금요일 노인회관에서 점심 함께 먹기, 달집태우기를 비롯한 정월대보름 놀이, 마을 입구에서 정월대보름과 도리깨축제 때 연 2회 거리제 지내기, 11월 셋째 주 도리깨축제, 도농자매도시 도리깨 공연, 2017강원민속예술축제 도리깨질소리 참가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작목반으로 버섯작목반이 유명하다. 특히 송이철이 되면 마을에서는 송이채취를 위한 마을공동행사를 진행한다. 가가호호 따로 채취를 하지만, 관리는 공동으로 한다.



하추리의 가을 풍경

도리깨축제

하추리에서 내세울 것이 잡곡이었다. 그래서 잡곡축제를 열었는데 도리깨축제로 바꾸어서 특화 시켰다. 잡곡축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회를 실시하였다. 명석을 깔고 잡곡을 판매하였다. 탈곡기로 탈곡을 하고 도리깨로 잡곡을 털었다. 이때 축제 비용이 7~800만 원정도 들었는데 모두 자부담으로 하였다.

2015년 농식품부에서 축제지원을 받았는데, 세종시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였다. 이때 농식품부에서는 주민이 즐기는 축제를 하라는 것이었다. 판매에도 신경 쓰지 말고, 체험에도 신경 쓰지 말고 주민이 스스로 즐기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했다. 주민이 즐기는 축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마을이 홍보되고 마을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 자매단체들이 생겨나면서 마을이 활성화 되었다.

도리깨질소리퍼포먼스는 축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인원동원이 어려웠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의외로 도리깨질소리퍼포먼스가 축제의 중심이 되어서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벅찼다.

2016년에는 체험시설을 늘렸다. 솔단지를 걸어 직접 밭을 지어볼 수 있게 하였다. 인제로컬사업단과 연계하여 관광두레를 하였다. 이해는 그렇게 해서 판매 등은 위탁을 줘서 했다. 이해 도리깨질소리퍼포먼스는 축제 때도 시연을 하고 서울방이동과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곳에서 백제문화제를 열 때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농림식품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다. 특히 도리깨질소리는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9월에 출품을 했고, 축제 때에도 매일 두 번씩 공연을 하여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받고, 카메라에 집중적으로 담기게 되었다. 나중에 떡매치기나 절구질 그리고 키질 등은 체험 차원에서도 훌륭하다. (박봉수 제보)



도리깨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도정공장과 농사

마을에 도정공장을 지어서 마을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을 도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인제군 지역에서 필요한 도정도 해줄 수 있었다. 마을사람들이 협동으로 잡곡도정을 하게 되었고, 정보화마을 운영도 다른 곳보다 잘 되고 있다.



원래 하추리는 양지바른 곳이라 화전농사가 잘 되었었다. 물과 산이 조화로워서 특히 잡곡농사가 잘 된다. 오죽 잘 되었으면 “하추리에 가서 화전이나 해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가족올래의 뜻

가족올래는 ‘가족+All+來’의 뜻으로 가족이 모두 와서 즐겁게 놀다가 가기를 원해서 지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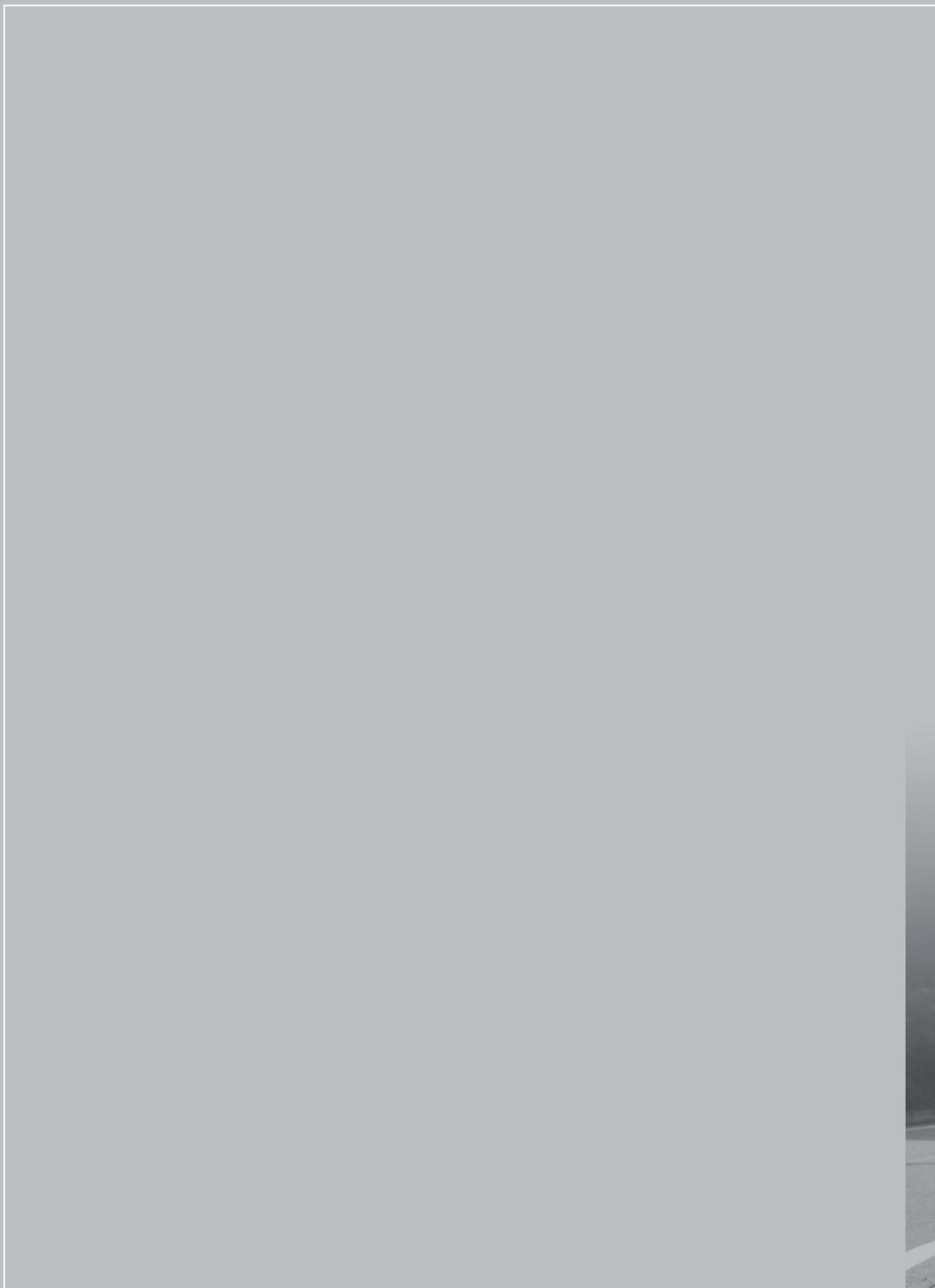
마을사업

- 2006년 새농어촌건설운동
- 2007년 폐교 리모델링 사업
- 2006년~2010년 강원도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선정
- 2008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팜스테이 마을지정
- 2009년 농촌 신활력사업 특화사업
- 2010년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 2011년 지역특화테마마을
- 2012년 잡곡 기술력 향상 프로젝트 조성사업. 도정공장신축, 잡곡기반시설조성과 상품개발, 마을기업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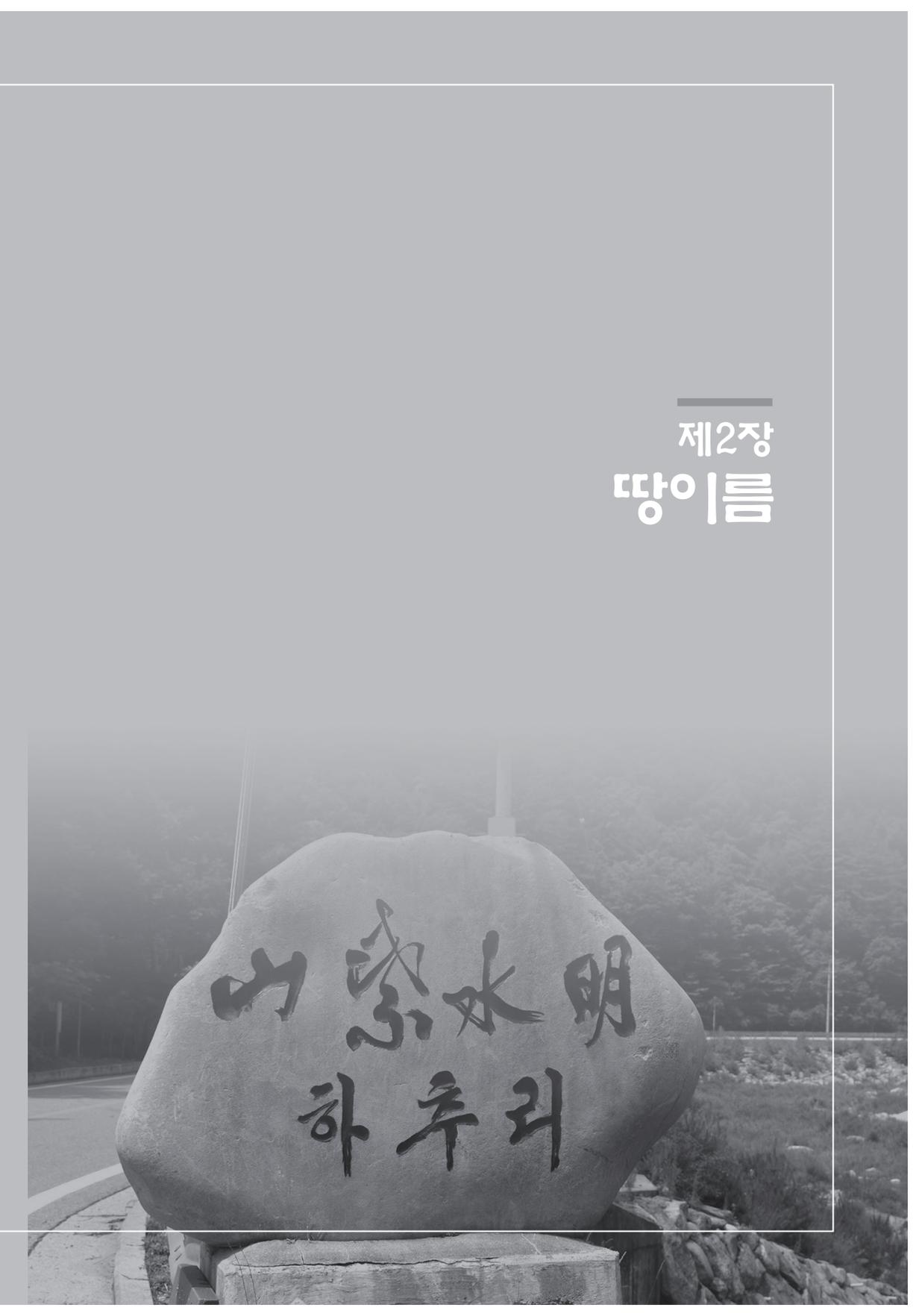
- 2013년 마을기업지정, 정보화마을지정
- 2014년 스타팜지정, 행복리마을 인제읍 1호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관,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부문 농어촌휴양마을 으뜸촌 선정
- 2015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 2016년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귀농귀촌우수마을 지정, 금연마을지정, 농어촌휴양마을 으뜸촌 선정, 우수정보화마을 선정
- 2017년 2017전국 우수마을기업 선정, 2017강원도 최우수 정보화마을 선정



지금까지 하추리 마을의 이모저모를 대충 보았다. 이 모습은 다음 장부터 소개하는 하추리 관련 글을 보면 가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하추리가 산자수명(山紫水明)한지 그 뜻을 알 수 있다. 산자수명은 자연의 뛰어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씀이 바로 뛰어나다.



제2장
땅이름



山系水明
하추리

제2장

땅이름

하추리(下楸里)

하추동. 본래 동면지역으로 추동의 아래쪽이 되므로 하추동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싸리목이, 농금이, 닥밭구미, 박수터, 더디미, 셋말, 검은석을 병합하여 하추리라 하였다. 워낙 산촌이어서 예전에 별명으로 '하늘에서 내려 온 첫 동네'라 했다. 산이 높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여지도서』(1757~1765)에는 동면에 속했고, 관아에서 동쪽으로 35리이며,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9호이고 남자는 23명 여자는 46명이라고 했다. 『관동읍



지』(1830년경)에는 하추동리(下楸洞里)가 동면(東面)에 속하며 관문에서 동쪽으로 35리 거리에 있다. 편호는 16호로 남자 30명 여자 33명이라 했다. 『조선지리지』(1911)에는 하추리 자체를 가래울이라 하였다. 『강원도지』(1940)에는 인제면에 하추리가 속해 있다고 했다. 『인제군사』(1996)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본래 동면(東面) 지역으로 추동(楸洞) 아래쪽이 되므로 하추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싸리목이, 농금이, 닥밭구미, 박수터, 더디미, 셋말, 검은석을 병합하여 하추리(下楸里)라 하여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추동의 다른 이름이 가래울인데 이는 가래나무가 많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며 지금도 이곳에는 가래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읍 소재지에서 동방(東方) 19km 지점에 위치하였으며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하추리에는 오래전부터 밀양 박 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박수터 위쪽은 지 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지금은 김 씨 등 다양한 성 씨들이 함께 살고 있다.

하추리는 설악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관이 좋기로 유명하다. 마을을 품고 있는 매봉산과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개울이 일품이며 하추리 사람들의 역사와 함께 했다. 화전민들이 살 때는 마을의 가구 수가 많았고 초등학교도 운영이 되었으나 어디나 그렇듯 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었다. 그러나 하추리 사람들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잡곡이라는 특산물을 활용하여 마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가족올래라 하여, 가족All來라 써서 가족들이 모두 와서 함께 한다는 의미로 마을 표어를 지었다. 이 때문에 잡곡축제로 시작해서 도리깨라는 특성을 살려 축제를 열고 있으며, 마을 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어 바람직하다.

하추리는 법정리 하나인데 3반까지 있다. 2016년에 마을에는 69가구 215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남자 116명 여자 99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사람들 단합이 어느 마을보다도 잘 되어 원주민과 귀농귀촌 인구들이 하나 같이 지내고 있어 다른 마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아래에 하추리 마을의 역사를 담은 지명과 그 유래를 기록해서 하추리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가래울

추동(楸洞). 갈터. 하추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이 있었다.

여기 가래울에 옛날에는 부자만 살았다. 여기 골짜기에 기와집만 있었다. 기와집이 많았다고 해서 새덕이골이라 했다. 박 씨네는 이 지역에서 선달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니 여기서 기와를 엮어 살았다. 옛날에는 하추리라 하지 않고 가래울이라고만 했다. 어디 갔다가 가래울 산다고 하면 촌놈이라고 했다.

『조선지지자료』에서는 하추동(下楸洞) 자체를 가리울이라 했다.

가래울물

『조선지지자료』에 한글로 가리울물이라 하고 하추곡천(下楸谷川)이며 하추동 앞에 흐른다(前流)고 했다.

가래울어구주막

『조선지지자료』에 한글로 가리어구주막이라 하고 한자로 하추동어구주막(下楸洞於口酒幕)이라 하고 하추동에 있다고 했다.

각구봉

용화선원 뒤에 있는 산으로 해발 760m이다. 이 산을 넘으면 기린면 현리가 나온다.

간촌(間村)

새말. 싸리목과 노루목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관립학교터

간이학교터. 관립학교. 일제강점기 때 운영되던 초등학교이다. 새덕이 말뚝소 앞에 있었다. 2학년까지 있었다. 학교는 작지만 인원은 많았다. 당시 130여 명 정도 다녔다. 학교 옆에 운동장이 있고, 앞에는 연못도 있었다. 연못 옆에는 수양머드나무가 꽤나 큰 것이 있었다. 연못에 고기가 있었는데 도시락 옆에 먹다가 붙은 밥알을 넣어주면 고기가 잘 물었다. 그걸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집으로 가

저가 먹었는데, 누가 보면 도로 뇌주었다.

양잠실이 있었는데 그 양잠실을 교실로 개조해서 썼다. 학교에서 소와 돼지도 길렀다. 누에도 뽕을 따다가 주어 길렀다. 돼지는 집에서 방아를 찧으면 등겨도 가져오고 칩뿌리도 캐서 주고 하면서 길렀다. 가을운동회 때에는 그 돼지를 잡아서 행사를 했다. 가축을 기르고 누에를 치는 것을 모두 아이들이 했다. 논이 있어서 아이들이 농사도 지었다. 밤나무 있는 곳에 뽕나무를 심었다. ‘뽕나무 재배’라고 했다.

거랭이바위

옛날에 거지들이 이 바위 밑에서 머물면서 자곤 했다. 바람이 잘 불지 않아 따뜻했다. 바위굴에 들어가면 물도 있고 해서 지내기 좋았다. 길을 새로 내면서 물어버렸다. 1반 있는 쪽 큰 강 옆에 있었다. 지금의 내린천 옆이다.

거무세기

흑석동(黑石洞). 거문석. 검은석. 돌이 검다.

검은석

흑석리. 거무세기. 검은석이. 하추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검은 빛깔의 돌들이 있다. 1반에 해당한다. 하추리 입구마을이다. 내린천이 마을 앞으로 흘러간다. 그곳에는 달박굴, 구멍바우골, 음정골, 원골 등 그쪽에 이름이 많다. 우리 동네가 검은석이다. 돌이 많다고 해서 검은석이라 했다.



검은석이 광경

곡장곡(曲長谷)

곡장골. 간촌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덕이 옆에 있다. 매봉산으로 들어가는 골인데, 옛날 매봉산에 산삼을 캐던 사람들이 산신제를 지내려고 산신당을 만들어 놓았다. 골을 따라 올라가면 옛날 화전민이 살던 집터가 있다. 그 집터에 납작 김씨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 집 바로 옆에 산신각이 있었다. 산신각 집은 능에 집이었다. 나중에는 넓직한 들로 지붕을 이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는 한글로 곱장골이라 하고 한자는 곡장곡(曲長谷)이라 하고 하추동 간촌(間村)에 있다고 했다.

구녕골

구무시기에서 구부러져 들어간 골짜기이다. 일제강점기 말엽에 난리 난다고 해서 피란막 집을 지었다. 동네 10여 채가 그곳에서 피란을 했다. 이곳에서 더 들어가면 구녕바우골과 소래골과 우면골이 있다.

구녕바우골

구녕바우골. 검은석에 있는 골짜기이다. 달박굼 다음에 있다. 산능선이 돌로 되어 나가다가 바위구멍이 길게 나 있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반대편 골짜기인 고사리로 넘어갈 수 있다. 검은석 사람들이 그 구멍으로 많이 다녔다. 그 구멍을 막으면 저쪽 마을이 안 된다고 한다. 그때 바위구멍 앞에서 밥을 해놓고 빌기도 했다. 지금은 나무가 우거차서 찾기가 쉽지 않다. 50년 세월이 바뀌놓았다. 옛날에는 구멍이 커서 도토리를 주워서 가면 서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빠질 수도 없다. 전쟁이 나서 포가 많이 떨어져서 굴이 작아졌다고 한다.

6.25전쟁 때 구녕바우골에서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전쟁이 끝나고 구녕바우골에 가니 M1소총이 많았다. 동네사람들이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 이곳에는 38선이라서 전쟁이 많았다. 요즘도 심심하면 해골 찾아간다. 그 당시 방공호 뚫던 곳이라 해골이 많다.

군실이

더디미 있는 곳 38선이 지나는 곳이다.

굼병소

『조선지리지』에 한글로는 굼병소라 하고 하추동강(下楸洞江)으로 하추동 앞에 흐른다(前流)고 했다.

굼봉소

내린천 봉오터 앞에 있는 소(沼)이다. 소가 빙글빙글 돌아서 사람이 빠져 돌아 가면 못 나온다고 했다. 지금은 알아졌다. 지금도 큰물 질 때는 물이 돌아 나간다. 도로포장을 할 때 강에 있는 골재를 꺼내 팔았다. 그 때 문에 물이 알아졌다.



굼병소

옛날에는 물이 깊어서 배를 타고 건너 다녔다. 또 물을 건너려면 옷을 벗어 머리 위에 이고 건너가서 다시 입었다. 건너 산에 농사를 지었다. 강 건너 산을 다 밭으로 해 먹었다. 가져올 때는 배로 나르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강이 얼었다. 강 수심이 깊어서 얼음이 평평하게 얼어 농산물을 가져오기가 쉬웠다. 옛날에 강 건너 논도 해먹고,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땅콩을 부치기도 했다. 서울 사람이 땅을 개간해서 논으로 만들어서 물을 퍼 올려 벼농사를 지었다. 그러다가 장마가 심하게 나면서 모두 떠내려갔다.

꿩소

휴양림 앞에 있는 소이다. 소 구유모양으로 생겨서 꿩소라 불렀다. 옛날에는 무척 깊었다. 지금은 길을 닦느라 메워서 조그마해 졌다.

기린산(麒麟山)

용화사(龍華寺) 뒤쪽에 있는 산이다. 용화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용화사에서 이 산을 넘으면 기린면 현리가 나온다. 용화사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으며, 산이 길고 둥그렇게 이뤄져 있어 산 계곡으로 물이 꽤 많아 용화사 밑으로 흘러내린다.

남전골

닥밭구이에 있는 골이다.
남전골(藍田谷).

이곳에는 무애암(無碍庵)이라는 암자가 있다. 큰 길에서 조금만 오르면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곳 옆에 마당이 있어 자동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곳에 자동차를 대고 바로 위에 보면 무애암의 법



무애암 대웅전

당이 나온다. 그리고 법당 바로 옆에는 아주 오래된 듯한 귀틀집이 있다. 이 귀틀집은 설산정사(雪山精舍)라 이름 하여 나무에다가 한자로 써 놓았는데, 30년 전 이곳에 들어와 정착한 스님이면서 화백이었던 분이 건립하고 그 글도 써놓고 공부하던 곳이라 한다. 법당 뒤에는 나무로 짓고 기와를 얹은 산신각(山神閣)이 있는데, 꽤나 고즈넉하다. 산신각 뒤로는 풀이 우거져서 오를 수 없다. 물은 많지 않지만 졸졸 폭포를 이루며 흐르는 계곡이 있어 조화를 잘 이룬다. 무애암의 뜻은 경계와 장애가 없는 암자라 했다. 우주의 질서와 삼재와 자연재해 등 장애를 뛰어넘는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극복하여 해탈, 탈피, 초월을 하는 방법을 마음으로 다스린다. 현재 스님은 2000년에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대웅전에는 금강경의 공(空)사상을 비유하여 적어놓은 글이 한자와 한글을 섞어 써 놓았다. “모든 좋은 法도 본래는 幻이요, 온갖 惡한 法도 또한 幻이라. 몸은 물거품 마음은 바람 같고, 幻을 나온 것 根도 實相도 없네.”

남정골

남정곡(南丁谷). 하추동 박수대에 있다고 『조선지지자료』에 있다.

내린천

하추리 1반 앞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옛날에는 큰강이라 불렀는데, 얼마 전부터 내린천이라 불렀다.

너래바위

1반 있는 곳 강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에는 소로 길이 너래바위 사이로 지나갔다. 이쪽 양쪽의 산이 호랑이가 있는 길목이라고 해서 밤에는 이곳을 다니지 말라고 했다. 너래바위 쪽에 호랑이가 숨어있을 곳이 많다고 했다. 옛날에는 이 마을로 들어오는 소로 길이 모두 강 여가리로 나 있었다. 길이 넓은 곳도 있었지만 어쩐 곳은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로 작았다. 짚세기를 신을 때는 신이 닳는다고 벗어서 들고 다녔다고 한다. 반반한 돌이라 맨발로 다녀도 아프지 않고 짚신은 닳는다고 했다. 벗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신고 가곤 했다.

너레골

광탄곡(廣灘谷). 하추동 박수대에 있다고 『조선지지자료』에 있다.

노루목

짜리목과 박수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노루사냥의 목이 되었다. 짐승도 낮은 목을 넘어갔다. 그래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짐승을 몰아 올라오면 때려잡는 곳이었다.

노적봉

용화사 앞에 둥그렇게 솟아 있는 작은 산이다. 노적가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매봉으로부터 길게 보면 용이 머리를 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용두(龍頭) 또는 용머리라고도 한다.

농금이

농금대(弄琴臺). 농금덕. 싸리목이 북쪽 산 위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거문고를 타는 형국이라고 농금대라 했다.

뉴항동(紐項洞)

싸리목이의 한자이름이다.

능금덕이

옛날 무덤이 있었다. 이곳은 강릉 최 씨네가 와서 개간을 했다. 어떤 묘에 망부석이 있었다. 사변 전에 누가 굴려서 망부석이 없어졌다.

또 서울에서 살던 하인이 이곳에 와서 살다가 상전의 아들이 찾아오니 혀를 잘라 하인으로 부렸는데, 나중에 들키자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전한다. 말은 못 해도 재주가 있어서 ‘재우(才愚)’라 불렸다. 이 재우를 우리말로 하면 ‘능금덕이’가 된다고 한다. 구비문학 항목 참조.

닥발구미

박수터 동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로 닥나무밭이 있었다고 한다. 가래울에서 가면 배나무골 지나서 있다. 일제강점기 말엽까지 여섯 집이 살았다. 또 그곳에 올라보면 다락 같이 생겼다. 지금은 돌을 채워 넣어 평지가 됐다. 옛날에는 논이 다 탁다탁 다락 논으로 되어 있었다.

옛날에 이곳에 관상노라는 벼를 심었다. 다른 벼를 심으면 지대가 높아서 경작이 안 되었다. 싸리목이 벼 재배 한계선이 되는데, 닥발구미에서는 특별한 법씨만 되었다. 닥발구미를 지나면 가리산리로 들어간다.

옛날 닥발구미에 살던 사람들이 인민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그 당시 인민정치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다.

달박굴

달박굴. 달밭굴. 갈밭굴. 검은석에 있는 골짜기이다. 운봉골 좌측 맞은편에 있다. 달이라는 갈대가 많았다. 저 아래 내려가면 갈대라 그러고, 여기는 달밭이라 한다. 달밭을 베어다가 지붕을 해 잇기도 했다. 거기 가면 지붕을 이을 만큼 충분히 달밭을 베어 온다고 했다.

더디미

더듬이. 도대미. 더드미. 검은석 동쪽에 있는 마을로 더디밋재 아래가 된다. 기린면 북리(北里) 하답(下畓)과 경계를 이룬다. 38선 경계이다.

한 씨네가 많이 살아서 ‘한덤불’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그 위에 산 자리 좋은 곳은 한 씨네 선조들이 묘를 썼다.

고개가 나무가 우거져 어두워서 이 고개를 넘으려면 더듬거렸다. 옛날 이곳으로 소로 길이 있었는데 나무 그루터기가 엄청 큰 것이 있었다.

이리로 넘어가면 기린 하답이 나온다. 한쪽 길은 귀둔으로 가고 한쪽 길은 기린으로 간다. 고개는 더디밋재라 한다.



더디밋재

더디미에서 기린면 북리 하답으로 가는 고개로 나무와 숲이 우거져 낮에도 어두워서 더듬으며 넘어 다녔다 해서 더듬이라 했다. 이 고개를 넘어서 양양 물치까지 가서 소금과 해물을 사왔다.

옛날에 호랑이가 많이 나타나서 호랑이를 잡는 장애틀을 놓았다. 호랑이를 잡으면 상을 줬다.

『조선지리지』에는 한글로 더디미고기라 하고 한자로는 가입현(加入峴)이라 하고 기린면(麒麟面) 경계에 있다고 했다.

덕갈평(德葛坪)

떡갈버덩. 하추리 입구에 있는 버덩이다.

덧바우

바위가 서로 덧 엉켜서 덧바위이다. 아래에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또 바위 한 개가 올라 있다. 1반 있는 곳인데 산으로 약 20여 분 정도 올라가야 한다. 길가에 서는 보이지 않는다.

도깨비소

검은석에 있는 소이다. 폭포가 떨어지고 그 아래 소가 있었는데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했다. 2006년 포락에 형체가 바뀌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도깨비불이 죽 죽 지나 다녔다.

도정공장

하추리마을회관 뒤쪽 산 밑에 있다. 하추리에서 나는 잡곡을 찧고 기름을 짤 수 있는 최신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돌배나무샘

삿갓골 배루대에 있던 샘이다. 돌배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샘이 있었다. 여름 철이면 물이 차서 손을 담그지 못할 정도였다. 김치를 담가서 이곳에 두었다가 끼니때가 되면 가져다가 먹었다. 자연적인 냉장고 구실을 했다.

드렁바우

바위가 들려있다고 드렁바위이다. 밑에 돌이 받쳐서 들어 있다. 1반 있는 쪽 강에 있다.

떡갈버덩

『조선지지자료』에 한글로 떡갈버덩이라 하고 한자로는 덕갈평(德葛坪)이라 하고 하추동 가입현(加入峴) 어구(於口)에 있다고 했다.

떼둔지

더디미 아래 큰 다리 있는 곳이다. 지형이 불룩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 논이 있었다.

말뚥소[말등소]

말이 빠져 죽은 소(沼)이다. 지금 순대국밥집 앞이고, 다리 위이며, 황토방 아래이다. 길이 경사가 심해서 말이 가다가 굴러 떨어져 죽었다. 예전에 이 길이 아주 작았다. 소로 길이었다. 학교가 있는 뒤로 길이 나왔다.



말뚥소와 하추계곡

또는 말등처럼 생겼다고 말등소라고 했다. 뱀덩이소 위에 있다. 현재 버섯동앞이다. 언덕이 높아 말등처럼 좋다고 했다. 말등소 앞에는 다리 놓아서 물을 건너 다녔다. 울력을 할 때도 그 길로 지계에 콩이나 나무를 지고 많이 다녔고, 방아를 쥘어서 집으로 올 때도 다녔다. 나무도 품앗이를 하기도 했다.

말뚥소 옆 언덕에 중국군인들이 걸어가다가 총에 맞아 1개 대대병력이 몰살을 했다. 밤나무 있는 곳에 군인들이 지금도 와서 유골을 찾았다. 유해발굴단이 와서 발굴한 것이다.

매봉

영취산(靈鷲山). 하추리 뒤에 있는 산이다. 용화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용화사에서 앞으로 보면 웅장하게 솟아 있다. 옛날 새매가 이 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용화사에서는 매와 독수리가 머물러 있던 산의 불교적인 이름으로 영취산(靈鷲山)이라 부른다. 원래 영취산은 고대 인도의 마가다국 수도 라자그리하(王

畝城) 주위에 있던 산이다. 석기모니 부처님이 이곳에서 법화경(法華經)과 무량수경(無量壽經)을 강(講)했다고 한다.

매봉산

하추리 뒤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하추리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옛날 이 산꼭대기에 매가 살았다. 지금은 임도가 만들어져서 매봉산 언저리로 자동차가 오를 수 있다.

매봉산에서 화전을 할 때 불을 놓으면 6.25한국전쟁 때 사격을 하면서 터지지 않은 포탄이 터졌다.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터졌다. 화전을 하도 해서 매봉산에 나무가 많지 않았다.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살았는데, 적은 곳은 2,3호 많은 곳은 7,8호 가량 살고 있었다.

장수터 쪽에 매봉산(한적산)전적비가 있는데, 매봉산은 무척 험한데 이곳에 올라가면 탄피, 포탄, 철모 등이 즐비했다. 고철처럼 된 포탄이 터지면 죽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주를 꺼내 팔려고 뜯기도 하였다. 탐지기를 틀면 아직도 많이 나온다. 학도병의 유해도 발굴되었다.

마을에서는 1976년도에 묘목을 많이 심었다. 어린 묘목을 가마니에 넣어 지고 올라가서 심었다.

먼골개울

『조선지리지』에 한글로 먼골기울이라 하고 한자로는 원곡계(遠谷溪)이며 하추동 앞을 흐른다(前流)고 했다.

물안골

하추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는 화전을 많이 했다. 밥 먹으러 내려와서는 불을 놓아 산을 태웠다. 화전에는 보통 조를 많이 심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인들이 금을 캐려고 굴을 뚫었는데, 시굴을 하다가 그만 두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물양골

『조선지리지』에 물양골은 한자로 수침곡(水砮谷)이라 하고 하추동 장수대(長水臺)에 있다고 했다.

바른골

새덕이에서 거무시기로 이어지는 곳이다. 바른골은 거기도 골이 두 골짜기이다. 거무시기 뒤 골짜기로 올라가면 바른골은 바로 올라가고, 구녕골이라는 골이 있다. 구녕골은 구부러져서 들어간다. 바른골은 화전하던 사람들이 살았다.

박수터

박수대(泊水臺). 하추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큰 장마로 마을이 전부 떠나려가고 흰 모래만 널려 있었다고 한다. 그때 배를 댈 만큼 남아 있었다고 해서 배 댈 박(泊)자에 물 수(水)자 터 대(臺)자를 써서 박수대라 했다. 주변에는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물길에 모였다 흘러내리는 계곡의 풍광이 아름다워 여름이면 아주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연당골이 있는 마을 이름도 박수대라 불렀다. 옛날 3반 전체를 박수대라 불렀다. 박터 놀이터는 마을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앞에 물이 골짜기가 좁아서 물이 돌아 나갔다. 물이 막혀서 돌아나갔다. 박수대 앞에서 옛날 마을사람들이 친럼을 하였다

박장골

『조선지리지』에 박장골은 한자로 박장곡(朴將谷)이라 하고 하추동 장수대(長水臺)에 있다고 했다.

박쥐굴

하추리에 있는 동굴이다. 이곳에 박가 많이 살고 있어서 박쥐굴이라 한다.



박수터

밤골

야곡(夜谷). 하추동 뉴항리(柵項里)에 있다고 『조선지리지』에 있다.

밤나무보호수

셋골에 있다고 해서 셋골 밤나무라 한다. 크기가 어른이 7곱 명이 손을 뻗어 안아야 안을 수 있을 정도이다. 밤나무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밤이 굵고 두꺼워서 맛이 좋은 편이다.

단오 때 그네를 매었다. 그네를 오랫동안 매어 두었는데 아이들이 그네를 타려고 논둑길로 내달렸다. 그 때문에 이곳에 논이 15배미가 있었는데, 논둑이 다 망가졌다. 밤나무 아래 평상을 두고 단오 때면 수리떡을 해서 먹으면서 놀았다.

이곳에는 서당이 열렸는데, 훈장어른이 이 동네에서 고개를 넘어 귀둔리 쪽으로 가면 있는 마을에서 오신 분이었다. 훈장어른은 전문적으로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쳤다. 여름철이면 밤나무 가지 위에 원두막 식으로 나무를 가로지르고 그 위에 널빤지를 대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곳에는 마을사람들도 올라가서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서당도 열렸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한문 공부를 하였다. 아이들이 놀다가 훈장어른이 오면 막 뛰어가서 함께 공부를 하였다. 그때 훈장어른께서 밤나무 줄기에 한시를 써 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지워져서 볼 수가 없다. 보통 10여 명이 올라가서 앉을 수 있었다.

훈장어른은 당시 연세가 70이 넘었다. 공부하는 과목은 제일 먼저 천자문을 하였고, 다음은 무제시(無題詩)라고 해서 시를 공부하였고, 다음은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사서삼경 순으로 했다. 매년 서당이 열릴 때는 개접이라 해서 행사를 하고, 서당이 닫힐 때는 폐접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였다. 이때는 주로 국수를



밤나무 1

놀이 먹었다. 책을 한 권 땄 때마다 책거리라고 해서 부모들이 한턱을 내었다. 이 때는 국수를 놀리고, 떡을 하고, 막걸리를 해서 동네 노인들과 훈장어른들께 드렸다. 국수는 보통 메밀국수였다.(제보자 박성기)

이 나무는 인제군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지정번호: 강원-인제-20호(2013.11.8.)
-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390번지
- 수종: 밤나무
- 수령: 200년
- 크기: 나무높이(22m) 나무둘레(6m)
- 관리자: 윤종욱
- 특기사항: 본 수목은 수형이 잘 보존 되어 있고 마을주민의 훌륭한 쉼터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한 고목으로 마을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로 지정 관리함.

2013.11.8.

인제군수

밤나무2

하추리 2반 셋말에 있는 커다란 밤나무이다. 벼락을 두 번이나 맞았다. 벼락이 치는 소리가 나서 창으로 내다보니 밤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커다란 밤나무 가지가 툭 잘려나갔다. 약 400년 이상 수령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얘기를



밤나무 2

들으면 그 전으로부터 나무가 컸다고 한다. 옛날 나무가 죽으려고 해서 군 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치료를 했다.

이 밤나무는 예전에 단오가 되면 그네를 땀다.

부영이가 나무 사이에 매년 등지를 들고 새끼를 쳐 갔다. 나무에서 날 짐승이 새끼를 까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부영이가 새끼를 치는 줄은 모르고 나무가 커서 소리가 난다고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험한 나무라고 믿었다.

나무 앞에 있는 사람이 매년 나무 밑에다가 술을 따르고 제사를 지냈다. 나무가 크고 오래돼서 신령스러워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내던 집은 지금 없다. 그곳에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밤나무골

율목곡(栗木谷). 하추동 박수터에 있다고 『조선지리지』에 있다.

배나무골

이목동(梨木洞). 이목곡(梨木谷). 박수터 뒤에 있는 마을로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다. 재터버덩 못미처이다. 이제는 다 개간을 해서 집터가 옛날 것은 없다. 그러나 옛날에 부자가 살았다. 그리고 배나무가 몇 백 년 된 것이 있었다. 사변 나고도 그 나무가 있었다. 배가 많이 달렸다. 옛날에는 여기가 5반이라 했는데, 지금은 3반이다.

밴댕이소

옛 학교터가 있던 2반 셋말고 아래에 있던 소(沼)이다. 이곳에 아래쪽에 있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보(湫)가 있었다. 보가 있으니 물이 모여 소를 이루었는데, 이곳에는 민물고기 밴댕이가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밴댕이소라 불렀다. 파리나 찰알을 낚시 바늘에 꿰어 낚으면 잘 물렸다. 지금은 물난리 때 다 떠내려갔다.

버덩말

새덕이 맞은 편 강 건너 마을이다. 논도 있고 집이 몇 채가 있었다. 밤나무 고목이 큰 게 있는 곳이다.

베루대

벽산. 샷갯골 옆에 있는 산이다. 산에 돌이 많아서 베루대라 부른다. 벽산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나무가 우거차서 산에 있는 돌이 보이지 않는다.

보매기골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물을 막아 놓은 보(洑)가 있었다. 2반 샷갯골에서 청계울 쪽으로 올라가다가 있었다. 이 물을 이용해서 샷갯골의 논에 물을 대었다. 보는 2006년 수해 때 모두 떠내려가서 지금은 없다.

또 마을회관 앞에 있는 물안골 옆을 보매기골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는 한글로 보미기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보축곡(洑築谷)이라 하고 하추동 간촌(間村)에 있다고 했다.

보매기소

말뚝소 아래 150여m에 있는 소(沼)이다. 논에 물을 대려고 보를 막아서 소가 되었다. 보를 막은 것은 일제강점기 초기이다. 논마지기나 있는 사람은 막걸리를 해가지고 와서 간단히 제사를 지냈다. 술을 부으면서 ‘고수래’라고 하고 음식을 먹었다. “보 좀 든든하게 해 주십사.”라고 했다. 보제사는 보를 막을 적에 했다. 매년 봄 4,5월에 보를 막았다. 나무를 베어서 돌맹이를 눌러 보를 막아 물을 논으로 끌어들이 대었다. 보는 논 부치는 사람만 모여서 막았다. 그렇게 막아 놓은 보는 장마가 많이 나면 떠내려갔다. 주변에 나무가 클 새가 없었다. 보 막느라 베지, 화목 하느라 베지 나무가 크지를 못했다. 산이 아주 빨갯다. 민둥산으로 변했다.

봉오터

검은석에 있는 작은 들이다. 옛날 인민군들의 초소가 있었다. 농사를 지으면 말을 먹이려고 짚을 다 가져갔다. 앞에 있는 내린천을 경계로 이남과 이북이 갈라져 있었다.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면 나무하러 간다고 하면서 건넜다. 밤에 월남을 하는데 소를 끌고 갔으나 소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건너갔다.

불당골

절이 있는 것은 아닌데 불당골이라 한다.

산막골

산막곡(山幕谷). 하추동 박수대에 있다고 『조선지리지료』에 있다.

산신당골

옛날에 산신당이 있었다. 마을 노인회관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애살래바위

소원을 이뤄주는 바위이다. 배나무골에서 얼음골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다.

삼거리

검은석에서 장수대로 들어오는 입구 삼거리이다. 인제와 기린과 하추리로 통하는 길목이다. 이곳에 마을을 지켜주는 장승이 있어서 매년 정월보름과 도리 깨축제 때 제사를 받는다.

샷닷골

샷말 2반 밤나무가 있는 골이다. 이 골짜기에는 팔고비가 많이 났다. 6.25한국 전쟁 전만 해도 이 동네만 1개 반이 있을 정도로 꽤 큰 마을이었다. 용화사가 있는 청계울에만 6집이 있었다.

상추동

추동리 윗마을이다. 현재 2반 있는 곳을 옛날 상추동이라 하였다.

새덕이

닥밭구이 옆에 있는 마을이다. 기와집이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 부자들이 살았



삼거리



새덕이

다. 옛날에 기와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기와가 보이지 않는다. 이 골짜기로 곧장 가면 바른골로 넘어간다. 양지쪽이고 길이 좋았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때 광산이 있었다. 아연과 금을 캐는 철광이었는데 이곳에서 방아와 제련을 모두 했다. 나중에 일본인이 물러가고 나서 한국 사람도 채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김진만이었다. 김진만은 당시 국회부의장까지 했는데 하추리뿐 아니라 강원도에서 하는 모든 토목공사를 대부분 맡아서 했다.

광산이 이곳에 세 곳이나 있었다. 당나귀에다 금을 싣고 간다고 했다.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다녔다. 여기는 길이 나쁘니까 하추리 1반 있는 쪽에 흔히 매었다. 이곳에 주막집이 있었다. 아이들이 당나귀를 보러 가면 소리를 질러서 무서워서 갈 수 없었다.

『조선지리지』에는 시덕이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신덕곡(新德谷)이라 하여 하추동 간촌(間村)에 있다고 했다.

샘말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이곳에 샘이 있었다.

셋말

간촌. 싸리목과 노루목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서낭당 3반

하추리에는 서낭당이 몇 곳에 있었다. 하추리 3반은 자연휴양림 아래에 있는 서낭당에서 마을제사를 지냈다. 돼지머리, 메, 과일, 포를 해놓고 동네치성을 했다. 옛날에는 그곳에서 돼지를 잡았다. 돼지는 치성을 드리고 나누어 먹었다. 농촌에서 집집이 한두 마리 기르는 돼지를 사다가 제물로 썼다. 도기는 매년 돌아가면서 하였다. 도기는 부정 탄 거는 봐서 안 되고, 술도 그 집에서 하고, 도가 집에서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했다. 귀틀집 식으로 당집을 짓고 작대기 걸쳐놓고 문창호지를 걸었다.

3월 3일 일 년에 한 번 지냈다. 9월 9일에 지낼 때도 있었다. 휴양림 바로 아래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있는 곳에 큰 소나무가 있다.

석장골

석장곡(石藏谷). 고개넘어 첫 집이 있는데, 샷밭골과 씨리골 사이가 된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석장골이라 하고 하추동 뉴항리(紐項里)에 있다고 했다.

성무골

영철골 위로 더 올라가면 있다. 앞산도 돌 쌓은 것처럼 보이고, 뒤도 성을 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성안에 들었다고 해서 성무골이라 한다.

소래골

구녕바우골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이다. 소래골에는 범이 살아서 그르렁그르렁 소리가 난다고 했다. 이 골짜기에 가면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

숨밭버덩

『조선지지자료』에 한글로 숨밭버덩이라 하고 한자로는 도전병(島田坪)이라 하고 하추동 장수대(長水臺) 앞개울 가운데(前川中)에 있다고 했다.

신덕곡(新德谷)

새덕이. 닥밭구미 옆에 있는 마을의 골짜기이다.

신애지골

연당골 옆이다. 소나무가 많았다. 골짜기로 올라가면 농사를 짓는다. 입구 쪽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골 자체가 짧아서 물도 많이 나오지 않아 안쪽에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짜리목

축항. 누더기골(누리기골). 짜리목이에서 농금리로 가는 고개로 짜리나무가 많았다. 짜리나무도 많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 따뜻했다. 그래서 누더기골이라고도 했다. 누더기가 겨울에 숨바지 입는 식으로 따뜻하다.

옛날에 광산을 하던 곳이 있다. 짜리목 아래에 금방아를 찧던 곳이 있었는데 길이 나면서 없어졌다.

짜리목고개

용화사 있는 곳으로 짜리나무가 많았다. 『조선지리지』에는 한글로 짜리목영이라 하고 한자로는 추항현(樞項峴)이라 하고 군내면 가리산으로 통하는 고개라 했다.

짜리목골

짜리목에서 올라가면 있는 골이다.

짜리목금광

짜리목에 있던 금광이다. 이곳에서는 금광만 했는데, 두 개가 있다. 모두 일제강점기 때의 금광굴이다.

짜리목이

축항동. 짜리메기. 하추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짜리목 고개 아래가 된다.



짜리목이 정류장

쌀리모기골

추항(柵項), 하추동 뉴항리(柵項里)에 있다고 『조선지지자료』에 있다.

안말

삿갓골 안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이곳에 4집이 살았다.

야곡(夜谷)

더디밧재. 더디미에서 기린면 북리(北里) 하담으로 통하던 골짜기이다. 나무와 숲이 우거져 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서 더듬거리며 넘어 다녔다.

양짓말

버덩말 위쪽 햇별이 잘 드는 마을이다. 아침 일찍 해가 들어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온다.

어용골

『조선지지자료』에 어용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어룡곡(於龍谷)이라 하고 하추동 흑석리(黑石里)에 있다고 했다.

얼음골

배나무골에 있는데,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수 있다.

연달골

연달곡(連達谷). 하추동 박수대에 있다고 『조선지지자료』에 있다.

연당골

신애지골 옆이다. 박수대 있는 곳 아래다. 아무런 특징이 없다.

연못터

일제강점기 때 학교가 있던 곳이다. 말뚝소 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순대국집이 있는 바로 옆이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때 이장사무실이 있었다. 이장사무실 앞에 연못이 있어서 붕어를 넣어 길렀다. 소학교가 옆에 있었기에 학생들이 가끔 구경을 오곤 했다. 연못이 비교적 커서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 헤엄을 치기도 했다. 연못에 넣어놓은 붕어는 밥알을 잘 먹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낚시 바늘에다가 밥알을 끼워 넣으면 붕어가 물려 낚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붕어를 낚아서 집에 가서 먹었는데, 붕어를 낚으면 일본인이 나와서 아이들을 쫓아내곤 하였다. 일본인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은 낚시를 하다가 달아났다.

연못 옆에 인민군사령부 막사가 있었다.

영철골

영천골. 더디미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골에 들어가면 철이 많다. 『조선지리지자료』에는 한글로 영철골이라 하고 한자는 영철곡(盈鐵谷)이라 하고 하추동 흑석리(黑石里)에 있다고 했다.

옷밭영

『조선지리지자료』에 옷밭영이라 하고 한자로 칠전령(漆田嶺)이라 하고 하추동에 있다고 했다.

용화사(龍華寺)

하추리 셋말에 있는 절이다. 청계골에 위치하고 있다. 본사는 인천에 있고, 이곳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화사는 용화세계를 이루고자 지은 이름이다. 곧, 용화세계의 미륵부처가 조화를 이뤄 이상향을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명명하였다.

마을과 유대관계를 잘 이루고 지낸다. 칠석제를 마을 서낭당에서 지낸다. 입춘첩 등을 마을에 가가호호 주어 마을에 복이 오기를 기원한다.



용화사 일주문

운봉골

소래골에서 내려와 오른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에 운봉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운봉골이라 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석이를 따서 석이를 팔면 옛날 토막집인데 돈은 두면 쓴다고 석이를 팔아 받은 돈을 골에다가 던졌다.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꽤 많은 돈이 모였다. 그래서 화전도 하고 먹고 살곤 하였다. 그렇게 하다가 할멈을 보고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우리 이제는 여기서 떠나서 논 많은 데 가서 쌀밥도 먹고 살자고 했다. 그러니까 할멈이 뭘 돈이 있다고 쌀밥을 먹고 사냐고 했다. 아니 내 생각이 내가 석이를 따서 몇 년간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논을 몇 마지기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래 이 사람이 올라가서 던져놓은 돈을 모으니 훌치기로 하나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훌치기라 하고 저 아래서는 주루먹이라 해요. 내가 이렇게 석이 따 팔아서 돈을 모았다고. 이 돈이면 논을 사서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여주 이천으로 갔대요. 거기 가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이 운봉골이에요. 그 골에 석이가 많이 나요.”

『조선지리지』에는 한글로 운봉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운봉곡(雲鵬谷)이라 하고 흑석(黑石里)에 있다고 했다.

원곡계(遠谷溪)

먼골개울. 하추동 앞으로 흐르는 물이다.

원골

검은석에 있는 골짜기이다. 은병골 다음에 있다. 원골로 해서 올라가면 매봉산으로 간다. 한참을 올라간다. 아주 멀다.

유곡(楸谷)

싸리목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싸리나무가 많았다.

은병골

검은석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녕바우골 다음에 있다.

응지보

박수터 밑에 있던 보(湫)이다. 박수터 밑에 물을 막아서 샷갯골까지 물을 내려 보냈다.

인민학교터

광복 되고 북한의 통치를 받을 때 세워진 학교이다. 일제강점기 때 관립학교터와 같은 곳이다. 그러다가 지금 체험학교로 쓰고 있는 곳으로 옮겼다.

일어서기골

바른골에서 좀 더 들어가면 있는 골짜기이다. 산이 붙근 솟아 있다. 그래 산이 일어서 있다고 해서 일어서기골이 됐다. 산이 아주 높다. 약 해발 700m정도 된다.

작은강

하추리 앞으로 흐르는 강이다. 내린천을 큰 강이라 했고, 상대적으로 하추리 앞으로 흐르는 강이 작다고 해서 작은 강이라 했다. 이 강에서는 자주 천렵을 했

는데, 보통 또래끼리 했다. 가끔 마을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천렵을 했다. 고기를 잡을 때는 죽대를 이용해서 나무로 지렛대를 사용해서 바위를 흔들어서 고기를 잡았다. 조금만 노력해도 고기를 많이 잡았다. 아이들이 여름 내내 물에서 놀았다. 겨울이면 얼음이 얼어서 썰매를 탔다. 얼음 위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보면 짙신이 얼어서 부러졌다. 집에 오면 어른들한테 짙신을 부러뜨렸다고 혼줄이 났다. 물이 워낙 맑아서 일 년 내내 청때가 하나도 끼지 않았다.

밤이 되면 여자들이 농사일을 끝내고 다들 나와서 목욕을 했다. 아이들은 남자 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발가벗고 물놀이를 하였다.

장수터

장수대(長水臺). 현재 하추리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다.

장수터주막

『조선지지자료』에 한글로 장수터주막이라 하고 한자로는 장수대주막(長水臺酒幕)이라 하고 하추동에 있다고 했다.

장승공원

짜리목이에서 배나무골로 가는 중간 언덕에 있다. 몇 개의 장승이 있다.



장승공원

재터버덩

지금 하추리 휴양림이 있는 곳이다. 경치가 좋아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풍을 가던 장소로 많이 애용되었다.

절골

『조선지리지』에 한글로는 절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사곡(寺谷)이라 하고 하추동 장수대(長水臺)에 있다고 했다.

정수골

『조선지리지』에는 한글로 정수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정수곡(井水谷)이라 하고 하추동 장수대(長水臺)에 있다고 했다.

주막집터

하추리 1반 있는 곳에 있었다. 두 집이 있었다. 지금 장승 있는 곳 부근에 있었다. 옛날 내린천 강으로 떼나무를 내려 보냈다. 그때 뗏꾼들이 주막에 머물기도 했다. 하추리 앞강은 떼를 댈 수 없고 그냥 나무토막을 내려 보냈다. 합강에 가서 떼를 댔다. 떼나무를 내려 보내는 것을 ‘적심한다’고 했다. 적심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 됐다. 어떨 때 나무를 많이 내려 보낼 때는 나무를 쌓아 놓은 것이 높아서 길이 안 보였다. 물을 따라 내려가던 나무가 한 개 걸리면 계속해서 나무가 쌓였다. 그때 나무를 또 내려갈 때 데미를 치면 한 달 일당을 준다고 했다. 데미를 치러 갔다가 잘 못 하면 사람이 죽었다. 나무더미에 깔려서 죽는다. 잘 못 데미를 치면 걸렸던 나무가 한꺼번에 확 쏟아진다. 그러면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서 나무에 깔려 죽는다. 여기서 적심 잘 하는 사람들이 정선에 가서 적심을 하면 일등으로 한다고 했다. 정선의 물이 여기 물보다 유하다고 했다. 여기는 험하다. 그래서 여기서 적심을 해 본 사람은 정선에 가면 잘 한다고 소문이 났다. 그래서 정선에 가면 품값을 곱으로 받았다.

지당소(沼)

용화사 절 있는 곳 앞이다. 이곳에는 매년 산신제를 지내는 곳으로 지당이 있어서 그 앞에 소를 지당소라 했다. 지당에 나무도 큰 것이 있었는데 2006년 수해나고 죽었다.



지당소



천렵

지봉소(沼)

하추리 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있었다. 장승 앞의 다리인데서 조금 더 올라오다 보면 있다. ‘지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 이름이 지봉인데 그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 후에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지 않는다. 아이가 빠져 죽자 그곳에서 곳을 했다. 지금은 소가 작아졌다.

천렵터

작은 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섬이다. 양쪽으로 강물이 흘러가고 가운데 섬이 있었다. 섬의 크기는 밭이 700평 정도 있어서 농사를 지었다. 목화를 심어 옷을 해 입었다. 소나무가 큰 게 10여 그루 있었고, 아카시아 나무가 빙 둘러 있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여름이면 모여서 천렵을 자주해서 천렵터라 했다.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었다. 또 마을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서 먹었다. 막걸리를 가져와서 먹으면서 함께 놀다가 날이 저물면 집으로 갔다. 고기를 잡을 때는 ‘썰치기’라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썰치기는 물을 막아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물이 천렵터를 가운데로 두고 양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 쪽을 막으면 물이 반대쪽으로 흐르고 막은 곳 아래는 물이 말라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돌과 풀뿌리로 막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닌데도 고기를 많이 잡았다.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고 남은 것은 나누어서 집

으로 가져갔다.

이 천렵터는 2006년 수해 때 모두 떠내려가서 없어졌다.

천렵터2

3반에서 주로 이용하던 천렵터이다. 휴양림 있는 아래쪽인데 이곳에서 3반은 주로 놀이를 하였다. 그래서 놀이터 또는 천렵터라 부르고 있다. 이곳은 3반의 서당이 있던 곳이었었는데 경관이 좋고 물고기가 많았다. 휴양림 바로 아래 개울가이다.

천렵터3

1반에서 많이 하는 천렵터이다. 내린천과 하추리계곡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주로 한다. 여럿이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소주를 가져가서 먹는다. 계곡이 좋고 응달이 있는 곳을 주로 이용한다. 초복, 중복, 말복에 주로 한다. 복놀이로 천렵을 한다. 술과 양념만 가져가면 현장에서 해결된다. 고기 잡아서 솥에 넣고 나뭇가지 주워서 끓이면 된다. 마을사람이 거의 다 가서 그렇게 먹고 놀다보면 날이 어두워지는지도 모른다. 고기는 반두를 대고 지렛대로 바위를 흔들어서 잡는다.

겨울에는 고기를 잡을 때 얼음을 깨서 고기를 물고 밑에 그물을 친다. 얼음을 깨서 잡을 때는 한 해에 몇 번 한다. 이렇게 잡는 것을 얼음메기라 한다.

청계골

청계울. 청계곡(淸溪谷). 하추리 2반에 있는 시내 골짜기이다. 이곳에 지금 용화사가 있고, 2반의 마을지당이 있다.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흘러 시원하고 경관이 아주 빼어나다.

용화사가 있는 곳이다. 이곳의 시냇물이 맑고 좋아서 청계(淸溪)울이라 했다. 주변의 지형이 울타리처럼 빙 둘러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청계골



청계골지당

청계골제당

청계골지당. 하추리 2반이다. 청계골이라는 골짜기에 지당이 위치해 있어 청계골지당이라 부른다. 강가에 우뚝 솟은 작은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 위에는 소나무가 여러 개 자란다. 서낭목으로 사용했던 큰 소나무는 2007년 수해 때 물길에 쓸려 죽었다. 지금은 앙상하게 죽은 나무가 몇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 고목이 되었다. 원래 이곳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10여 그루 있었는데, 수해 때 모두 물에 쓸려 죽었다. 이곳 소나무는 원래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수해로 인해 2007년에 해제 되었다. 수령이 4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소나무 거목이 있는 아래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약 10m, 6m의 너비와 높이의 크기이다. 그 바위 아래에는 자연적으로 너럭바위가 넓게 시냇가로 펼쳐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와 돌들을 이용해서 널따랗게 단을 마련해 두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제의를 지내고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다. 멀리서 보아도 이곳이 신성한 장소로 쓰였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마을사람들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마을제사를 지낸다. 마을제사를 지낸 흔적이 커다란 바위 아래 쪽에 보면 제사를 지내고 걸어놓은 예단으로 한지가 걸려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으나 이 역시 수해 때 떠나려갔다. 예전에 마을제사를 지낼 때는 살아 있는 돼지를 몰고 와서 이곳 제단 앞에서 잡아 제물로 썼다. 시냇가에서 돼지를 손질을 해서 솥을

걸어놓고 돼지를 삶았다. 그러나 용화사 스님들이 절 앞에서 돼지를 살생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는 돼지머리나 고기를 아예 잡은 것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친다.

용화사 스님들은 칠월칠석이 되면 간단히 제물을 마련해서 이곳 지당에 와서 칠석제를 지낸다. 이를 칠석제사라 한다.(용화사 청호(靑昊) 스님 제보)

청계교(淸溪橋)

용화사 입구에서 강을 건너가는 다리이다. 용화사 절 안에 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건설했다. 다리의 모양은 반야용선을 흉내 내서 만들었다. 길게 배 모양으로 설계하였고 그 배를 용이 운반하면서 극락으로 가고 있는 형상이다. 수해 전에는 다리가 없었다.

초라니바위

거랭이바위 위쪽에 있던 바위이다. 바위의 모양이 초란이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서 초란이가 춤을 쳤다고 한다. 초란이는 초립둥이를 일컫는 다른 말이다. 바위가 꽤 컸다.

옛날 수복 돼 가지고 일공야공단이라고 공병대가 거기와 있을 때 도저로 밀어 길을 냈다. 길을 닦다보니 그 바위가 없으면 길을 더 넓힐 수 있었다. 그래서 폭파를 해서 깎았다.



청계골 제당 전경



청계교

촛대바위

드림바우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락구미라는 곳에 있다. 38경계선 있는 곳이다. 약 4m정도의 높이이다. 강가에 있다. 물을 건너야 한다.

큰강

내린천을 일컫는다. 옛날에는 내린천의 이름이 따로 없고 큰 강이라고 불렀다. 작은 강에는 고기가 아주 많았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고기 반 물 반이라 했다. 뱀장어도 아주 많았다.

큰소야지골

『조선지리지』에 한글로 큰소야지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대소야지곡(大所也地谷)이라 하고 하추동 장수대(長水堡)에 있다고 했다.

퐁퐁소(沼)

가리산리와 휴양림 사이에 있는 소(沼)이다. 너럭바위가 쭈욱 깔렸는데, 물이 빙빙 돌다가 한데 모여서 폭포처럼 떨어지는데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퐁퐁’난다고 해서 퐁퐁소라 했다.

핑핑골

38선 표석 있는 골짜기이다.

하추곡천(下楸谷川)

가래울물. 하추동에서 내린천으로 흘러내리는 여울이다.

하추동강(下楸洞江)

곰병소. 하추동 앞을 흐르는 물이다.

하추동리(下楸洞里)

하추리의 아랫말이다.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추리도로

원래는 사람들이 걸어서 겨우 다닐 정도로 좁은 길이었다. 1970년대 신작로를 닦고, 2006년 수해 후에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포장을 해서 지금과 같이 되었다.

하추리초등학교터

하추2리에 초등학교가 있었다. 1955년에 개교하였다가 1995년에 폐교하였다. 지금은 체험학교 숙박시설로 쓰인다. 졸업 30회 40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하추정

하추정(下楸亭)은 하추리 초등학교 옆에 세워 둔 정자이다. 나무로 지었고 지붕은 기와를 얹었다. 한자로 下楸亭이라고 썼다. 정자 뒤는 산이 있고, 앞에는 수영장이 있다.

흑석동(黑石洞)

검은석. 거무세기. 하추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제보자: 박성기(남, 88), 김영모(남, 83), 지영기(남, 74), 김옥수(남, 67), 박광순(여, 73), 청호 스님, 하추리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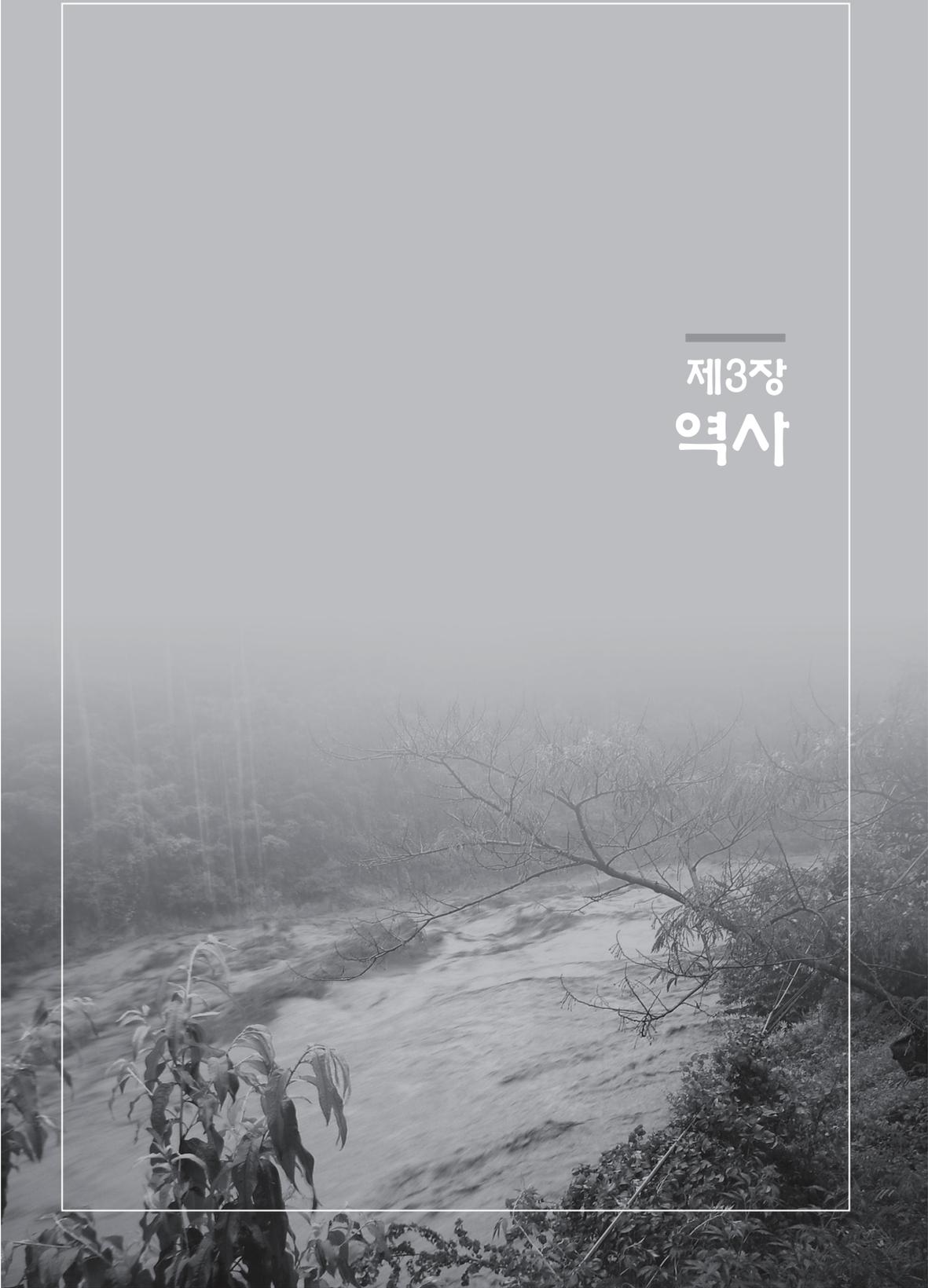


하추초교와 운동장



하추정

제3장
역사



제3장

역사

하추리이장

이재봉

1925년 9월 15일생, 재직기간 16년 1963년~1978년

김영교

1939년 2월 4일생, 재직기간 2년 1979년~1980년

최갑수

1939년 12월 8일생, 재직기간 8년 1981년~1988년

윤종욱

1956년 2월 4일생, 재직기간 4년 1989년~1992년

윤영태

1951년 1월 17일생, 재직기간 3년 1993년~1995년

박배근

1952년 3월 14일생, 재직기간 4년 1996년~1999년

윤종남

1960년 5월 23일생, 재직기간 3년 2000년~2002년

전기관

1942년 12월 5일생, 재직기간 3년 2003년~2005년

박재균

1958년 2월 10일생, 재직기간 4년 2006년~2009년

박충균

재직기간 1년 2010년

김재노

재직기간 7년 2011년~2017년 현재

하추리노인회장

1대 회장 윤길용

2대 회장 이길수

3대 회장 이재봉

4대 회장 김영모

5대 회장 전기준

6대 회장 구연직



하추리 최우수 경로당 때

38선 이야기

하추리지역은 38선 이북에 속한 지역이었다. 38선이 내린천을 따라 났으므로 물을 건너면 바로 38선 이남이었다. 이 때문에 하추리지역에서는 전쟁이 많았다. 하추리 마을 뒤에 있는 매봉과 한석산은 같은 줄기이다. 유해발굴단이 마을 뒤에서 150구의 시체를 찾았고, 마을사무실 바로 뒤 도정공장 앞에서도 3구의 시체를 발굴했다.

광복이 되고 나서는 38선이 그어져 있어도 남북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당시 소련군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술을 주면 통과를 시켜주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군과 소련군이 38선 팻말을 옮기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 현리에 38선 팻말이 있었는데 밤에 몰래 미군이 옮겨 놓으면 다시 소련군이 옮기곤 하였다.



38선

소련군 주재소가 하추리 입구에 있었다.
마을 도정공장 옆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매봉 · 한석산전투

위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44-2번지

전투명: 1051.05.07. ~ 1951.05.10.(4일간)

참가부대: 국군 9사단 30연대, 북한군 6사단

이곳은 중공군 5차 공세를 저지한 국군이 차후 공격 작전 여건 조성을 위해 인제 원통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매봉 · 한석산을 공군의 근접 지원 하에 추후방 공격을 감행하여 확보함으로써 인제 · 양구지역 공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던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호국의 현장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하여 국군전사자 유해 159구를 국립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이곳을 찾은 모든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사랑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25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제3군단 · 인제군



하추리마을회관 마당에 있는 38선 이야기 상징물

매봉 한석산 전투전적비

매봉과 한석산은 1951년 5월 초 인민군 3개 여단의 점령지로서 인제지구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당시 제 30연대장 손희선 중령은 제3대대를 주공(主功)으로 우측 매봉을, 제2 대대는 좌측 692고지를 주야로 이틀 동안 공격하여 5월 9일 점령하고, 5월 10일에는 한석산을 완전 점령하는 한편 적사살 895명, 포로 42명과 다수의 장비 노획 등 큰 전과를 올렸지만, 아군(我軍)도 사망 72명, 부상 319명의 인명피해를 보았다.

당시 이 전쟁에 참전했던 예비역 소장 손희선을 비롯한 용사들이 매봉, 한석산 전투 참전동지회(參戰同志會: 회장 손희선)를 결성하고 전과(戰果)를 기리는 동시 전사상자(戰死傷者)를 위로코자 1990년 11월 9일 인제읍 고사리(속칭 피아시)에 전적비를 세웠다. 기단(基壇) 높이는 1m이고 비석(碑石) 높이는 8m가 넘으며 경역면적(境界面積)은 580평이다. 시설물 공사는 육군 제2307부대가 맡아서 하였으며 주변 경관을 살린 조경(造景)공사로 새로운 공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문(碑文) 내용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1951년 5월 7일 제9사단 30연대가 매봉, 한석산을 공격하여 그 일대를 강력히 방어중이던 인민군 제12사단을 격멸하므로써 5월 10일 인제일대를 완전 제압하는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이 전투에서 자유 평화호국의 일념으로 싸우다 순국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제30연대 장병들의 명사보국의 충효정신을 후대에 가서 귀감으로 삼고자 이 비를 건립한다.

1990.11.9.

매봉 한석산 참전전우회장 손희선

이 외의 별도 면석(面石)에 건립개요, 건립취지문, 전투개황을 소상히 기록으로 남겼다.(『인제군사』)



매봉산 탄피이야기

6.25전쟁이 끝나고 포탄에서 신주를 빼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 매봉산에 올라가서 뇌관에 있는 신주를 빼러 올라가서 뇌관이 터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운명하고 내려오지 못했다. 조금 머리를 쓴 사람들은 탐지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포탄을 찾았다. 포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신주를 뽑아 많이 팔았다. 고물도 여기서 엄청 나갔다.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옛날에 있던 발목지뢰, 줄을 매서 이렇게 꽂아 놓던 것은 다 삭아서 손으로 주워 던져도 터지지 않는다. 그런데 수류탄은 어떤 것은 터질 것 같이 아주 생생한 게 보인다.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는 화기에 노출되면 터진다.

예전에 탄피에 있는 화약을 빼서 장난치면서 놀았다. 길게 화약을 뿌려놓고 끝에서 불을 붙이면 화약이 최악 타들어 간다. 조명탄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땅에 박아놓고 화약을 이어서 터트리면 그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재미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차례로 세워놓고 터트리곤 하였다. 그러면 정말 불꽃놀이가 된다.(박병철 제보)

2006년 수해

2006년 7월 15일 아침 인제지역에는 그야말로 장대비가 내려 온 마을을 축대밭으로 만들었다. 수백 채의 집이 물에 휩쓸려가고 29명의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다. 이때 하추리에도 똑 같은 피해가 있었다.

설악산에서부터 떠내려 온 나무토막이 마을 앞에 있던 작은 콘크리트 다리를 막고 물길은 더 높이 솟아 흘렀다. 이 때문에 물 가까이 있던 집들은 모두 떠내려가고 도로도 파괴되고 논밭도 자갈밭이 되었다. 다행히 하추리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너나없이 수해복구에 온 힘을 모았다. 그리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얼마간의 복구비를 지원받아 도로와 다리와 논밭과 가옥을 현재와 같이 복구할 수 있었다.

이때 마을 앞을 흐르는 강에는 쌍가다리라고 하여 작은 섬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고, 그 옆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천렵을 하는 장소로 쓰였

다. 물이 양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 쪽을 막으면 천렵을 할 수 있을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아주 유명한 마을의 장소였다. 그 명소도 2006년 수해 때 떠내려갔다. 강가에 있는 가래나무, 소나무 할 것 없이 모두 쓸려 내려갔다.

전기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가 들어왔다. 용화사까지는 일찍 들어왔는데, 구간별로 시차를 두고 전기가 들어왔다.

하추초등학교

인제남국민학교(하추분교장)

1. 학교설립년월일

1955.4.11. 인제국민학교 하추분교장으로 인가

2. 중요 변동사항

1958.6.6. 원대국민학교 하추분교장으로

소속변경

1963.12.28. 하추국민학교로 승격

1983.3.1. 원대국민학교 하추분교장으로 격하

1990.3.1. 인제남국민학교 하추분교장으로

소속변경

3. 졸업회수: 30회

4. 졸업생수: 4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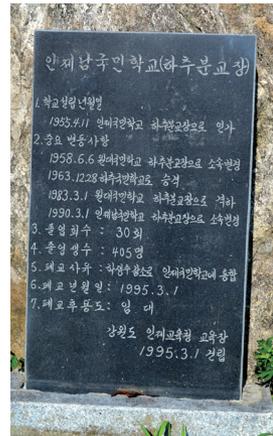
5. 폐교사유: 학생수 감소로 인제국민학교에 통합

6. 폐교년월일: 1995.3.1.

7. 폐교후용도: 임대

강원도 인제교육청 교육장

1995.3.1. 건립



하추리 초등학교는 새덕이 쪽에 있었다. 그러다가 6.25 끝나고 수복되고 조금 있다가 현재 있는 터로 옮겼다.

2016하추리 주요뉴스 10

가족all來 하추 마을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있는 산촌마을이다. 으뜸촌, 귀농 귀촌 우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행복리센터 인제군 1호점, 소각산불없는 녹색우수마을 등 각 기관에서 붙여준 별명이 많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하추마을에서 올 한 해 일어났던 수많은 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10가지 뉴스를 ‘인제고등학교 마을신문 편집부’에서 골라봤다.

1. 2016 농촌체험마을 으뜸촌 선정

인제군 하추리 산촌마을이 2016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으뜸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 중 최고등급으로,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마을에 부여하며 전국에 총 28개소가 선정되었다.

2. 귀농귀촌 우수마을

지난 4월 미래창조 귀농귀촌박람회에서 귀농귀촌우수마을로 선정된 하추리 마을이 연합뉴스 사장상을 받았다. 이날 하추마을 주민들은 인제군청, 로컬투어 사업단과 함께 하추리 마을을 알리고 귀농귀촌인 유치 상담을 펼쳤다.

3. 행복리센터 인제군 1호점

행복리센터 인제군 1호점으로 하추리가 선정됐다. 행복리센터 사업은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읍·면·리 단위의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 소각산불 없는 녹색우수마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16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우수마을’에 하추리가 선정됐다. 하추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없는 녹색마을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추리는 앞으로 소중한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5. 금연마을지정

인제군 보건소는 군민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금연마을 조성을 추진했다. 이에 인제군 1호 금연마을로 인제 하추리 마을이 도전했다. 마을주민들은 자체운영회를 구성하고 마을입구, 인도, 버스 및 택시정류장, 놀이터 등 마을 내 공동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실천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6. 도리깨문화예술공연(한성백제문화제)

제16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여해 도리깨 마당놀이, 농악, 떡메치기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도리깨 마당놀이는 어깨춤이 절로 나는 무대로 약 6천여 명의 관객들에게 농촌마을의 흥과 기쁨을 선물했다.

7. 농어촌 인성학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인성학교로 하추리 마을이 지정됐다. 농어촌인성학교란 청소년이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권역을 말한다. 하추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참여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및 농촌 체험형 수련회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마을 체험·인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8. 마을기업 전 주민 출자

하추리마을기업인 '하추리 산촌마을영농조합법인'은 전 주민이 출자해 마을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고, 자연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하추리는 마을기업 설립을 통해 마을발전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더불어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 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잡고 판매금액 2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9. 2016도리깨 축제

하추리에서는 매년 11월 세 번째 주에 도리깨축제를 개최한다. 도리깨축제는

예전부터 내려온 곡식을 터는 도구였던 도리깨를 명칭으로 한 축제로 마을의 대표농산물인 잡곡을 널리 알리고 추수감사제, 도리깨 마당놀이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운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0. 2016 강원 우수 정보화마을

‘가족all來 하추마을’이 2016 강원도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됐다. 하추리는 2013년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정보화센터를 구축하고 농한기를 이용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인제고등학교 마을신문 편집부, 하추마을신문)

하추리 마을신문의 시작을 위한 제언

먼저 인제고등학교에서 하추리 마을미디어 매체 1호를 기획하였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역 마을을 소재로 신문이 발행된다는데 기쁜 마음뿐입니다. 마을이장으로 마을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즐겁습니다.

가족all來 하추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구농어촌공사, 강원도, 인제군이 추구하는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마을입니다. 도농교류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선도 마을이라고 자부합니다. 마을현황은 상주가구 66가구, 인구는 남116명 여99명으로 모두 215명이 마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 30가구는 30년 1세대 이상 살고 있는 가구는 토박이라 부르며 30년 미만 살고 있는 가구는 귀촌 가구라 부릅니다. 으뜸으로 자랑하는 것이 토박이 가구와 귀촌가구가 비슷하게 되면서 마을이 갈등이 생기며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속설인데 우리 하추리 마을은 귀촌 토박이 구분이 없이 갈등과 분란이 없고 화합과 단결, 배려로 더불어 살 줄 아는 마을이라고 자랑합니다. 또한 마을 로고 가족all來 뜻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이 지켜주어야 행복한 삶이 된다고 생각하여, 마을 게첨대에는 가족, 건강, 행복한 마을 하추리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 이어 2016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심사에서 연속 2회 으뜸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연합뉴스에서 선정한 귀농귀촌 활성화 마을 선정에서 우리 하추리 마을이 전국 9개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쁜 일이며 마을 분들의 자긍심과 마을의 격

을 한 단계 이상 격상된 일이라 자부합니다.

또한 16년 농어촌인성학교 선정 심사에서 2017년부터 농어촌 인성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하추리 가족all來 농어촌인성학교에서 중점을 두는 인성교육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요즘 가족이 무너지며 개개인의 인성도 함께 무너지는 뉴스나 보도를 보면서 가슴 아파한 적이 많습니다. 먼 훗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이 올바르게 자리 잡는데 농촌의 작은 마을 하추리가 그 역할을 했다는 말이 회자될 수 있을 것이라 우리 마을 주민 분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우리가 사랑하고 가꾸는 인제고등학교에서 만드는 신문에 우리 가족all來 하추리가 1호 취재 마을이 되어 나왔다는 것에 마을 이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어느 곳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인제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하추마을신문, 하추리 마을이장 김재노)

역사와 이야기가 숨 쉬는 산촌마을 하추리(下楸里)

인제군 인제를 하추리는 울창한 원시림으로 이뤄진 한석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하추리는 본래 인제의 동면지역으로서 추동(楸洞)의 아래쪽이 하추동(下楸洞)이라 하였는데, 1916년 해정구역 개편에 따라 싸리목이, 농금이, 닥밭구이, 박수터, 더디미, 셋말, 검은석을 병합하여 하추리(下楸里)라 하였다. 추동의 다른 이름은 가래나무가 많아 가래울인데 지금도 가래나무가 많이 남아 있으며 해발 250m~450m로 읍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20~28km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민박과 농사(잡곡, 특용작물재배)를 하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현재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기업을 세워 이익을 나누고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부상하고 있는 하추리, 그 하추리의 역사를 알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과거 세계와 만날 기회를 만들고 농촌의 미래가 나아가야할 길을 알려주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이 마을에 태어나 평생을 살고 있는 박재균(60) 하추리 영농조합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과거 하추리의 생활 모습을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지금은 다양한 사람이 마을로 들어와 살기 때문에 박 씨들이 별로 없지만 과거의 하추리는 박 씨 집성촌이었어요. 저의 경우 우리 할아버지

가 하추리에서 3대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산 것이지요. 제가 기억하는 하추리는 6.25시절 이북지역이었습니다. 38선 바로 위 북쪽 마을이었지요.” 이어 그는 “전쟁 이후 수복이 된 다음 196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르러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화전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이주 시켰습니다. 그때는 하추리가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반이 줄어들어 3개 반으로 편성되었다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다시 2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재의 3개 반이 형성되었습니다.”며 마을이 형성된 계기를 설명했다.

하추리의 현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내린천에서 래프팅 체험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하추리 마을에도 펜션과 황토방 등 민박을 운영하는 가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6년 사상 최대 규모의 수해가 마을을 집어 삼키면서 도로와 다리가 무너지고 일부 펜션이 떠내려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마을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마을의 환경정비 및 농촌체험관광마을로의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제가 이장을 맡았던 2006년에는 큰 물난리로 마을도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마을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마을에 자리한 하추체험학교나 도정공장, 강의실 등은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만들어졌지요. 그 결과 우리가 전국에서 으뜸촌이 되기에 이르렀지요. 현재는 귀농귀촌인구가 마을인구의 약 40%입니다. 물론 귀농인구보다는 귀촌인구가 더 많지요.”

앞으로의 마을발전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아무래도 마을이 발전하려면 먼저 마을주민이 행복해야하지 않을까요? 귀농하는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마을주민 모두가요. 행복하려면 물론 금전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지만 마음의 여유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을은 다른 농촌 마을에 비해서 주민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단합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1970년 때도 우리 마을이 ‘저축왕’ 상을 탔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저축을 장려할 때지요. 마을에서 저축을 잘 했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믿고 화합했던 것이지요. 또한 2006년부터 주민들이 달마다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서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등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도 한

달에 2,3번은 운영회를 열고 축제를 의논하는 등 마을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생깁니다. 이렇다보니 마을주민이 서로 아끼고 도와줍니다. 다만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마을이 지속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추마을로 들어오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오래 터전을 잡고 살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시설 등이 확충돼서 낮에는 농사짓고, 저녁에는 모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 건강을 챙겨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하추마을신문, 인제고등학교 마을신문기자 김하정)

생태마을 하추리 박쥐와의 공존

하추리 산 내부에는 작은 동굴이 위치해 있다. 동굴은 연중 거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여름에는 16° C, 겨울에는 14° C 내외의 기온과 70~90%의 일정한 습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동굴의 특성 덕분에 하추리의 주민들은 동굴에 김치독을 보관하여 자연 김치냉장고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추리의 동굴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 동굴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바로 박쥐이다. 이에 지난 3월, 하추리에 살고 있는 박쥐들을 만나러 인제군청 환경보존과와 하추리 주민들이 나섰다. 좁은 동굴 입구를 지나 동굴 안에서 만나 본 박쥐 식구들은 겨울잠에 들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날 함께 박쥐무리를 찾은 박준수 사무장(39)은 인제고등학교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박쥐무리를 지나 구석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동면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되는 박쥐 두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으면 보금자리를 떠난다.”며 주민을 포함한 하추리의 여러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며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박쥐는 포유류 중 유일하게 날 수 있는 동물이다. 박쥐는 주로 동굴에서 생활하며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겨울잠을 잔다. 낮에는 숲 속에서 쉬고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야행성이고 주된 먹이는 곤충이다. (중략) 해외와 국내에 몇 없는 박쥐동굴의 예시들은 하추리 박쥐동굴이 관광자원이자 생태자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추리의 박쥐동굴은 인제군의 소중한 생태 자원이다. (하략)(하추마을신문, 인제고등학교 마을신문기자 김수민)

KBS라디오 방송 ‘공감5시’ 하추리 마을소개

2017.8.31. 공감5시

제목: 하추리사람들

1. 오늘은 하추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추리 이름이 상당히 예쁜데요. 어디 있는 마을인가요?

하추리, 이름이 참 예뻐요. 하추리 이름만큼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참 예뻐요. 오늘은 예쁜 하추리 마을의 자연경관과 자연경관 보다 더 예쁜 하추리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추리는 주소가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제군청이 있는 인제읍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인제읍에서 기린면 방면 내린천 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다 보면 하추리라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바로 그곳부터 하추리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정표가 나옵니다. 정확히 이정표는 설악산 안내와 함께 한계령, 귀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다리를 건너기 전 좌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곳에는 장승을 비롯해서 온갖 크고 작은 이정표를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마을을 알리는 글귀가 장승과 돌 표지판 등 여러 곳에 쓰여 있어서 금방 이곳으로 들어가면 하추리로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곳으로 따라 들어가면 하추리 중심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도리깨마을’이라 합니다. 도리깨마을이란 이름이 또 다시 정겹게 다가옵니다.

2. 설악산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하추리가 설악산과 가깝나요?

참고로 설악산은 내설악, 외설악(속초), 남설악(양양), 북설악(고성)이라고 부분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설악이 설악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곳이 인제군에 해당합니다. 하추리를 지나 산마을로 올라가면 귀둔리가 나오는데, 이곳 사람들은 ‘궂똥’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곳을 따라 계속 오르면 설악산 한계령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추리가 설악산과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3. 설악산과 가까우면 경치도 빼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눈 가는 곳마다 절경이지요. 특히 가리산리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는 하천은 굽이굽이 일품입니다. 이 하천을 가리산천이라 하는데요. 경관도 아름답지만 물고기도 많기로 유명합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워낙 경관이 아름다우니, 인제에서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만 휴양림을 찾은 사람들이 8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 가족들과 함께 하면 좋겠어요?

하추리마을은 휴양림을 찾는 것보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휴양림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연을 만끽하고, 피곤한 심신을 달래고 올 수 있는 시설이지요. 옛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그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로 갖추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주차하기도 좋고요. 샤워시설부터 최고사양의 화장실까지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은 마을관리로 부녀회에서 원하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야외에서 바비큐를 할 수도 있고요. 마을관리식당에서 뷔페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불을 직접 아궁이에 때서 무쇠솥에 밥을 해서 먹을 수도 있게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정지라 불렀는데, 부엌이지요. 여러 개의 작은 무쇠솥을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서 옛날식으로 밥 짓는 체험을 하고, 그 밥으로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아궁이가 있어서 단체로 가서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갔다가 왔는데, 서울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체험으로 밥을 짓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 신기해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가가호호마다 민박과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서 원하는 숙박시설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집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추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마을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식이 있다면 미리 얘기를 하면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비만 들고 가면 맘껏 누릴 수 있습니다. 천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앞강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매운탕도 끓일 수 있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자연도 함께하며 가족 또는 친지 및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정말 재미있게 말입니다.

5. 아주 편리하게 즐기다 올 수 있는 마을관광휴양지이네요?

예, 가보시면 다들 만족합니다. 무엇보다 하추리사람들이 멋집니다. 제가 지금 하추리마을지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추리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추리사람들의 역사, 민속, 생업 등이 담긴 책입니다. 아무래도 잘 엮어서 하추리사람들이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멋진 책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추리사람들 모두 진정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추리사람들이 이번에 9월 7,8일에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이 열리는 메인 경기장인 용평운동장에서 행하는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도리깨소리’로 출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달여간 일주일에 두어 번 가서 마을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들이 이미 짜놓고 행했던 시나리오를 그대로 엮었을 뿐입니다. 모두 마을사람들이 알아서 하니깐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면요. 제 어린 시절에 느꼈던 마을공동체의 미풍양속을 이곳 하추리에서 다시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을 이장, 사무장, 체험장, 상쇠와 농악대, 구 이장, 부녀회, 소리꾼, 도리깨꾼, 절구질꾼, 떡메꾼 등,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도리깨소리를 공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순간도 하추리사람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참 멋진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서 9시 22분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하추리의 고요한 밤을 아름답게 장식한 하추리사람들의 잔치였다고 할까요. 이분들은 지금이 농번기의 절정입니다. 고추 따고, 송이 따고,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림을 참고 마을회관 마당에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힘들지만, 동네를 위해서 그리고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추리사람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뺐습니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의 단체 및 동호회, 기업 등 체험과 연수는 하추리마을에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시설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추리사람들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인 배려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공적은 얘기하지 않고, 모두 주변의 도움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예뻐니다.

6. 하추리가 산촌마을이라 했잖아요. 그럼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어떤 나요?
하추리의 생산물은 모두 잡곡입니다. 물론 드물게 쌀도 있지만 아무래도 산촌이다보니 잡곡이 유명하지요. 하추리의 잡곡은 일 년 내내 살 수 있습니다. 콩, 조, 기장, 팥, 옥수수 등 모든 잡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설, 곧 방아 찧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필요할 때마다 방아를 찧어 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일 년 내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이학주)

어버이날 행사

하추리에서는 마을단위로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행사를 연다. 이날은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같이 나누어 먹는다.

제4장
세시풍속



제4장

세시풍속

그믐제사

그믐날 만둣국에 떡을 섞어 조상께 올린다. 이날은 떡만둣국만 올리고 잔 한 잔 부어놓고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면서 한 해가 갔음을 알린다. 조상들이 많으니까 술잔을 몇 잔 부어 올린다. 옛날부터 만두를 집에서 빚어서 올렸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른다. 다만 이날 만둣국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져 내려왔다. 만두가 귀한 음식이었다. 만두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었다. 만두소를 잘 만들어야 만두가 맛있다.

설날

차례를 지내고, 윷놀이도 한다. 설 차례에는 메를 올린다. 어떤 집은 초하루에 메와 떡국을 같이 하기도 한다. 옛날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믐제사와 설 차례를 꼭 따로 하였다. 차례 지내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 모여 앉으라고 해서 세배를 올린다.

설에는 널을 뛰었다. 널따란 널빤지를 놓고 양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다.

합동세배

하추리에서는 설날이 되면 노인회관에서 합동세배를 한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회관에 모인다. 아침식사 후 10시경이 되면 회관에 모인다. 이날은 자식들이 선물도 사가지고 들어오고 같이 음식도 나눠먹고 세배

도 한다.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조금씩 가져다가 술안주로 한다.

회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아마 회관이 생긴 지가 약 15년 더 됐을 것이다. 그 전에는 집집마다 어르신들 계시는 집만 찾아다니며 세배를 했다. 지금은 회관에서만 하고 집집이 찾아다니지는 않는다. 오히려 편해졌다. 안 오는 사람은 또 안 오고, 그래도 세배하러 많이 오는 편이다.

세배를 하면서 덕담도 한다. 합동세배를 하면서 따로 사회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새보기

정월 초하루에 가장 먼저 본 새로 짐을 쳤다. 꿩을 먼저 보면 가장 좋다고 했다. 알록달록한 꿩 한 쌍을 먼저 보면 한 해 운수가 좋다고 했다.

“옛날에는 산에 나물 뜯으러 가보면 꿩이 등지를 틀고 알을 소복이 낳아 놔요. 나도 나물 뜯으러 다니다가 두어 번 주워 받는데, 꿩알을. 한 열두 알. 꿩이 알을 많이 낳아요. 그걸 그렇게 주우면 그해 아주 재수가 좋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꿩이 좋다고 그러던 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꿩이 안 보인다. 까치도 잘 안 보이고, 제비도 옛날에는 많이 날아왔는데 안 보인다. 집집마다 처마에 집을 짓고는 했다. 인제에 나가면 제비가 많은데 여기 하추리에는 안 보인다.

여름날(1.14)

오곡밥을 해 먹는 날이다. 아침 5시경에 일어나서 오곡밥을 짓는다. 일찍 밥을 해서 먹어야 좋다고 한다.

부럼도 14일 깨문다. 식전에 말을 안 하고 깨문다. 그전에는 콩을 냄비 같은 곳에서 킁어서 뒹다가 깨물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강냉이 튀신 것 같은 것 사다 놓았다가 깨문다. 땅콩, 호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사온다. 자고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깨물어야 부스럼이 안 난다. 솔뚜껑을 잡거나 “내손이 약손이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콩이나 땅콩 등을 깨물기만 한다. 부럼을 깨물고 나서는 말을 한다.

이날은 더위를 판다. 이날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더위를 안 먹는다고 한다. 옛날

에는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대답을 하잖아 그러면 “내 더위 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어부숨은 없었다.

정월대보름(1.15)

정월대보름에는 마을회관 마당에서 놀이를 한다. 이날은 마을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재미있게 논다. 아침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장승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마을입구에서 지낸 다음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또 닥밭구미 쪽에 있는 장승에서도 거리제를 지낸다. 이날은 총 3군데서 거리제를 지낸다. 이 거리제도 마을회관이 생기고부터이다. 거리제를 지낼 때 제관은 두루마기를 입는다. 거리제를 지낸 후에 마을의 놀이행사를 시작한다.

낮에는 상풍 놓고 옷놀이를 한다. 저녁에는 달집도 태우며 소원을 기원한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 재미있게 놀라고 다 해준다.

달맞이는 보름날 하는데 달을 보고 절을 한다. 집에서 시간이 되면 마당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그저 집안이 다 건강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축원을 하면서 세 번 절을 한다. 달이 떠오를 때 달을 보면서 한다. 절은 엎드려서 반절을 한다.

옛날에는 머슴들이 불꽃놀이를 한다면서 강통에다가 불을 넣어서 돌렸다. 망우리라 했다. 논두렁에 다니면서 하면 불이 반짝반짝 하며 멀리서 보면 멋있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

보름날은 복조리를 사다가 건다. 이맘때가 되면 복조리를 파는 장사가 다닌다. 그러면 사서 문턱에다 복 들어오라고 걸어둔다. 조리 위에다 아무도 안 올려놓고 조리만 건다. 지금도 걸어놓은 것이 있다.

옛날에는 남자아이들이 한 패씩 모여가지고 뭘 할 것이 마땅찮으니 연날리기를 했다. 연을 직접 만들어서 바람에 날렸다.

보름날에는 묵나물을 많이 해 먹는다.(윤옥순 제보자)

하추리 2반은 주로 집에서 달맞이를 하였다. 정화수라 해서 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상 위에 올린다. 정월대보름 날 달뜰 때 달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그해 잘 나가게 해달라고 빈다. 아무 탈 없고, 풍년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축원을 했다.

이날은 쥐불놀이도 했다. 강가에 가서 저름을 나이 수쿰 묶어서 불을 붙여 태웠다.

지금은 마을에서 달집을 만들어 태우면서 소원을 빈다.(박성기 제보자)

귀신날(1.16)

신발을 문밖에다가 벗어놓으면 귀신이 신어보고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 그래서 신발을 방안에다가 다 들여놓는다. 방바닥에 뭘 깔고 신발을 들여놓고 자고 그랬다. 체도 방문 앞에 걸어둔다. 그러면 귀신이 와서 그 췌구멍을 세다가 못다 세면 간다. 목화씨나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은 못 봤다.

머슴날

2월 1일은 뭘 떡을 해 먹고 그랬다. 옛날에는 이날 남자들은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하고 그랬다. 여자들은 삼베라는 거 있는데, 하루 밥 아홉 그릇을 먹고 삼베 광우리가 있는데 그 아홉 광우리를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걸 못 삼지 어떻게 삼아요.

입춘

여기 용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입춘첩을 하나씩 써서 집집이 나누어 준다. 그렇게 입춘첩을 써서 나눠주면 대문에다 붙인다.

청명 한식

산소를 모신 지가 얼마 안 되면 잔디 사다가 떼를 입힌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해준다.

삼짇날

동네에서 산지당이라고 모신 데가 있다. 산에 나무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여기는 한다. 용화사 강가에 큰 산지당이 있는데 거기서 3.3과 9.9일에 꼭 한다. 동네가 무사히 잘 지내게 해달라고 정성을 드린다. 시루떡, 돼지머리를 올리고, 메는 안 올린다. 집집마다 소지를 올린다. 예전에는 도가를 정해서 했는데, 요즘은 반장이 한다. 도가를 정할 때는 집집마다 생기를 봐서 좋은 집을 택했다. 도가를 할 때는 여자들도 같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초파일

초파일은 뭘 한 기억이 안 난다. 용화사에서는 행사를 한다. 등을 단 사람은 절에 가서 행사를 같이 한다.

어버이날

젊은 사람들이 경로잔치를 해준다. 음식을 많이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이시라고 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 꽃(카네이션)도 사다가 달아준다. 부인회에서 한다. 참 좋은 세월이다.

단오일

단옷날은 집집이 취떡을 해서 먹었다. 동네에 다니면서 같이 떡을 먹기도 했다. 나물은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는다. 고사리 같은 거 있으면 불러서 무쳐 먹는다.

그리고 큰 나무에다가 그네를 매어 뛰었다. 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네를 뛰며 내기를 했다. 지금은 그네를 매지 않는다. 떡은 해서 먹는다. 그네도 혼자 타는 외그네가 있고 둘이 타는 어부락그네(쌍그네)도 있다.

아침에는 이슬 맞은 약쭈을 베어다가 바짝 마르라고 매단다. 그렇게 말려서 필요할 때 약으로 쓴다. 약쭈은 바람머리라고 해서 머리가 아플 때 푹 찌서 아픈 데에 싸매고 있으면 아픈 게 낫는다. 머리에 찬 기운이 돌면서 아픈 것을 바람머리라 한다. 뜨끈뜨끈한 것을 싸매니 지지는 것과 한 가지다. 찜질을 하는 것이다. 한참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머리가 시원해진다.

셋골에 있다고 해서 셋골 밤나무라 한다. 크기가 어른이 7굽 명이 손을 뻗어 안아야 안을 수 있을 정도이다. 밤나무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밤이 굵고 두꺼워서 맛이 좋은 편이다.



단오 때 그네를 매었다. 그네를 오랫동안 매어 두었는데 아이들이 그네를 타려고 논둑길로 내달렸다. 그 때문에 이곳에 논이 15배미가 있었는데, 논둑이 다 망가졌다. 밤나무 아래 평상을 두고 단오 때면 수리취떡을 해서 먹으면서 놀았다.

유두일

유두는 뭐 한 게 없다. 창포에 머리를 감거나 그러지 않았다.

복놀이

복날이 되면 복놀이를 하였다. 여기 회관에서 복놀이하자 하면 삼계탕 같은 것 한 명한테 한 마리씩 다 끓여서 잡숫는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하지 않았다. 따로 모여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때가 많았다. 요즘은 초복 중복 말복 다 한다. 삼계탕 같은 게 잘 나오니 하기 쉽다.

칠석

용화사에서 제사를 지낸다. 11시 경에 산지당 있는 곳에 제물을 차려서 칠석제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고는 음식을 노인회관에 가져온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누어 먹는다.

백중

마을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용화사에서는 행사를 한다. 조상을 모시는 제사이다.

호미씻이

김 다 매고 호미를 씻는다고 했다. '호미씨세'라 했다. 먹을 것 다 모아다가 동네서 모여서 강에나 이런 데 좋은 데 나가서 음식을 나눠 먹고 하였다. 음식은 돼지머리 같은 것 사다가 삶아 먹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했다. 지금은 김을 그렇게 안 매지만 옛날에는 김을 다 매야 했다. 김을 맬 때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하루는 이집 것 매고 하루는 저 집 것 매고 한 패씩 모여서 매고 그랬다. 지금은 약이 있어 약을 치면 되지만, 옛날에는 호미로 다 긁어 매야 풀이 없어지니 힘들었다. 그렇게 하다가 누가 호미씨세 하자 그러면 모여서 했다. 행사는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음식만 나눠 먹고 하루 놀았다.

벌초

벌초는 음력으로 7월 그믐께 많이 한다. 산에 가족들 형제들이 모두 모여 올라가서 하는데, 가끔 벌에 쏘이기도 한다.

추석

추석에는 송편 빚어 먹는다. 차례를 지내려고 음식 준비를 한다. 송편은 밤, 콩, 깨(꿀떡), 잣 등을 넣어서 빚는다. 집에서 쪄 먹으면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 송편을 찢 때는 솔잎을 쓱쓱 뽑아서 밑에 깔다. 그렇게 찢다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그 위에 다시 솔잎을 뿌리고 송편을 또 엮어 찢다. 그게 또 쪄졌다고 생각되면 또 솔잎을 뿌리고 송편을 올려 찢곤 한다. 그렇게 세 겹이나 네 겹 해서 푹 찢면 솔향기가 떡에 배어서 맛있다. 추석에는 주로 송편만 한다.

차례를 지낼 때도 송편을 올린다. 메, 송편, 부치기, 과일 등을 모두 올리는데, 차례를 그렇게 지내려면 아주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차례가 끝나면 성묘를 간다. 추석은 집에서 차례도 지내고 산소에 가서도 지내고 한다. 옛날 풍습대로 하려니 그렇다.

중구날

9월 9일 마을제사를 지낸다.

도리깨축제

양력으로 11월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 아침에 마을입구 장승에서 거리를 지내고 축제가 시작된다.

동지

동짓날에는 집집이 동지팥죽을 쑤어 먹는다. 옛날 시어머니가 계실 때부터 동짓날은 팥죽을 쑤어 울타리로 돌아가면서 뿌리고 기둥에도 뿌린다. 아침 일찍 한다. 아직도 하고 있다. 그렇게 집에서 쑤어 먹고 낮에는 절에서 쑤어 온 것을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다.

이날은 용화사에서 낮에 동지팔죽을 쑤어 노인회관에 가져다준다. 양이 많아서 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여 점심을 같이 한다. 절에서는 쌀도 가끔 노인회관으로 가져다준다. 동네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노동지는 쑤어 먹고, 병동지는 안 쑤어 먹는다. 병동지는 뜻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다르다고 한다. 그게 병자가 병(病)과 관련이 있는지, 육갑의 병(丙)자가 들어가는 날인지 그날은 안 쑤다고 한다.

새잡이

옛날에는 여기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 눈이 한 3,4일 오면 이 새들이 뭇 주워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집으로 대구 들어오더라고요. 대문 밖으로. 그렇게 떼를 지어 들어오면 애들이 또 호기심에 새를 잡아야 한다고. 그 새 창애라는 것도 있어요. 그 새 창애를 주욱 이렇게 놓으면 거기에 걸려요. 새가. 몇 마리씩 이렇게 모아 두었다가.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계시는데. 노랑게 구워서 손자들이 드리면 그거 맛있다고 잡숫고 그러시던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새를 안 잡아요.

옛날 아이들 적에는 우리도 그게 먹고 싶지. 할머니만 매일 구워 드리니까. 그러면 아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네는 안 된다. 너네는 먹으면 그릇 깨서 안 된다.” 하시면서 우리는 안 주시고 할머니가 그렇게 잡수시더라고요. 혼자서. 손자들이 새를 잡아서 구워 드리면. 허허허. 그릇 깬다고요. 우리에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잡수시려고 그랬나 봐요. 허허허.

또 비둘기를 먹으면. 비둘기는 둘만 낳는대요. 한 쌍만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아이 둘만 낳는다고요. 비둘기 고기가 맛있대요. 구수한 게 아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허허.

사냥

옛날에는 울무라고 해서 이렇게 걸리게 해서 했지요. 짐승이 걸릴 때는 걸리는데, 노루 같은 거요.

제보자: 윤옥순

제5장 의식주



제5장

의식주

01 주생활

박성기 씨의 옛 가옥

코클이 있었다. 코클은 벽에 작은 관솔을 올려 불을 댈 수 있을 정도로 만든 일종의 벽난로 겸 조명용으로 쓰던 집의 구조물이다. 코클에다가 관솔을 붙여 놓으면 방 전체가 흰하게 밝아서 밤에도 그 앞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박성기 씨의 가옥에서는 어머니가 코클 앞에서 밤새 삼을 삼았다. 그 당시는 집집이 길쌈을 했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코클에 불을 밝혀서 삼을 삼았다.

가옥은 능애집이었다. 전나무를 갈라서 지붕을 이었다. 원래는 초가집이었는데 나중에 나무능애집으로 바꾸었다. 이 집은 6.25전쟁 때 군인들이 지붕을 뜯어서 불을 댔다. 그렇게 불을 때고 남은 기둥과 대들보 등이 3년 동안 넘어지지 않고 멀쩡했다. 전나무를 갈라서 지붕을 이으면 수명이 약 20년은 지속된다.

나중에 집을 헐 때 보니 대들보가 무척 컸다. 그리고 못을 하나도 박지 않고 나무끼리 홈을 파고 열기척키 서로 엮어서 집을 지었다. 대들보며 기둥은 소나무로 썼는데, 소나무가 오래되어 마르면서 모두 관솔로 바뀌어서 하나도 썩지 않고 단단하였다.

집의 구조는 12자 방으로 방이 세 칸이었다. 방은 안방, 옷방, 사랑방, 대청으로 구성되었다. 대청으로 올라가는 마루도 약 석 자 정도의 크기였다. 가운데 대청이 있고 빙 둘러 2자 모양으로 된 집이었다. 부엌은 두 개가 있는데, 부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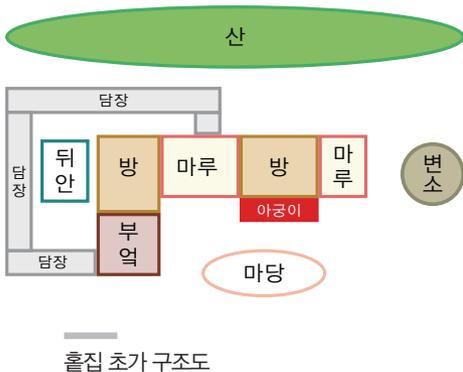
나는 안방과 웃방으로 불을 때면 온돌이 달궈지도록 되었으며, 또 하나의 부엌은 사랑방 앞에 있었다. 사랑방 앞에 있는 부엌은 밖에서 불을 때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부엌에는 커다란 뒤주가 있어서 곡식을 보관했다. 마구간(외양간)은 별도로 있었는데 마구에는 방이 달려 있어서 머슴이나 일꾼이 기거하였다. 곳간도 댐(뒤안)에 따로 마련하였다. 장독은 창고(곳간)와 울타리 사이에 있었다. 울타리는 일부는 돌을 쌓았고, 나머지는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고, 중간에 긴 장대를 양쪽으로 대고 줄로 엮어서 만들었다. 꼼꼼하게 엮어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박성기 제보)

초가집

하추리에 있는 초가집이다. 길 위로 오르면 꽤나 너른 터가 나오는데, 그곳에 오래된 집 하나가 있다. 지금은 슬레이트 위에 이엉을 얹어 얼핏 보면 초가집처럼 보인다. 마당은 넓적하고 집 뒤에는 돌담이 두껍게 쌓여 있다. 돌담 뒤로는 밤나무 등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고, 바로 산으로 통하는 길이 나 있다. 집 뒷면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앞에는 벌통이 놓여있다. 돌담장과 집 사이에는 뒀안이 놓여 있고, 화장실은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멀리 떨어져 있다.

집의 구조는 ㄴ자 모양인데, 부엌 - 방 - 마루(대청) - 방 - 마루(소청)의 순으로 되어 있다. 목조로 된 구조물에 진흙으로 벽을 발랐다.

최근까지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있고, 옥수수과 수수가 몇 개 벽면 기둥에 걸려있었다.



박광순 씨댁의 가옥

집을 지은 지가 백 년 이상 된 집이다. 옛날에는 초가였는데 지붕을 개량해서 함석으로 이었다. 부엌에 나무를 때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연탄으로 개조를 했다. 햇볕이 잘 든다. 겨울에는 앞산으로 해가 올라와서 늦게 든다. 더디미에서 큰 딸을 낳고 이 터에서 자식을 다섯을 모두 낳아 길렀다. 3남3녀를 낳아 길렀다. 우물은 검은석의 개울을 동이로 여다 먹었다. 지금은 상수도가 나온다. 옛날처럼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다. 물맛이 참 좋았다. 방이 4개 부엌이 하나 외양간이 하나 있었다. 행랑채도 하나 있었다. 지금은 외양간은 헐고 부엌은 입식으로 했고 방은 두 칸을 하나로 만들고 대청을 만들었다. 뒤에는 뒤안이 있어 장독대를 놓고 하였다.

성주와 조양을 모셨다. 그래서 일 년에 안택고사를 꼭 한 번씩 지냈다. 안택고사는 일 년에 가을과 봄으로 두 번씩 지내는 집도 있었다. 3월3일에 지내고 가을에는 가을걷이 한 다음에 날을 받아 지냈다. 텃고사라 했다. 터줏가리가 따로 있지는 않았다. 한지에 쌀을 넣어 성주를 모셨다. 떡시루를 해서 집안 식구들 마다 소지를 올리면서 일 년 내내 재수 좋게 해달라고 하였다. 소지가 잘 오르면 재수 좋겠다고 했다. 무당을 부르지는 않고 집안 식구끼리 했다. 아직도 하는 집은 한다.

떡을 감을 때는 큰강에 가서 했다. 이 길로 바로 내려가면 아주 가깝다. 옛날처럼 요즘은 강에 내려가서 하는 게 아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큰 강에 가서 목욕을 했다. 낮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목욕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옛날에는 여기 앞에 큰길이 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다.



박광순씨 댁의 옛집 구조도



박광순씨 댁

여기 앞에 디딜방아가 있었다. 방아는 집집마다 있었다. 어느 날 누가 확을 파
가서 지금은 없다. 이제는 방아가 필요 없으니 다 없었다.

02 식생활

버섯탕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
추리에 위치한 하추자연체
험학교에서는 농가에서 직
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버섯탕
수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
다. 하추자연체험학교에서
의 버섯탕수 만들기 체험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손쉽
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또
한 새콤달콤한 소스로 버섯



복날 삼계탕을 함께 먹는 장면

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하추리에서는 느타리버섯을 재
배하고 있다. 이러한 느타리버섯에는 비타민D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뼈 조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데, 특히 성장기 어린이
의 뼈,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항암과 당뇨에 좋은 셀레늄과
혈액순환과 염증에 좋은 아이아신 성분이 풍부하다.

느타리버섯의 대표적인 효능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느타
리버섯의 에르코스테롤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D로 변해 혈중 악성 콜레
스테롤 수치를 떨어트리는 작용을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여 비만 예방과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
다. 또한 느타리버섯의 비타민D2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소
화흡수를 도우며 피부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버섯탕수의 중요한 것은 소스

이다. 하추자연체험학교의 버섯탕수 소스 레시피에는 토마토가 들어간다. 토마토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칼륨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 (중략) 이렇게 하추자연체험학교의 버섯탕수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준다. 우리는 버섯탕수의 주재료인 버섯과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버섯탕수의 레시피와 버섯탕수 소스의 레시피이다.

1. 버섯탕수의 레시피

- ① 느타리버섯의 밑 부분을 살짝 자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가른다.
- ② 느타리버섯을 흐르는 물에 씻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살짝 한다.
- ③ 버섯을 튀김가루에 묻힌다.
- ④ 튀김가루에 묻힌 버섯에 튀김옷을 입혀준다.
- ⑤ 기름이 담긴 냄비에 소금을 뿌려 온도를 체크한다.
- ⑥ 170° C 정도가 되면 튀김옷을 입힌 버섯을 튀겨준다.
- ⑦ 버섯을 살짝 튀긴 후 한 번 더 튀겨 바삭하게 만든다.

2. 버섯탕수 소스의 레시피

- ① 물, 케찹, 설탕, 식초, 소금을 섞어 약불에서 끓인다.
- ② 버섯탕수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파프리카와 양파를 넣어준다.
- ③ 양파가 살짝 투명하게 변하면 전분 물을 넣고 저어준다.(단 전분 물은 조금씩 넣어가며 소스의 농도를 맞춘다.)
- ④ 전분 물을 넣은 탕수 소수가 끓으면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갈라 넣어 준다.(하추마을신문, 인제고등학교 마을신문기자 최세빈)

개구리

겨울이 되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 봄에도 많이 잡았다. 기름기가 많아서 술안주로도 좋다. 수놈보다 암놈이 알 때문에 더 맛있다. 끓여도 먹고 구워도 먹는다. 요즘은 서식처가 없어서 많지 않다.

고들빼기

먹을 만치 크면 캔다. 끓는 물에 삶아 초고추장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친다. 또

삶지 않고 생저리로 해서 김치로 만들어 먹는다. 고들빼기가 맛이 쓴데 사람 몸에 좋다고 한다. 단 것 보다는 쓴 게 좋다고 한다.

김치류

고들빼기, 열무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무채김치, 물김치, 나박김치가 있다. 나박김치는 무를 얇게 썰어서 담근다. 나박김치와 물김치는 같은 종류이다.

무

무가 기침 나는 감기에 좋다고 한다. 무 속을 손칼로 파서 꿀을 넣어 불에 파묻어 굽는다. 무를 구우면 말랑말랑해진다. 그러면 무 안에 있는 꿀을 떠먹는다. 그러면 감기가 금방 낫는다.



무 손질

화로에 무를 파문을 때 위는 올라와서 보이게 한다. 무가 익으면서 끓게 되는데 그때 손가락으로 무즙이 섞인 꿀을 파먹는다. 무가 차도 화롯불이 꺼지지 않는다.

무는 채국도 끓이고, 무를 썰어 넣어 소고기를 넣어 탕국도 끓인다. 생선 조릴 때도 밑에다 깔고 하면 생선도 무도 맛있다. 무는 뿌리도 먹고 무청도 먹는다. 무청은 뜯어서 삶아 된장국으로 해서 먹고, 말려서 시래기를 만들어 겨울에 볶아 먹기도 한다. 시래기도 해 먹는 게 아주 많다. 시래기뻘다귀국도 있고, 보신탕에도 넣는다.

무채는 사자밥을 차릴 때도 쓴다. 이때는 무나물이라 한다. 사자밥에는 밥과 무나물 세 접시를 놓는다.

배추

배추는 김치 해먹고, 백김치라고 물김치도 한다. 백김치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마늘 이런 양념만 넣어 만든다. 배추도 시래기로 말려서 삶아 먹기도 하고, 삶

아서 된장국이나 배추나물로 해 먹는다. 메밀전을 구울 때 손으로 죽죽 찢어서 밀에 간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았다가 전 부칠 때 찢어서 넣으면 맛있다. 배추는 무보다 용도가 조금 적다. 옛날 배추는 뿌리가 굵고 커서 캐서 깎아 먹기도 했다. 김장할 때 캐서 서들서들하게 말렸다가 깎아 먹으면 달콤했다. 지금은 그런 배추 뿌리가 있는 종류가 없다.

양배추

양배추김치, 물김치, 삶아서 찜으로 먹는다. 닭갈비 볶을 때 넣는다. 자장면을 볶을 때 넣는다. 돼지고기 넣고 볶아서 두루치기를 해서 먹기도 한다.

부추

부추는 반찬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간다. 여름에는 파보다 부추가 더 많이 소용된다. 파처럼 사이사이에 넣어 먹으면 된다. 부추만 가지고 김치를 만든다. 부추는 여느 것보다 젓국에 무치면 더 맛있다. 부추는 한 번 심으면 계속해서 뜯어 먹을 수 있다.

깻잎

깻잎은 김치는 안 담근다. 뜯어서 양념을 만들어 가지고 깻잎 하나하나 사이사이에다 양념을 발라가지고 3,4일 두었다가 먹으면 맛있다. 양념을 바를 때 날것으로 한다. 또 약간 데쳐서 양념을 해 먹어도 맛있다. 깻잎은 향이 좋다.

콩잎

하추리에서는 콩잎을 먹지 않는다. 해 봤는데 못 먹겠다. 경상도에서는 먹는데 여기는 안 먹는다.

오이

오이는 김치, 장아찌, 소백이, 오이지, 오이지무침, 오이냉국도 해먹는다. 소백이는 생 겉로 사이에 부추 이런 양념을 많이 넣어 만드는 것이다.

오이장아찌는 오이를 소들소들하게 소들구어 가지고요. 된장 단지에 깊이 넣어 두었다가 꺼내서 먹었다. 그런데 요즘은 된장에 하지 않고 간장에 많이 담근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에다 직접 한다.

여름에는 오이냉국도 만들어 먹는다.



윤옥순 제보자

소금에다 짹짹하게 설탕

하고 채워 놓았다가 만들어서 오이지를 만들어 먹는다. 오이지는 여느 물은 넣지 말고 해 놓으면, 설탕물이 녹으면서 오이가 쪼글쪼글 해진다. 색깔이 노랗게 된다.

설탕도 꽤 많이 넣고 소금도 아주 짹짹하게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한 5일간 두면 질여지면서 쪼글쪼글해진다. 그러면 건져서 썰어가지고 물을 타 먹어도 되고, 또 썰어서 짹짹한 맛이 우리나라라고 물에 담갔다 건져서 꼭 짜서 기름이랑 양념을 무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다. 이게 오이지무침이다.

늪은 오이는 노각이라 하는데, 쪽 갈라 씨를 파낸다. 노란 껍질도 깎아낸다. 부드럽게 채처럼 썰어서 소금을 쳐서 죽여 놓는다. 그런 다음 손으로 꼭 짜서 새콤달콤 갖은 양념을 넣어서 조물락조물락 무쳐 먹으면 맛있다. 옛날에는 늪은 오이를 먹을 줄 몰랐다. 지금은 노각이라 해서 아예 씨가 따로 있다. 토종 오이도 늪으면 같다. 그것도 그렇게 해 먹으면 된다.

마늘

마늘종다리는 장아찌를 많이 해 먹었다. 장아찌를 담그면 짜서 상하지 않고 오래 간다. 그렇게 장에다 담갔다 꺼내 먹으면 맛도 좋다. 간장에다 하는 것 보다 된장에 하면 맛이 더 좋다.

가지

가지는 가지나물로 볶아서 먹고, 썰어서 튀김도 해 먹는다. 튀김은 가지를 튀길

만큼씩 썰어서 소금을 약간 뿌려 놓는다. 튀김가루나 부침가루를 풀어서 담갔다가 건져서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자박자박하게 해서 넣어 튀기면 바삭바삭한 게 맛있다. 그렇게 튀겨 놓으면 식구들이 잘 먹어 금방 없어진다. 그런데 그냥 볶으면 잘 먹지 않는다. 가지로 김치는 안 해 먹어 봤다. 가지를 찌서 양념에 무쳐 먹는다.

호박

호박잎은 뒤를 벗겨서 삶아서 찜을 싸 먹는다. 호박잎 뒤를 살짝 벗기면 길긴 줄이 기다랗게 일어난다. 그렇게 찌면 따끔따끔한 것이 없어진다.

호박 줄거리기는 안 먹어 봤다.

호박은 호박나물, 호박죽, 호박씨 등을 해 먹는다. 호박을 볶아서 먹는 거를 호박나물이라 한다. 볶아 먹는 거는 참호박으로 한다.

호박죽은 호박을 완전히 노랗게 익혀서 가늘게 죽을 쑤어 먹는다. 호박죽은 그냥 호박으로 한다. 갈라서 씨를 파내고 겉껍질도 벗겨내서 삶다가 쌀을 넣어서 푹 끓이면 된다. 호박죽은 단호박이라고 따로 있다.

되호박은 호박 자체는 맛이 없다. 껍질이 아주 단단하다. 삶아서 된장을 넣어 비벼 먹었다. 호박장을 끓여 비벼 먹으면 맛있다. 지금은 되호박을 재배하는 사람이 없다. 아예 씨를 구할 수 없다.

호박씨는 말려서 아이들이 까먹는다. 지금은 가게 가면 아예 껍질을 까서 파는 게 있다.

머우

대궁을 뜯어 삶아서 껍질을 벗긴다. 껍질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찬물에 하루 정도 우려낸다. 그래서 프라이팬에 넣어 양념을 하면서 무친다. 날것으로는 먹지 않는다. 혈압 높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한다.

아욱

아욱은 큰 다음에 잎을 뜯어서 물에다 대고 싹싹 비빈다. 그러면 새파란 물이 우러난다. 그렇게 한 서너 번 비벼서 헹궈서 총총 썰어서 된장국을 끓인다. 비비지 않고 그냥 끓이면 미끈거리고 맛이 쓰다.

쭈

쭈은 대처에서는 잘 먹는데 하추리에서는 잘 안 먹는다. 여기는 다른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쭈은 안 먹는다.

냉이

냉이는 봄에 캐서 국 끓여먹고, 무쳐서도 먹는다. 봄에 제일 먼저 캐는 나물이다. 향이 아주 좋다.

달래

달래도 냉이처럼 봄에 제일 먼저 캐는 나물이다. 달래는 캐서 양념간장을 해서 밥이랑 비벼 먹는다. 달래장아찌도 만든다. 무쳐서도 먹고 여러 가지로 해먹는다. 달래 김치는 안 먹어봤다.

엄나무

봄에 새순이 나오면 따다. 따서 곁에 붙은 껍질을 깐다. 살짝 삶는다. 그리고 초장을 찍어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말렸다가 볶아 먹기도 한다. 말렸다가 목나물을 해서 불려서 볶아먹으면 된다.

엄나무는 집 네 귀퉁이에 심으면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예방법을 썼다. 가시가 크고 그러니 엄나무를 울안에다가 심으면 좋다고 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처마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그것도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참두릅

삶아서 초장을 찍어 먹고, 말려서 목나물을 해도 맛있다. 참두릅이 봄에 나올 때는 비싸다. 옛날에는 엮어서 팔았다. 지금은 근을 달아서 kg당 얼마씩 판다.

잔대

잔대는 약초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나물로 해먹기도 한다. 나물로 해 먹으면 맛있다. 예전에는 산에 가면 많았는데, 지금은 하도 약초를 캐 가서 찾을 수

없다. 금방 뜯으면 잔대 짙은 씹도 짜먹는다. 잎을 뜯으면 하얀 진이 나온다. 살짝 삶아 무쳐 먹어도 맛있다. 잔대가 나물로는 제일 맛있다.

삼추쌈

삼추쌈은 나물로 해 먹으면 참 맛있다. 삼추 뿌리를 청출백출이라 한다. 모든 한약이 삼추뿌리가 들어가야 약이 된다고 한다. 뿌리를 캐면 요디가 있다. 기다란 요디는 청출이고, 깊이 파면 동그랗게 있는데 그 껍질을 까서 말리면 백출이라 한다. 뿌리는 백출 즐기는 청출이 된다. 이게 소화제로 아주 좋다고 한다. 지금은 약초라고 하도 캐 가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재배를 한다.

산나물

하추리는 큰 산으로 가지 않아도 산나물이 많았다. 산나물을 뜯으러 집 가까이 있는 산으로 갔다. 점봉산으로는 가지 않았다. 앞 산 샷갯골에도 나물이 많았다. 샷갯골에 가면 바위벽이 많다. 샷갯골 맞은편에는 절골이 있다. 절골에도 나물을 뜯으러 많이 갔다. 삼추쌈이나 고사리 등 나물 종류가 많다.

잡곡

수수, 옥수수, 감자, 보리, 밀, 기장, 콩, 팥 등을 많이 심는다. 귀리는 옛날부터 심는 걸 못 봤다.

감자

감자밥, 감자전, 감자떡, 삶아도 먹는다.

감자가 자잘하고 깎아먹기 힘든 것은 썩혀서 녹말을 내서 감자떡을 해 먹는다. 썩힐 때 냄새는 지독한데 떡을 해놓으면 괜찮다.

옥수수

삶아 먹고, 떡, 밥, 울챙이묵 등을 해 먹는다.

옥수수시루떡은 옥수수를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벗긴다. 따뜻한 물에 불려서

방앗간에 가서 갈아 떡을 한다. 옛날에는 집에서 디딜방아에 찼어서 썼다. 가루를 만들어서 시루에 넣고 쪄서 팔을 넣고 찐다. 찰옥수수라 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두고 쪄야 한다. 지금은 방앗간에 서다 된다.



솔밥하기 체험

올챙이묵은 메옥수수로 한다. 여름에 어느 정도 영글었을 때 알맹이를 따서 맷돌에다 갈아서 체에다 걸러 밀로 나온 물로 묵을 쑈다. 껍데기는 버린다. 그리고 틀에다 눌러 찬물에 내린다. 잘 되면 기다랗게 내려오고 잘 안 되면 올챙이 모양으로 뚝뚝 떨어진다. 달래 캐서 양념간장을 만들어서 먹는다. 올챙이묵은 먹고 나면 바로 배가 고프다.

보리

보리밥을 해 먹는다. 된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다. 보리는 많이 하는 음식이 없다.

밀

밀가루 만들어서 칼국수를 해 먹으면 맛있다. 안반에 홍두깨로 밀어서 칼로 썰어서 만든다. 된장을 풀어 삶아 먹기도 하고, 호박을 썰어 넣어 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먹기도 했다. 식성에 따라 다르고, 고장에 따라 조금씩 한다.

나물밥

옛날에는 참 많이 해 먹었다. 취나물, 질경이, 곤드레, 개미취 등을 넣어 나물밥을 해 먹었다.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많이 해 먹었는데, 요즘은 맛으로 가끔 가다가 해 먹는다. 나물밥은 간장이 맛있어야 한다.(식생활 윤옥순 제보)

제6장
구비문학



제6장

구비문학

01 설화

황조막(黃鳥幕)과 박진사(朴進士)

▶ 설화의 위치: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하추리(下楸里)는 가래나무가 많다고 하여 가래나무 추자를 쓰는 추동(楸洞)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읍에서 내린천을 따라 기린면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왼쪽에 있는 마을이다. 귀둔리 못 미쳐 가리산천을 끼고 한석산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의 특산으로는 송이버섯이 많이 난다. 그래서 마을 입구를 들어서면 버섯을 뒤집어 쓴 장승들을 만나게 된다. 내린천을 끼고 있어서 래프팅과 민박 펜션 등이 많다. 몇 년 전 홍수를 만나서 복구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다. 인제군에서는 하추리 마을을 농촌테마마을로 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 휴양림이 들어섰고, 명상의 길, 산채 체험길, 족욕장, 물놀이장, 이야길, 농산물체험장 등을 만들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농촌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건강마을로 조성되었다.

▶ 설화의 내용: 조선조 고종황제 때의 일이다. 때는 늦은 봄이었는데 나라에서는 과거를 실시하고 있을 무렵이다. 그 무렵 인제군에는 박 씨들의 씨족 촌이 있었

다. 그 씨족촌은 인제군 하추리(下楸里)에 있었는데, 박 씨 씨족 촌에는 6촌간인 삼형제가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함께 과거 준비를 하였다. 이름은 준희(準熙) 순칠(舜七) 준회(準會)라 하였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조숙하더니 청년이 되자 힘이 천하장사였고 키는 구척장신이었다. 그리고 순칠은 집이 빈곤하여 정식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어깨 너머로 글깨나 읽은 처지였다. 그래도 형제들이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하니 순칠은 같이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많은 짚신과 노자를 짊어지고 드디어 길을 떠났다. 한양을 향해 떠난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늦은 봄이건만 한여름 장마처럼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 흉탄의 장마물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구척 거구인 준희의 허리에 순칠과 준회는 밧줄로 연결하여 매고 개울을 건너는데 급류의 물살이 너무 강해서 준희와 순칠이가 넘어져 물위에 뜨게 되었다. 그러나 밧줄을 당겨 두 사람의 목살을 양손에 움켜쥐어 번쩍 들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정말 천하장사였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강을 건너 경기도 청평에 이르게 되었다. 날도 저물고 하여 그들은 청평에 있는 한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가기로 하였다. 인정 많은 주막의 주인 덕택에 젖은 옷도 말리고 편히 잘 수가 있었다. 그렇게 자고 난 다음날 아침 순칠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간 밤에 꿈 꾸 자랑을 했다. 숲에서 황금 같은 피꼬리 두 마리가 날아와 양어깨에 앉더라는 것이었다. 쫓아도 날아가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며 순칠이가 자기가 과거에 장원급제할 징조라고 좋아했다.

그러나 얘기를 듣고 있던 주막 주인이 “허허 애석합니다.”하면서 순칠이의 꿈을 해몽하였다. 피꼬리가 머리에 앉았으면 당신이 급제하는 것인데 양어깨에 앉은 것은 옆 사람이 급제할 징조라고 했다. 그 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주막 주인의 해몽과 같이 들어맞았다. 그래서 준희는 소과에 급제를 하고 준희는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제수 받았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다시 들러 주인에게 많은 사례를 하고 그 주막을 누른 피꼬리 꿈을 꾸고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누를 黃자에 새 鳥자 장막 幕자를 써서 황조막이라 불렀다. 그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퍼져서 모두 黃鳥의 꿈을 꾸고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그 집을 황조막 또는 막자 대신에 집 家자를 써서 황조가(黃鳥家)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인제군 하추리에는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누런 찌꼬리 꿈만 꾸면 길조라고 믿고 있으며,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인제군사』)

▶ 설화의 의미: 설화는 좋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제군에서 과거를 보기 위해 당시 한양까지 가는 길목의 설정이 아주 흥미롭다. 특히 주막에 들러서 꿈을 꾸고 주막의 주인이 해몽을 해 준 대로 꿈이 맞아서 주막 이름을 꿈을 따라서 황조막이라 바꾼 것도 재미있는 설화의 바탕이다. 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앞날을 미리 점치는 예조(豫兆)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난 현상의 원형을 파헤쳐서 해몽을 하게 된다. 설화의 황조, 곧 황색의 찌꼬리는 길몽임에 틀림없다. 황색은 중앙을 뜻하고 또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새를 꿈꾸었으니, 귀하면서 마음대로 날개 짓을 할 것이니 벼슬을 할 꿈이었던 것이다.

도둑맞은 삼을 찾은 이야기

옛날에 더디미에 고모가 살았거든. 그런데 그 베 있잖아. 베. 삼을 해서 겨울에 삼을 삼으려고 한 몽테기 이렇게 아름답리로 해서 달아매 났는데. 누가 몰래 뜯어간 거야. 밤에 몰래.

그래서 그 대받는 사람을 데려 와가지고, 그 삼을 잊어먹었다고 대를 받았어. 거 와서 이렇게 대를 받더니. 아 글썽 이 대를 들고 그냥 내 빼더래. 그래서 막 좇아가니까. 다락구미 거 가면 신작로 밑에 이런 물 나가라고 구멍을 해 놓은 게 있어. 거 뭐 콘크리트 갖은 걸로. 아 거기다 가져다가 삼몽테기를 집어다 넣어 놓은 거야. 그 래 찾았어. 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 래 우리 고모네 그렇게 해서 삼을 찾았어.

내가 봤어. 거 다락구미 더디미에 고모가 살았거든. 대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찾아내더라고. 거기를 어떻게 등을 넘어서. 한 등 넘어서 길을 건너서 그 밑에 그 구멍에 있는 거를 알아서 찾았겠어.

누가 훔쳐가다가 거기다 놓고는 그 밑에 누가 찾으려니 생각은 안 했겠지. 그 래 가지고 찾았어. 그거는 내가 어려서 봤어. 그 래 우리 고모네 삼도둑 맞은 거를 찾았다고.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 대를 받으면 점괘가 나온다고.(박광순 제보)

용한 점쟁이1

우리 아버지도 그 점을 보고, 책을 가지고 풀이해 가지고 보고 그랬어요.

아이 내가 한 오륙년 전이지. 이 다리 수술하기 전인데. 바로 전인데. 이 장수터 오랏드리에 우리 시할아버지 산소가 있어요. 장수터 그 산꼭대기에 한 시간 반은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산소를 뚫지가 건드렸다고. 아들 둘하고 동서들 둘 하고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내가 올라갔는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따라가요. 그래 나는 장수터 배 하는데 거기 앉아 있고. 냇이 올라갔어. 올라가서 그 때를 다 심고 그리고 왔는데.

내가 안 올라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가니까. 이 얼굴이 자꾸 이렇게 부어요. 부었는데. 살이 찌는 모양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부어요. 그래 내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나. 그제 점점 더 부어서 내가 괴물 같이 되는 거야. 이게 살이.

그래서 누가 그래. 저 모래네 가면 아주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한 번 가보래. 그래서 아이고. 믿지 못하지만 하던 대로 거기를 갔어. 그래 삼만 원을 복채로 내놓으래. 그래 삼만 원을 갖다 상에다 놓으니까. 앉아서 이래 보더니. 에이 산소를 잘못 건드렸구먼. 이래. 그 소리를 들으니 내가 거기 앉아서 올라갔다 온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었지. 그러니 뭐 올라가다가 밤송이를 아홉 개를 주워서 어디어디 이렇게 묻으라고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할아버지가 그때 개인택시 할 때인데. 그래 사실 내가 가서 보니까 이래이래 하더라고 하니까. 일이고 뭐고 가자. 그래 여기를 내려왔는데.

이맘때 오니까 밤송이가 어디 있어. 그래도 그 올라가는 고락재니에서 뒤지니까 쭉그렁밤송이 썩다 남은 그런 묵은 밤송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홉 개를 줏어다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고 내려왔어.

내려와서 이제 서울 가서 있으니까. 차츰차츰 하루하루 달라지게 살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은 뭐 보톡스 맞았다고 승을 보고 막 그래. 얼굴이 보톡스 맞았다고 나이 먹어 가지고 보톡스 맞았다고. 보톡스는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지. 차츰차츰 닳더니. 이렇게 지금처럼 제 얼굴이 됐어요. 그때는 이만 해서 도깨비 같았단니까. 이상하지. 그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도 못 하고 없다고도 못 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산소

를 갔다 온 거를 모래내 있는 사람이 마포에서 갔는데 어떻게 알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용한 점쟁이2

아니 우리 큰 애가 그렇게 앓았어요. 앓았는데 왜 알았느냐 하면 누에를 뒷방에다 치는데. 덕을 매고 치는데 누에 뽕을 주려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내 혼자 애를 키우니 어째. 데리고 들어갔는데 자꾸 누에를 주워 먹는 거예요. 아이고 징그러워서 어떻게 해. 그래서 애가 한 잠 꼭 잘 때 선반에 올려놔어.

그러니 한 해를 지나며. 자기네 고장에서는 쌀 단지를 뭐. 쌀통을 몇 년을 해도 가져가도 멀쩡하니까. 거 뒷방 실광에 들여놓으라는 거야. 한 말 꼭을 짠 거를. 아파가지고 꼭을 짰더니 그 덕에 나왔어요. 나아서 이제 다니시는데. 그래 거기다 올려놓았는데. 애가 자꾸 누에를 먹으니까. 애가 거기다 덕 올려놓으니. 아주 머리가 하늘로 쪽 올라가는 거야. 풍질하는 거야. 그 꼭에다 올려놔더니. 그래 가지고 내려놔는데.

그 다음에 애가 앓기를 시작하는데 뭐. 거기에 올려놔서 그런 줄은 몰랐지. 애가 놀란 줄은 모르고 자꾸 침만 맞추려 다녔지. 나도 침을 주고 해도 안 낫는 거야.

그러더니. 저 건너 아주머니네 이모. 그 양반이 하루는 오더니 이래요.

“어멈.”

우리 집에 와서 그래.

“예.”

그러니.

“아이 저 애가 그렇게 아프다면서 내가 저 창도 할아버지한테로 짐을 보러 가는데 안 갈라나.”

이래. 그래서.

“아이고, 가야지요.”

그랬어. 그래 좇아가며

“그럼 뭘 가져가요.” 그러니.

“어여, 돈이나 몇 푼 가져가. 그럼 저기 상회에 가서 내가 사는 대로 사 가지고 가면 돼.”

그래. 그이가 범당을 차렸더라고. 창도 외할아버지가 저기 두문인가 거기 계시는데. 그래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가서 정안수 그릇을 가지고 가서 세수하고 정안수를 떠다가 범당에 절을 세 번 하고 촛불 켜놓고 술 한 잔씩 부어 놓고 나오라고. 그래서는 뭐야 이제 갔지. 그래 갔는데. 아주 이렇게 책을 보고 손을 올려놓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야가 명이 기니 살았지 명 짧으면 벌써 죽었겠소. 왜 천엽집을 짜서 삼살방에 났어.”

대번 그러대. 그렇게 짐을 잘 하더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니.

“동북간으로 내놓으면서 거기다가 나물 세 접시 밥 세 접시 이렇게 해가지고 삼신이라고 세 마디 불러가지고 치성을 하면 날 거요.”

그러더라고. 명 짧으면 죽었대. 아이고 애가 목만 이렇게 나오지 이마만 허영게 나오지 눈은 썩 들어간 게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죽겠더라고 아주. 그렇게 꽤 오래 앓았는데. 그런데 손을 아픈 사람 등에 들이면 손이 안 들어가면 죽는데 착 가라앉으면서. 그래 이렇게 해보니 착 가라앉았었어. 그래 내가.

“아이고, 이제 애가 못 살겠구나.”

아이 그때 그러고부터는 약을 세 첩을 지으래요. 그걸 주면서. 가다가 한약국에 가서 약을 세 첩을 지어가지고. 애가 못 먹으니까 다려서 엄마가 먹으면 젖으로 나와 가지고 개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는 대번 나왔어요. 애가요. 세상에. 그래서 나는 귀신 없다는 소리도 못 하고. 그래서 개가 살이 안 썩어요. 큰 애가. 그때 그렇게 앓고요.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눈은 이만하고 머리는 이만한 게 여기는 요만한 게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피난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저 아래서 살다가 왔어요. 지도상으로는 흑석동으로 나왔을 거예요. 검은석이라고. 검은 돌이 많다고 흑석동(黑石洞)인데. 검은석 살적이 제 집이 외따로 살면서도 집이 컸어요. 옛날 구간 집이면 큰 집이거든요. 거기 살면 지나가는 행인, 그리고 동네 노인네들이 우리 집이 뜨시다고 다 놀러오고 이랬는데.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구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 나와서는 피란지지로 정선으로 간다느니 뭐. 충청도 계룡산으로 간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들리면 이게 얘기를 해요. 거 피란지지가 어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날 보고 코클볼을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관솔을 잦다가 볼을 놓으면. 책을 뒤적거리며 노인네들이 얘기를 해요. 이북에 있으면 피란지지가 없고, 남쪽으로 나가야만 피란지지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법으로 살려면 여기서 살고, 자유롭게 살려면 38선을 넘어 저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때 노인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지요.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공산치하에서 2년 있다가 우리가 월남을 했거든요. 그래 월남해서 나가서 그런지. 우리 식구들이 월남해 나가 피난을 했다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5형제가 컸는데. 누나들 들은 고령이 돼서 가고. 지금 오형제 중에 내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때는 하추리가 아니라 가래울이라 했어요. 가래울이 그 사람들이 피란지지도 인 줄 알고 찾아 들어와서 자손이 번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 아래 흑석동이라는 데는 최 씨네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여기 2반은 밀양 박 씨네가 자리를 잡고, 더디미라는 데는 청주 한 씨네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삼척 김 씨네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골짜기마다 한 두어 집 씩 흩어져 살아있고요.

그때 그 노인네가 감록을 보는 것 보니까. 그때 그 노인네인데. 노인도 아니야. 지금으로 보면 한 육십 대 정도 됐어요. 수염을 길렀어요. 백발이고요. 그 노인네가 언젠가는 나라에 전쟁이 날 텐데 전쟁이 나면 사람 많은 곳을 가지를 말고 소귀처럼 생긴 골짜기로 가라는 말이야. 소귀에 골이 나잖아. 거기 가서 피난을 하면 가족을 살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판 무식자지만 그 얘기를 들어서 여기 상남 나가면 자포들이라고 이렇게 팔딱 자빠진 편한 골짜기인데 조금 골이 많아요. 거기 가서 피난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골짜기 바로 들어가면 인민군 아군이 그 골짜기로 안 들어오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 그걸 내가 피란지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6.25를 다 겪고 나서 여기 들어와 사는데. 그때 그 감록을 보던 사람이 제대로 보던 사람이예요. 거기 있으면서 인민군 다니는 것도 못보고 아군 다니는 것도 못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 끝났다고 해서 나오니 아주 난

리지 뭐. 그런데 우린 식구가 모두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우지 못했더라도 남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피란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리로 들어가서 골짜기만 컸지 이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산골에 이렇게 생긴 골짜기가 낫지 그랬더니. 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여러 골짜기가 된 대 그런 데는 피난지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에 정선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선에 가면 교통도 좋지 않고 도로로 걸어가야 하니 힘들어서 기린하고 상남으로 피란을 했어요.

피란했다가 수복돼서 여기를 들어오니 우리랑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다 북으로 들어가고 없더라고요. 북으로 들어갔다가 인민군으로 나갔다가 죽고. 그러니 내 나이에 인민군으로 나갔다가 죽었으니 북한에서는 전쟁을 많이 한 거지요. 그런데 같이 다니던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 둘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가 다니지 않고 집에 들어앉아 있다가 살은 거지요. 그리고 누가 나갔다는 얘기만 들은 거지요.(김영모 제보)

장군의 부적

옛날에 한(韓) 장군이라는 사람이 저기 덧밭골 쪽을 지나면서 이 동네에 한 십여 일 묵었더라요. 그래 그렇게 한 십여 일 묵었으면 암벽에라도 뭐라 쓰면 알 텐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병장군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숨었어요. 그리로 따라 올라가면 물이 좋아요. 부식까지 구하기 뭐하니까는 장군이 부적을 써서 물이 나오는 데에 던져 놓고는 아침에 부하들을 보고, 저기가면 붕어가 있으니 붕어를 잡아서 아침에 간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보니 붕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샘이에요.

그래 내가 한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는 암반이 깔렸는데 샘이 좋아요. 샘물이 큰 게 나가고. 거기 가 있으면 사방이 환하게 보이구요. 그런데 이 길에서는 안 보이구요. 거기 올라가야만 그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 양반이 거기서 있다가는 고성으로 간다면서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꽤를 또 당했대요. 그래 그런 분이 와 있었으면 동네 뭐가 남기든지. 그 암벽에다가 뭐라도 써 놓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저기서 밀러들어왔다는 거지요. 숨어 들어오는 게 산길로 가다가 거기서 물이 있고 사방이 확 트이고 인제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수 있으니끼는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옛날 얘기지요.

덧밭골에서 등을 하나 넘어가면 갈거치라고 있는데, 갈거치에 평평하게 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물이 산등에서 난 다 말이에요. 그래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누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술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 패장군이 돼서 들어가다가 거기서 쉬었던 모양이에요. 쫓겨 가다가. 그런데 북으로 가는데 고성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네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누가 지나갔는지는 모르지요. 시대는 왜정 말엽이래요.

저 아래 우리가 외딴 데서 살았는데 집이 좀 컸어요. 그런데 저녁이면 모여 앉아 감록이라는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인네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영모 제공)

소귀피난처

그 양반들이 보통 책을 5,6권씩 지고 다니더라고요. 감록 책, 옛날 역사책을 학문이 많은 사람들인데. 자손은 뒤로 나오라고 그러고 자기는 먼저 나왔다고 하는데. 얼굴도 잘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충청도 계룡산 쪽으로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귀처럼 생긴 골짜기에 가서 피난하라고 그러고요. 전쟁이 끝 난다. 전쟁이 나는 데 피란하려면 그렇게 하라고.(김영모 제보)

일본인 철수

그 양반들이 왜정 말년에 그렇게 지내고 나서 8.15해방이 되었거든요. 해방이 돼 가지고, 그때 가족들 나오는 것은 모르고. 그래 노인네가 그때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고는 해방이 되고, 그래 내일 같이 해방이 된다면 오늘 같이 한국 사람들 보면 일본놈들이 막 찌르고 그런다고. 그래서 한 서너 시간씩 피란을 했었어요. 그래 한 서너 시간씩 골짜기에 있다가. 죽어도 일본놈들 쫓겨 가는 것 보아야 한다고 나가더라고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저녁에 밤에 도망가고 그러

니. 저녁들 일찍 먹고 괜찮으니 그냥 무시하라고. 그때 벌써 경찰서 이런데 다니던 사람은 다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피난민들이지요. 피난민 사이에 군인들도 섞여 나왔을 거예요. 하여튼 하추리 입구에서 행렬이 나가서는 저고사리까지 뻗쳐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만 38선 됐다 하고 소련놈들이 놀러 나왔어요. 소련놈들이 여기 와서 수난을 많이 겪고 갔지요.

하추리 다리 있는데 그때는 나무 쪽다리를 놓고 다녔어요. 일본사람들이 쫓겨오는 도중에 게다가 이런 거 신은 사람은 물에 다 빠졌어요. 나무다리를 못 건넜어요. 미끄러워서. 그래 물에 빠져가지고 보따리는 물에 떠내려가고 사람만 겨우 빠져 나오지요.

그래 가지고 38선을 넘어 왔는데. 그래 그 행렬이 오전에 한 10시쯤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가 다 떨어져야 끝이 났어요. 그래 이리로 많이 나왔어요. 일본인 피난민들. 일반사람들이지요. 그 사이에는 군인들 젊은 사람들이 더러 있고요. 모자를 쓰고 그러니 멀리서 보면 나이 많은 사람 같았지요. 그 행렬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주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이남으로 가면 산다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간 거지요.(김영모 제보)

소련군 이야기

그래 감옥을 보고 이남으로 가야 편하게 살지. 이북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 식구들 나갈 궁리를 하고.

소련군 장교들도 누런 딱지에 별을 두 개 달았는데. 그 사람이 한국사람 튀기야. 조선족 장교야. 아버지는 한국사람이고 어머니는 로스키라고 자기말로 그러더라고요. 가라스키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술을 좋아해요. 막걸리를.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서 어머니가 가끔 막걸리를 하는데. 오라 해서 그걸 한 잔씩 주면 그저 좋다고 해요. 그래 마당에 나가서 춤을 덜렁덜렁 추고 난리예요. 옛날 사기대접 큰 걸로 두어 개 먹으면 아주 좋다고 춤을 추고 그래요.

그런데 사병들은 로스키가 아주 추접해요. 소련군 빵은 혈레바리라고 해요. 메주 마냥 구석에다가 쌓아놓고 먹어요. 가보면 그놈들이 그걸 깔고 앉아 놓고 베고 자고 그래요. 그래 그걸 줘요. 먹으라고요. 시커멓게 빵도 아닌 것이 맛이 안 나지요. 그래 그걸 맛있다고 먹어요.

그래 소련군이 하추리 가게 집 있는데 거기에 주둔해 있는데. 한쪽은 가니까는 아메리칸 그러더라고요. 거 순찰을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유엔군이지. 그때 길 이 우마차만 겨우 다녔어요. 우마차 두 대가 가면 비키지도 못 해요. 한 대가 겨우 다녔는데. 아이 뭘 차가 들어와요. 우리는 그때 차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 구경하려고 그쪽으로 가니까.

미군들은 아메리칸 군인이라는 게 눈이 노란 게. 소련 사람과 비슷한데. 옷이 아주 늘씬하고 예뻐요. 우리가 또 거기 가서 구경을 하니까. 뭘 자꾸 씹더라고. 지금 생각 하면 껌을 씹었어요. 그래 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보니까는 그게 건빵이야.

건빵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아 그걸 먹으니까 혈레마리에 비해서 맛이 엄청 좋아요. 아 이게 사람도 옷을 깨끗하게 입었는데 음식도 맛이 좋구나 그랬지요. 그러니 소련놈들이 슬슬 다가와서 그걸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아주 좋다고 해서 그걸 소련군과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때 내 나이가 열네 살이었어요. 여섯 살 때 해방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알 건 아는 나이였지요.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김영모 제보)

38선 말뚝이야기

소련놈하고 미국놈이 말뚝을 메고 박았어요. 소련놈은 곡괭이 둘러메고 미국놈은 뭐라고 썼는지 쓴 것을 가지고가서는 나무에 하얀 칠을 하고 38선을 표시를 했어요. 산 밑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어요.

거기다가 심었는데 한 삼 일 있다가 보니까, 소련군이 썩이 하고 곡괭이를 둘러메고 아무래도 일개 분대가 갔겠지요. 가더니까 파더라고요. 그걸 말뚝을 빼서 지금 저기 올라가면 인제읍과 기린 경계 있잖아 경계요. 거기다가 갖다가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오백 미터는 나왔지요.

그러더니 소련놈들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타고 서인가 너인가 왔는데. 아마도 38선 경계 표시 순찰을 나온다고 그랬던 모양이야. 껍뻍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니 군인을 또 앞세우고서는 말 탄 사람은 내리고 사병들을 시켜서는 삽과 곡괭이를 둘러메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도로 빼서 여기 와서 박더라고요.

거기가 하추리 더디미 구역이었어요. 옛날에 거기가 2만이었어요. 지금은 하

추리 1반에 포함되었어요. 그래 기린서 어떤 차가 오더니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김영모 제보)

38선 넘어 월남한이야기

그 후에 38보안대라고 인민군인테 나왔는데 아주 엄해요. 그걸 아버지가 보더니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련 보안대 옆에 아버지 처남 되는 사람이 살았어요. 저녁으로 놀러오면 그 보초서는 행동 보려고요. 그 처남네 집에 놀러 가면 그 당시 보안대 중대본부라는데. 중대장이 그것도 별을 두 개 달았는데. 우정 놀러 가서는 늦게 돌아가지요. 12시가 넘어서 2시가 넘어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1시 2시 사이에 내려오면 추우니까 본부 앞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때는 화목을 땃거든요. 총을 꺼안고 거기 들어가 있거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요놈들이 새벽 2시 경에는 모두 들어가 있구나. 그 시간을 알아가지고.

선달그믐날 저녁에 자다가. 우리는 모르고 자는데 자다보니 깨워요. 그래 일어나니까 이제 이남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 나는 흘쭉이에다 뭘을 조금 넣어주고, 어머니 아버지는 쌀도 조금 지고 보따리를 해서 지고요. 소가 그때 여섯 마리였어요. 선달그믐이니까 달이 없어서 껌껌하지요. 강을 건너서 삼팔선을 넘어갔지요. 그래 선달그믐날 38선을 넘었었는데 나가니까 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식전에 이렇게 왔냐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한다고 그러니. 소를 여기 보이지 않는데 매고 만뚝국을 끓여 주어서 먹었어요.

그래 만뚝국을 얻어먹고 우리 둘 나와 내 동생을 보고. 기린에 누나네가 살았어요. 누나한테 얘기하면 짐을 받으러 올 테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 현리 가니까 그날이 장날이에요. 장날에 개가 따라왔는데, 개가 농촌에서도 크고 예뻐요. 살이 찌고요. 아 장날이니까 장꾼들이 이 개 먹을 만하다 어찌고 그래요. 그래 개를 붙들어 꺼안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 누나가 뻔히 보니까 누나가 뭘 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 누나누나 하고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물동이 같은 것을 이고 가다가 털썩 놓더니 글썩 막 울어요. 아 왜 누나 그래.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나왔으니 누나 울지 말라고. 이복서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저 다락구니로 와 가지고 아파 지금쯤 올라올 거야. 그런데 사람 좀 데리고 보따

리 지러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왔어. 그러니 우리 매형이 그 친구들이 많으니까는 얘기를 하니까 온 동네서 모여서 지계를 모두 지고 내려오니까.

현리 지서서 얘기를 하니까 지서 순경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때 국방군이라고 그랬는데, 국방군이 본부가 초등학교 위에 있었어요. 거기서 군인들도 따라나서고요. 그래서 그길로 하답으로 가서 따라 올라왔지요. 그때 이 더디미고개에 그네들 초소에서 다 봤대요. 그러니 군인이 안 내려가면 쫓아와서 붙들어 갈 판이지요. 그래 군인하고 경찰이 있으니 못 오고 월남을 했지요.

그래 와서 이웃을 잘 만나고. 그리고 기린에 태곳적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라 집안이 많았어요. 그래서 피란을 잘 했지 뭐요.(김영모 제보)

뫓자리이야기

여기는 밀양 박 씨네하고, 철원 최 씨네 하고, 한 씨네 하고. 그 사람들이 자리 좋다는 데는 산소를 다 잡아 났지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명당자리가 있다는 데 서로 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 지금 아무도 못 쓰고 공지로 묵어있어요. 거기는 가기도 힘들고 이제는요. 지금은 거기 가려면 국유림이라 벌금도 물고 그래야 해요. (김영모 제보)

능금덕이의 유래

능금덕이에 전하는 이야기다. 옛날에 서울에서 하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도망을 와 가지고 이곳에서 살았다. 하인의 아들이 자기네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 없으므로 찾아간다고 해서 여기로 말을 타고 찾아왔다.

그래 하인이 보니 자기 상전의 아들이 찾아왔거든. 그래 이걸 보내면 자기네가 들통이 나서 다 죽겠으니까. 가지 못하게 상전은 붙잡고, 말은 언덕에서 굴리고, 사람은 말을 못하게 혀를 잘랐다.

혀를 자르고 너네 집에서 내가 고생을 했으니 너도 고생을 해보라고. 그러니 말은 못하지. 옷도 안 해 입히고 별거숭이로 다니게 하고. 그래서 꽤 오래 됐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자들이 거기 왔던 모양이야. 옛날에는 그러니 암행어사니 뭐 그랬던 모양인데. 그 양반들이 오니까. 사람은 똑똑하게 생겼는데 말을 못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주인 눈치만 보고 있거든. 때리고 그러니 눈치만 늘었거든.

그래 배운 사람이니까. 어서 얘기하라니까. 이놈이 글씨를 썼단 말이야. 그래 한양의 무슨 집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 와서 혀를 잘라서 말도 못 하고 그러니.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내가 살아있다고 말해 달라고 마당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래보니 서울에 꽤 어른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꼼짝을 못 하게 하고 그러니. 그때 다 도망가고 피신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인들이 상전에게 들켰으니 다 피신을 했다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은 못 해도 재주가 있어서 ‘재우(才愚)’라 불렀다. 이 재우를 우리말로 하면 ‘능금덕이’가 된다고 한다.(김영모 제보)

양양 물치가서 소금과 해물을 사온이야기

옛날 여기 사람들이 주로 양양으로 가서 소금을 저다 먹었다. 이 고개를 넘어서 귀둔으로 해서 곰배령을 넘어서 박달령을 넘어 양양 서면으로 갔다. 점봉산 쪽으로 해서 양양으로 바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다. 필레령을 넘으면 오색으로 간다. 오색으로 가면 거리가 더 멀다.

소금 받으러 가면, 아침 새벽에 밥을 싸 가지고 콩을 한 뭇 말지고 가면 이튿날 저녁이면 돌아올 수 있다. 당일 양양까지 가서 물치에서 소금을 받아서 지고, 물치에 소금 염전 공장이 있었다. 오다가는 양양 서면 옛날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있던 곳에 그 동네에서 잠을 잔다. 그리고 그 이튿날 곰배령을 넘어 마을로 돌아왔다. 그렇게 밤낮 이틀을 걸어야 했다.

그때 콩 팔아서 소금을 사고 돈이 좀 남으면 고등어 두 손이나 세 손 정도 사가지고 온다. 아주 그 고등어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화룻불에다가 찌리가지들 걸쳐놓고 고등어를 구우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한 손을 구워서 토막을 내서 다 이렇데 나누어 먹고 찌리가지로 뼈를 또 구웠다. 그때 찌리가지 타는 냄새와 고기 냄새가 조화를 이뤄 기가 막혔다. 그렇게 노랗게 구워서 다 먹었다. 지금은 머리를 잘라 버리고 그러는데, 그때는 머리도 구워서 다 먹었다. 하여튼 해물 고기는 가져오면 버리는 것이 없었다.

겨울철 구정 밑에 가면 설 설 때 아이들 먹인다고 양미리와 북어를 사가지고 왔다. 그때는 팔 값이 좋았어요. 팔을 한 서너 말씩 땃 말씩 이렇게 지고 가요. 장거리 가면 힘들니까 힘 좋은 사람은 땃 말씩 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서너 말씩

지고 가요. 가서는 팔을 팔아가지고 양미리를 한 것이라 하면 20마리씩 엮은 거예요. 그걸 아마 여나쁜 두름씩 가져오고, 동태도 짜리꼬챙이 해가지고 한 켈가 20마리예요. 그걸 두어 켈하고 양미리 하고 그리고 청어란 고기도 가져왔어요. 청어는 가시가 많아요. 그걸 가져와서 다 구워먹었어요. 상어는 어른들이 설에 제사를 지내고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군침을 흘리고 빼서 먹는다고 해서 높이 달아 매 놓았다.

어떨 때는 무를 썰어 넣고 양미리를 두서너 마리 빼서 썰어 넣고 끓이면 고기 냄새만 나는 거지 뭐. 그래 조금 간해서 먹으면 물고기 맛이 나서 그렇게 맛있었어요.(김영모 제보)

소금사러 갔다가 도둑을 만난 이야기

소금 사러 갔다 오다가 산에서 도둑맞은 이야기도 더러 있다.

옛날 여기에 김춘삼이라는 노인이 있었다. 김춘삼이라는 노인네가 나는 얘기만 들었지 보지는 못 했는데. 그 양반이 양양 가서 소금을 받아지고. 옛날에는 주머니를 여기 차고 다니잖아요. 돈주머니를요. 여기서 떠날 때 그 춘삼이라는 노인이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 양반은 돈을 가지고 맨몸으로 가서 사 지고 오는 데 박달령을 올라오니깐. 박달령과 곰배령 사이에 주막집이 있었대요. 그 주막에 가서 자려고 박달령을 올라서니까. 난데없이 도둑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소금 지게를 뺏쳐 놓고 앉아 쉬는데. 이놈들 둘이 떡 하니 둘러서서,

“너 죽지 않으려거든 돈 있는 것 다 내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춘삼이 어른이 뺏히 쳐다보면서,

“나도 돈이 없어서 지금 먹지 못 하고 사는데 무슨 돈을 써.”

그러니. “야 그 소금보따리 내 봐 맞지 않으려면.”

그래 이 노인네가 둘이니깐 꿈쩍 없이 맞겠으니깐. 두루 둘러보니까. 옛날 소로 길 옆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거 아시잖아요. 도리께 매는 나무 있잖아요. 수청 나무. 그 나무가 팔뚝 같은 게 나와서는 길가에 있더라고. 예이 내 저놈들한테 뺏기고 가니 싸워야겠다고. 나서서는.

“이 새끼들아 날 잡아 이놈들아 나랑 해보자.”

그러고는 팔뚝만한 수청나무를 잡아당기니 뚝 부러지더래요. 그러니 그놈들이.
“야, 저 새끼 세다야.”

하면서 내 빼더래요. 그래 그 양반이 힘이 좋았대요. 그래 도둑놈을 만나도 힘이 좋고 살겠다고 나서서 맛을 땀 맞더래도 한 번 해보고 해야 한다고요. 그 춘삼이라는 노인이 속이 당차니까 디밀었지. 허술한 사람은 달라는 대로 주고 그냥 오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김영모 제보)

호랑이 피해 돌 틈에 잔 이야기

곰배령을 내려오면 용수골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귀둔리인데. 거기 내려오다 날이 저물면 바위 뺨대에 올라가서. 사람이 겨우 매달려 올라가서 사람이 두어 명 드러누워 잘 수 있는 바위틈이 있어요.

편한데 자면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거기 올라가서 자다가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와서 범이 쳐다봐요. 사람은 있는데 너무 가팔라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가 날이 흰하면 내 빼고 그래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김영모 제보)

나물보따리를 가져다 놓은 호랑이

호랑이는 흔했던 가 봐요. 여기 매봉산에 호랑이가 많아서 호랑이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 가면 거기 호랑이가 새끼를 쳤다는 굴까지 봤어요.

호랑이 새끼를 가져왔다가 호랑이한테 쫓겼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오월 달에 나물 취 뜯으러 갔다가. 매봉산 뒤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매봉산에 올라가면 뒤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물을 뜯어가지고 매봉산 골 안으로 해서 호랑이 새끼를 쳤던 굴 앞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나물 보따리를 풀밭에 내려놓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뭘 비눗 같은 게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 뭐가 하고 이래 쳐다보니까 호랑이가 있는데 침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 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야, 이놈아 사람이 왔는데 어딜 내려다 보냐.”

고 했지요. 그래 호랑이가 그냥 뻔히 보고만 있고 대항도 안 하더래요. 그래 옆을 보니 강아지만한 게 새끼를 낳아놨는데 아주 예쁘더래요. 아 그래서.

“그놈 뭘 짐승이 참 예쁘네.”

하고 붙들고 이래 쳐다보니까. 호랑이가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 도로 놓아두다가 한 마리를 들고는 집에 가서 기르겠다고 나물 보따리에 담았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덤벼들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냥 내버려두고 쫓겨 내려왔대요. 나물보따리도 거기에 내버려두고요. 집에 오니까 영감이,

“아 나물 뜯으러 간다더니 나물을 어땀소.”

그러니.

“아, 글썸. 오다가 뭇 바위 밑에 강아지 새끼가 예쁜 게 있어서 하나 데려올라 하니까 왕 소리를 질러 보니까 호랑이가 덤벼들어 나물보따리를 내버려 두고 쫓겨 왔어요.”

“그래 거기가 어딘데 내일 내가 가서 찾아와야지.”

영감이 이러니까. 할멈이 아침에 조반할려고 나가니까 그 우물 자리에다가 보따리를 가져다 놓았더라고. 옛날 호랑이도 자기를 해코지 안 하니까 도로 나물보따리를 가져다 놓은 거지요. 그래서 호랑이가 영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김영모 제보)

군량동에서 호환에 간 사람을 위해 굶을 하다

호랑이가 물어갔다는 얘기는 우리 처갓집들이 귀둔이라고. 지금 군량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 안 사람이 호랑이 물려가서 굶히는 걸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난 그런 거는 못 보고요.(김영모 제보)

소련군 총에 맞아 죽어 굶을 하다

굶히는 거는 38선 막히고 소련군이 여기 와 있을 적에 그 옆에 살던 사람이 일본 군인으로 갔다가 왔어요. 좀 간이 여물은 사람이예요. 거기 갔다 오면서 소련군이 서라고 그랬을 때 섰으면 똥을 텐데. 따발이 총을 들고 서라고 그러니까.

“새끼들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냥 왔대요. 그러니 그 사람을 세워놓고 냅다 쏘았어요. 그래 총에 맞아 죽은 걸 여기서 굶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죽은 걸 내가 봤으니까. 인제권에서는 총에 맞아 죽은 것은 그 사람이 행패를 부리다가 죽은 걸 그 얘기를 들었어요.(김영모 제보)

하추리에서 소 키워 판 이야기

옛날 이 지역에서 소를 키우면 이 앞으로는 길이 없어 못 나가고 싸리목으로 해서 연골로 해서 덕적리로 해서 인제로 나가서 소를 팔아야 해요. 지금 이리로 도로 난데는 사람만 겨우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소로 길어요. 그럼 그만 큰 소는 못 사고 조그만 송아지를 사가지고 끌고 오다가는 송아지가 못 가면은 송아지를 질빵으로 지고 와서는 여기 와서 키워가지고 팔 때는 저쪽으로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 들어 올 때는 송아지를 업고 들어와야 해요. 그때는 인제의 남북리에 장이 컸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남면 신남 남전리로 해서 도리로 거기 도리로 가면 배터고 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도리안이라고. 도리안 강으로 지고 가다보면 배터고개는 중간에 넘어오는 고개거든요. 그 고개를 옛날에 넘어 오려면 배터고개에서 송아지를 호랑이에게 빼앗기고 그냥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고개를 넘을 때는 여럿이 모여서 소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 고개가 그렇게 사나웠어요. 그래 그 고개를 내가 한 번 딱 넘어봤는데 산이 옛날에 험하게 생겼어요.

장사꾼이 기린에서 사가면 더디미고개를 넘어 가고요. 아니면 귀둔으로 나가 고요. 송아지는 인제 가서 사오면 업고 와서 키워서 팔고 아니면 기린 가서 사오 고 그랬지요. 여기서 우시장으로 가려면 기린으로 많이 갔어요.

생활권은 인제이기 때문에 인제에서 여느 것은 많아 보지요. 아침을 일찍 먹고 인제 가서 점심 먹고 오후 2~3시 되면 부지런히 걸어와야 하추리에 해 떨어지기 전에 닿을 수 있었다. 옛날에 40리 그랬으니까 왕복 80리잖아요. 기린은 30리라 그래요. 그러니 짐승팔고 그러는 것은 기린에 가서 시장을 보고, 여느 거는 주로 인제 가서 보고 그랬지요.(김영모 제보)

도로 뚫린 사연

여기 아래 도로가 뚫린 것은 우마차 길이 다닌 것은 70년 이상 됐어요. 새마을운동해서 닦은 것은 표시가 없어요. 처음 고사리로 해서 이리로 뚫을 때는 골골마다 굽이 다 돌았어요. 개울 가로 해서 닦았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이 아래로 1반에다가 사무실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랬어요. 그때 어지간한 꼴짜기는 노깡이라고 그걸 묻어가지고 길을 바로 뚫고요.

그래서 길을 닦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까 집에서 점심을 싸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일당 얼마씩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아버지를 따라 가면요. 아버지한테 밥을 먹고 집에 있는 감자 옥수수 이거지요. 그래 아버지 따라가면 밥을 맛있는 거를 먹으니까, 조그마했을 때 따라가지요. 길 뚫는 곳이에요.

따라가면 일본놈이 감독을 하는 놈이 나를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부인네에게 나한테 밥 주라고 그래요. 그래 어떨 때는 계란에다. 그게 지금 보니까 프라이예요. 계란도 주고 밥을 이만한 그릇에다 줘요. 쌀밥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어렸으니까. 어떨 때 본체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 그때 그랬어요.

그래 그때 폭파를 몇 번 하면 점심을 먹으라고 그랬나 봐요. 그때는 남포라 하더라고요. 남포를 할 때는 돌 날아간다고 몸을 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들 골짜기로 쫓겨 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점심시간에 여러 발 터져요. 오후에 일할 걸 그때 다 터트려 봐요. 그러니 밥 먹을 시간이면 골짜기가 뿌영지요. 그래 아버지에게 밥 얻어먹고, 남포할 때는 구경하느라고 쫓겨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거기서 놀았어요. 터질 때 보면 굉장해요. 그럴 때 밥을 싸 가지고 갔으니까요. 어머니가 밥을 싸 주면 등에 지고 아버지께 갔다드리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일곱 살 정도는 됐겠지요. 그걸 지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서 길이 자꾸 확장이 됐지요. 전쟁이 나면서도 그렇고요. 하여튼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길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굴삭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도저로 밀기만 했어요. 그 이후로 확장을 하면서 국도가 되었어요. 아마도 길이 이리로 들어와서 확장된 것은 5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여기 초창기에는 3군단장 오덕준 장군이 다닌다고 도저로 밀고 그랬어요. 그 이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땅을 회사하라 그러고 하면서 넓어 졌지요. 어떤 사람은 회사나 떠나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해 줬고요. 그래 가지고 많이 닦았지요. (김영모 제보)

운봉골의 유래

소래골에서 내려와 오른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운봉이라 한다.

골짜기 어귀에 운봉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운봉골이라 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석이를 따서 석이를 팔면 옛날 토막집인데 돈은 두면 쓴다고 석이를 팔아 받은 돈을 골에다가 던졌다.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꽤 많은 돈이 모였다. 그래서 화전도 하고 먹고 살곤 하였다.

그렇게 하다가 할멈을 보고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우리 이제는 여기서 떠나서
논 많은 데 가서 쌀밥도 먹고 살자고 했다. 그러니까 할멈이 뭘 돈이 있다고 쌀밥
을 먹고 사냐고 했다. 아니 내 생각이 내가 석이를 따서 몇 년간 모은 돈이 있으
니까 그걸로 논을 몇 마지기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래 이 사람이 올라가서 던져놓
은 돈을 모으니 흘치기로 하나 모았다고 한다. 여기서는 흘치기라 하고 저 아래
서는 주루먹이라 해요.

내가 이렇게 석이 따 팔아서 돈을 모았다고. 이 돈이면 논을 사서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여주 이천으로 갔대요. 거기 가서 잘 살
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꼴이 운봉꼴이에요. 그 꼴에 석이가 많이 나
요.(김영모 제보)

도깨비집터

셋골에 박○○ 옹의 옛 집터가 부자터라 알려져 있다. 그 터에 도깨비가 다닌
다는 얘기만 들었지 진짜 있는 줄은 몰랐어요. 자면서 식구들이 옛날 얘기도 하
고 그러면서 자고 일어났대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 솔뚜껑이 솔 안에 들어가 있
었어요. 그래 아주머니가 밥을 하러 나와 보니 허무했지요. 솔 안에 솔뚜껑이 들
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 남편을 불러서 이상하다고 말을 했대요.

“솔뚜껑이 솔 안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꺼내요.”

남편이 말을 했대요.

“아무 소리 말아요. 그리고 그냥 봐두라고.”

도깨비를 욕을 하면 솔뚜껑을 안 빼놓는데요. 그래 그냥 두었더니 삼일 후에
빼놓았더라요. 그래 밥을 해 먹고는 이 터가 드세다고. 그래서 그 집을 헐고 닥밭
구미에 가서 살고 원래 집을 헐었지요. 그리고 그 터 옆에다가 새로 집을 지었어
요.(김영모 제보)

거랭이바위도깨비

거랭이 바위에서 노인네가 술을 한 잔 먹고 오다가 거기서 잤어요. 자다가 바
위굴에서 나와 밖에다 소변을 보고 들어가니까.

“아니 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혼자 있소.”

하고, 누군가 등을 치더래요. 아니 꽃 같은 부인네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레 술을 권하니 얻어먹고요. 아 그러면서 들어와서 같이 자자고 하더래요. 그레 보니까. 자기가 자던 바위 밑인데. 글썸 기와집 같이 아주 좋아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가 자던 방으로 들어가자고.

“아이고, 그러잖아도. 영감이랑 자려고 했어요.”

부인네가 그러면서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레 밤새 껴안고 잤대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을 누려니 글썸 고추 끝이 다 까졌더래요. 그레 보니 자기가 몽당 빗자루를 껴안고 잤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 그때는 뭔지 몰랐지요. 허허.(김영모 제보)

고사리 장터거리 도깨비

옛날 고사리 장터거리라고 있어요. 어떤 노인네가 거기서 술을 한 잔 먹고 떡허니 올라오려니 해는 다 지고. 그레 올라오다가 그 거랭이굴 앞에서 담배를 부셔서 담배를 한 대 피울 물고 개울가로 올라왔대요. 그런데 해가 다 졌는데 개울가에서 빨래 소리가 나더래요.

“아, 이놈의 곳에 집은 없는데 뭘 빨래하는 소리가 나.”

하면서 보니까. 아이 꽃 같은 새댁이 빨래를 하더래요. 그레 거기서.

“웬 여자가 대낮에 빨래를 해야지. 밤늦게 빨래를 하오.”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여자보고 골내는 놈은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그레 노인네가.

“그럼 사람이네. 틀림없는 사람이구먼.”

그러니. 다 들었지. 그리고 그곳에 ‘초라니바위’라고 있었는데. 그 위에. 그것도 길 뚫느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를 올라오더라니까. 뒤에서 또 여자가 부르더래요.

“여자가. 빨래만하면 되지 뭐 때문에 또 부르냐.”

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레 이제 부지런히 가야 된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올라와서는 지금 저 아래 1반에 거기 올라오니까 땀이 얼마나 났는지. 그냥 등허리가 땀이 줄줄 흐르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도깨비가 있다고. 술 먹고 지나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김영모 제보)

소리 잘 한 최 씨 장외

저 밑에 가면 최 씨네가 비석을 해 세우고 망부석을 해 세웠는데. 그 후에는 장외. 장외를 했더라고. 그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장외가 왜 됐냐면. 소리 장외. 소리 장외로 벼슬을 했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장외하기 전에는 농토도 많고 하니깐 돈을 많이 쓰고 포수로 다녔대요. 포수로 여기 매봉산에 곰이 많아서 곰을 잡아 가지고 널은 빼서 자기가 먹더라고 고기를 다리 하나씩은 군수한테나 저기 경찰서에 선사를 했어야 하는데. 군수한테만 하고 지금 말하면 경찰서장한테는 선사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 서장이 생각해보니 직위는 다 같은데 자기한테는 안 하고 군수한테만 하거든. 그러니 그때 아전이 경찰인데. 그래 아전을 시켜서

“아무데 가서 그 포수 놈을 잡아와라.”

“뭘 어떻게 붙들어 오냐.”

그러니.

“그냥 무조건 붙들어 와라.”

그래 붙들어 와서 유치장에 가두니. 조사도 안 받고. 그래 유치장에 가서 암만 생각해 봐도. 지가 잘못 한 일도 없고 총 허가 내서 곰 잡은 일밖에 없는데. 유치장에 가둬 삼일을 놓으니. 그러니 서장 놈이 그렇게 가뒀으니 순찰을 돌겠지. 그 래 하룻저녁은 그 당직 서는 사람보고.

“내가 여기 왜 갇혀있냐.”

그러더라. 그러니 갑갑하니.

“너 소리하고 싶어.”

그러더라.

“그러면 나 소리라도 하고 싶어.”

내가 죄도 없는데 갇혀 있으니 소리나 하겠다고. 그래 소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잘 하더라고. 그래 서장 놈이 이렇게 쳐다보니 소리를 기막히게 하거든. 가만히 들으니 소리를 참 잘 하거든. 그래.

“어느 놈의 소리아.”

그러니.

“아 감옥 속에 갇혀있는 놈의 소리예요.”

그러니.

“아, 그 놈의 소리 또 시켜봐라.”

그래 하라고 시키니 또 잘 하지.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오더니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 너는 직업이 뭐냐고 하더래요. 그래 전 뭐든 생각해보니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너 왜 혼자 쳐 먹었어. 나 좀 한 칼 주면 되지.”

“아이고 몰랐다.”

고. 그래 백배사래하고 그러니. 또 들어가라고 그러더라. 들어가서는 소리를 냅다 또 불러대니까는 저 놈 나오라고 그러더라. 그래 불러서 나가니까는.

“너 소리 어디서 배웠느냐.”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 배웠다.”

고 그러니까는. 너 해보고 싶은 거 없어. 그러더라. 그때는 부락에 뭐 맞으면 뭐래도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 공부도 못 하고 그래서 동네 촌장이라도 한 번 해보면 다행이지요.”

그랬대. 그러니.

“알았어.”

그러더니.

“내 소리 장외로 추천해 줄 테니. 장외로 해줄까.”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나오니까. 고을 원하고 소장하고 임명장을 하나주면서 소리임명장을 하나 주더래요. 소리장외로. 그래 하추리 장외로 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잘 해 가지고. 그 분이 최 씨네 선조예요. 그분 묘가 잘 들었어요. 그게 전설로 전해요.

그런데 소리 장외로 해서 장외로 하는데 곰도 안 잡히지 그러니. 아 대장 놈은 뭐든 해 먹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는. 그래 궁리를 하니까. 가을은 지나가는데. 통발이라도 만들어서. 싸리가지로 만든 통발. 드렁바우 그 고개 있는데 거기. 거기 갔다가 통발을 담가놓고는 가을 다 가는 데 그 때에 추울 때 가서 건져 가지

고, 들어가니까 어름치가 들어가더래. 얼마나 들어갔는지 꽤 많이 들어갔던 모양이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야 이 대장 놈을 꿈 고기도 안 주고 그랬더니 나를 그랬어. 이거나 한 번 선사 한다고. 장외를 시켜줘서 고맙다고. 그래 어름치를 식전에 가지고 갔대요. 그래 찾으니까 하인들이 나오더니.

“왜 왔느냐.”

그러더래.

“아 여기 어른 아무개 만나보러 왔다.”

고. 그러니.

“뭘 촌놈이 식전부터 와서 찾느냐.”

고 야단을 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는.

“아 추운데 왜 이렇게 왔냐.”

고 들어오라고.

“아 장외를 시켜주셔서 제가 잘 하고 있는데. 뭐라도 갖다 드릴게 없어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어름치라는 고기가 잡혀서 가져 왔으니 잡쉬 보시라고.”

그러니.

“가져와 보라.”

고. 갔더니.

“뭐 아 이런 걸 가져왔냐.”

고 엄청나지 뭐. 그래 좋아 했더래. 그 뭐 장외도 몇 해 해 먹으라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 계속 장외를 해 먹으라 해서 장외를 계속 해 먹다가 그래 그만 됐다는 그런 얘가지.(김영모 제보)

잉어이야기

여기에 고기가 많아요. 저기 하담 밑에까지 잉어가 올라왔었어요.

왜정 때 그때 해방될 무렵인데, 일본 사람들이 폐병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 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잉어를 잡으면 피만 빼 먹어요. 일본 놈들이 와서 핏을 놔서 터트리면 하얗게 고기가 죽어요. 그게 신주지. 그걸 불을 대서 던지면 그제 한참 있어야 터져요. 그러면 다섯이고 여섯이고 죽 서 있다가 떼내려 오는 걸 고

기가 쫓겨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이 여럿이니깐요. 아 그래 그게 터지면 잉어가 이따만 한 게 떠올라요. 그게 일본 놈들이 무서워서 물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우리보고 꺼내오라고 해요.

그러면 부인네들인지, 갈보들인지 데려와 가지고요. 아마 5월쯤 됐으니 따뜻하잖아요. 그맘때 산딸기 짙레 뭐 한창 날 때잖아요. 그 여자들은 산딸기 따서도 먹고요.

그리고 잉어를 잡으면 배를 쪽 찢어서 피를 빨아먹고 내버려요. 그리고 고기는 우리보고 가져가라 그래요. 그때 조선사람 앞잡이가 있었는데요. 우리 준 걸 그것도 뺏어가지고 가요. 그래 더디미 있던 노인이

“야, 이놈아야. 그걸 다 건어다 일본 놈 주지 말고 죽은 것들로 쪼귀서 담가 놔. 그러다가 일본 놈 간 다음에 갖다 먹으면 되잖아.”

그래요. 아 그 얘기 들으니 그렇더라고요. 물속에서 보이지 않는데 돌에 눌러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 그걸 여러 개 해놓고는 갖다 먹었지요. 일본놈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더라고요. 일본놈은 피만 빨아먹고 냅다 빼고요.

간 다음에 잉어를 건져서 나누어 먹었지요. 그걸 던지면 많이 죽어요. 지금 같으면 많이 건질 건데, 그때는 내가 어리니까 몇 마리 못 건졌지요. 어떤 잉어는 얼마나 큰지 한 마리도 겨우 들어요. 고기가 워낙 많아요. 이 강에도 이 개울에도 뱀장어가 참 많았어요.

일본놈들이 오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우리는 어려서 철을 모르니 시키니까 했지요. 그때 앞잡이들은 해방 되자 다 어디로 없어졌어요.(김영모 제보)

도깨비이야기1

어렸을 때 귀신이야기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밤에는 무서워서 오르내리지를 못했으니까요.

이 길이 지금은 다 포장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흙탕물 길로 막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어르신들이 영천골 거기서 술 잡숫고 귀신에 홀려서 혼나셨다고 그래요. 군철모가 있었는데. 군인이 옆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간 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인민군 여자 군인이 나와서 나랑 놀자고 했는데 못 봤냐고. 그런 얘기를 하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열두 살 땡가. 그때 어른들이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우습고 엉뚱한 얘가지요.

거기 구녕바우라고 있어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광무소라고 있는데. 거기메 도깨비가 자주 나왔대요. 그런데 1반에 어느 어르신이 술을 많이 드시고 그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오다가 그 양반이 도깨비에 홀렸대요. 도깨비가 자꾸 꼬드기더라고요. 술 한 잔 먹고 가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들어가서 술을 한 잔 얻어먹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는 그냥 돌을 껴안고 잤더라고요. 그래 일어나서 그냥 왔겠지요. 그런데 그 돌이 빨개졌더라고요. 얼마나 속아 가지고 그랬는지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남근을 돌에다 막 문지른 거지요. 그래서 피가 벌겍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자기가 술이 취해서 그냥 그렇게 했겠지요.(김재노 제보)

도깨비 이야기2

할아버지가 원대리에서 환갑잔치가 있어서 술을 잡숫고 오는데. 좀 늦었대요. 그래 오는데. 거기 광무소 지나는데 귀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오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예라 이놈 할아범 니 떠난 게 날 쫓아오겠냐.”

하면서 팔뚝질을 하더라고요. 그래 쫓아가면서

“이 놈 새끼 어떤 놈인데 나한테 그러느냐.”

하면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간이 돼도 안 나오니까 거기를 나왔대요.

그래 거기를 돌아오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막지르면서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래요.

“아이고, 네가 좀 빨리 나오지 이제 왔냐.”

면서 뭐라 그러더래요. 그러니 어른이 늦어 안 오면 빨리 나오지 왜 안 나왔냐고 그러더래요.

“왜 그래요 아버님.”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한참을 고생을 했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도 그날은 그냥 들어오고 그 이튿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담뱃대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팽개치고 그랬다면서, 내일 아침에 그 길거리에서 찾아보라고. 할아버지가 부끄러우니까. 그래 나가서 보니까. 거기 길 오면서 양쪽으로 논이있거든요. 논 옆에 담뱃대도 팽개치고 막 왔더래요.

그전에 그렇게 도깨비가 있기는 있었나 봐요.(김재노 제보)

도깨비이야기3

저는 그 도깨비 실체는 못 보고 불은 한 번 봤지요. 호랑이불인지 도깨비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1반에 강 건너 있던 불이 갑자기 이쪽 강 건너 와 있더라니까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려서. 형님이 저보다 세 살 위예요. 만으로 세 살 위니까 학교는 사년 선배고요. 그런데 그 형님들하고 저 아래로 내려갔다 저쪽으로 돌아서 온다고 나보고 먼저 고모네 집에 가래요. 형하고 고종 사촌 형 둘 하고 셋이서. 저만 나이 어리다고 너는 빨리 집에 가라고. 고모네 집에 간다고 해서 나도 간다고 쫓아나서니까. 형들이 데리고 가다가 너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저쪽으로 돌아서 갈 테니. 그래서 저는 그말 만 믿고 여기서 기다리면 오겠지 하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에 8시가 넘어서 9시가 됐는데. 그때가 내가 한 9살인가 10살 때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혼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반 입구 가기 전에 있잖아요. 거기 가니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거길 이렇게 가는데 강 건너 불이 이만 한 게 있는 거예요. 환한 불이. 그래 옆으로 비치지는 않고요. 그래 저 불이 뭐냐 그러면서 고모네 집으로 돌아 올라가는데. 아 이 불이 글썽 강 건너 이쪽에 건너와 있는 거예요. 강 건너 있던 불이.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 고모네 집 마당 툇마루에 올라서는데. 그 불이 마당 앞에까지 왔더라니까요. 그 큰 불이. 그래 고모가 주무시는 데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놀라서,

“왜 그러니.”

그러면서 별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우.”

그러니까는 얼른 끌어들이다더라고요. 그러고는

“네가 놀랐나보다.”

그러시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강 건너 비가 와서 물도 맑았는데. 어떻게 불이 강을 건너왔는지. 그러니 호랑이 불도 아니잖아요. 호랑이가 그 강을 건너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 그때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김재노 제보)

도깨비이야기4

옛날 작은 아버지도 도깨비한테 흘렀나 봐요. 지금 양짓말 그 옆에. 양짓말 거기는 겁이 없어요. 강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모래밭인데. 여기서 술 잡숫고 내려가다가 거기 와서 물이 좀 늘었는데.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껍떡대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불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아버지가 암만해도 저기 저 아래 윤자 아범 소리 같아. 사촌 동생이 윤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길 건너가 봐야겠다고. 아버지가 햇불을 들고 건너가서 보니까. 작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군들 못 봤어요.”

그러더니,
 “가들이 나를 못 살게 해요. 뭐 담배 달라 술 달라 그래요. 내가 다 밀쳤는데,
 못 봤단 말이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보고
 “야, 술 취했으면 얼른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가니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가들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형님은 그걸 못 봤다니 말이 되냐.”
 그러셨어요. (김재노 제보)

도깨비소

옛날엔 여기 위에도 도깨비가 많았어요. 도깨비라는 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나
 는 안 해 봤는데.

여기 살던 사람이 지금은 저기 서화 들어가 살지요. 그 집들이 비설거지 하려
 고 나오면 죽 가고 퍼런 불이 죽 가고 그래 같이 다니면서 설거지 하고 그랬대요.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도깨비소가 저 위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데 지금은 뭐. 거기가 도깨비소
 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요 위에 내려가면 소(沼)가 있었는데 검은석에 있는 게 도
 깨비소예요.

저 산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순이 어
 머니라고 거기 살았어요. 그래 비가 축축이 와서 비설거지를 하러 나가면 아주 퍼런
 불이 죽 건너가고 죽 건너가고 이랬대요. 그게 도깨비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못 봤어요. (박광순 제보)

묘를 옮겨 부자 망한 이야기

제 할아버지가 1885년생이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면 132세인가 그래요. 그때
 94세 때. 제가 21살 때예요. 작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장수하신 거예요. 그래 할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더디미 쪽인데요. 그 집안이 거기서 잘 살았대요. 더디미 올라가는데서 잘 살았는
 데. 머느리가 있는데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왔더라고요. 그래 머느리가 있는데 스님이

“시주 좀 하시오.”
 하니까. 며느리가,
 “시주는 하는 데 스님이 내 얘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더래요. 그래 스님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아, 우리 집에 손님이 너무 들어서 내가 고달픉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스님이
 “그러면 선산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집 뒤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집들은 없는데 선산들이 있어요. 그래 스님이 이렇게 가보더니 그
 러더래요. 며느리보고,
 “이 선산 묘를 다른 데 쓰시오. 지금보다 내려 쓰면 손님이 안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스님이 산을 내려 쓰면 손님도 적게 오고 잘 산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래 스님이 내려 쓰라는 소리를 좋은 쪽으로 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산을 내려 썼대요.
 그리고 나니까 가세가 자꾸 기울더래요. 가세가 기울니 손님이 안 들지요. 그
 래서 며느리가 자기 편하려고 하다가 가세가 기울고 쇠락하게 만들더라. 그러시
 더라고요. 그게 더디미에 있는 얘기에요.(김재노 제보)

흙을 뿌리는 동물

여기 길이 여기로 나기 전예요. 모래 뿌리는 그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열여덟에서 스무 살 쯤 인데요. 내가 스물한 살 때까지는 여기 버스도 다니지 못했
 어요. 나무 상차하는 제무시 그런 차들만 다녔지요. 그 길을 걸어 다녔지요. 저기
 셋말에 가서 놀다가 오는데 말뚥소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주로 흙을 뿌리지요. 밤
 에 오다가 보면요. 그런데 거기 삶이 잘 나왔어요. 삶이 뿌린다고도 하고. 그게 삶
 종류인지, 아니면 삶보다 큰 동물들도 있었겠지요. 그런 것들이 그런 같아요. 그러
 면 대꾸도 얇하고 오다가 돌아서서 돌을 던지고 그랬어요.(김재노 제보)

더디밧재 길에 얽힌 사연

왜정 시대 호랑이를 잡으면 상을 줬대요. 무슨 진사 칭호가를 줬답니다. 그래 상도 내리고 했다고, 호랑이가 자꾸 사람을 해치니까요. 거기 더디미 정상에는 호랑이도 잡은 데랍니다.

지금은 그 길이 38선이 갈라진 데잖아요. 그래 38선이 더디밧재 정상쪽에 났어요. 그래 더디밧재 옆으로 길을 닦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그 길을 인민군들이 닦은 길래요. 38선을 넘어 갈 수 없으니 그 길을 닦아서 이북인 현리 쪽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길이에요. 지그재그로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었어요.

또 68년도부터 72년까지는 박정희 시대 진지구축을 위해서 병커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랬답니다. 오키나와 미군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2주가 지나야 여기 들어온대요. 그래서 2주간은 여기서 버텨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곳에 병커진지 구축을 했대요.

그러니 산 정상으로는 인민군들이 닦은 길이 있고, 산 이쪽으로는 병커진지구축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 교통호라고 그러지요. 군대들이 파 놓은 것. 그게 그쪽에 있어요. 그래 그 교통로를 박정희로라고 부르지요. 자유평화로라고 이름 지어놓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한 것이니까요. 병커를 곳곳에 지어놓고 그것을 이어주는 교통호를 판 것이지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닦은 길은 인민군들이 닦은 것이니까 김일성로라 부르지요. 교통호로 닦은 것은 박정희로라 부르지요. 6.25회상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김재노 제보)

02 민요

나물 뜯는 노래

모시대 참나물 쓰러진 꼴로

우리네 삼동세 참나물 가세(윤옥순)

화투노래-노랫가락

일월 송학 섭섭한 마음
이월 매자로 맺어나 놓고
삼월 사쿠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흙싸리 흩어 졌나
오월 난초 놀던 날에
유월 목단이 춤을 춰요
칠월 홍돼지 나홀로 누워
팔월 공산을 바라보니
구월 국화 꿈꿨던 내남
시월 단풍에 다 터졌네
동지선달 설한풍에
백설만 날려도 님의 생각
앉았으니 님이 오신가
누웠으니나 님이 온다
앉아 생각 누워 생각
우리 님 생각이 절로 난다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로다(박광순)



박광순 씨

난봉가-노랫가락

해는 지고 어두운 날에
옥갓을 하고 어딜 가요
첩에 집을 가걸라 거든
나죽는 꼴을 보고 가요
첩에 집은 꽃밭이요
나에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요

연못에 금붕은 사시사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누가 잘 사나 두고 보자
 얼시구 좋네 절시구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박광순)

춘향가

불쌍하고 가련하다 경황없는 이
 불쌍하다 먹을 것을 손에 들고
 입을 것을 옆에 두고
 옥문전으로 들어를 가면
 이 몸쓸 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 마디 하려므나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 마시오
 잘 낳어도 내 낭군이요
 못 낳어도 내 낭군인데
 옥중에서 찌어질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싫소
 하얀 머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한양 서울 가려거든
 도련님 소식을 전하거라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로다(박광순)

타령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날 버리고 간 우리낭군은 가소 싶어 가셨나

해와 달은 오늘 가면은 내일 날이나 오건만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은 언제 다시 오려나

오늘 같는지 내일 같는지 사사망정인데
호박포기 강낭포기는 왜 심어놨나

아버지 어머니 돈 십전만 주세요
빨주양산 사가지고 쥐내비 잡으러 갈내요

쥐내비 잡놈은 죽어서 상사구렁이 되구요
우리 부모 죽어선 절간에 부처가 되셔요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고시 난 사로라(박광순)

아라리

청천 하늘엔 잔별도나 많고
요내야 가슴엔 수심도 많네

저 건너 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 같이나 또 묵는 구나

간다네 못 간다네 얼마만치 울었든지
정거장 문 앞이 한강수가 되었네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질 말어라
알뜰한 요내 청춘이 다 늙어진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 잘나나
만수산 거문구름이 막 모여 든다.(박광순)

콩나물은 길러서 뽑아나 먹자고 길렀지
 아들딸은야 길러서 남이나 주자고 길렀나
 묵밭은 재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 같이야 또 묵어지누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세요(윤옥순)

사랑가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나 펄펄 나지만
 요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기로 안 나네
 어야디야 어허야 얼사 엄마 둥게 디어라 내 사랑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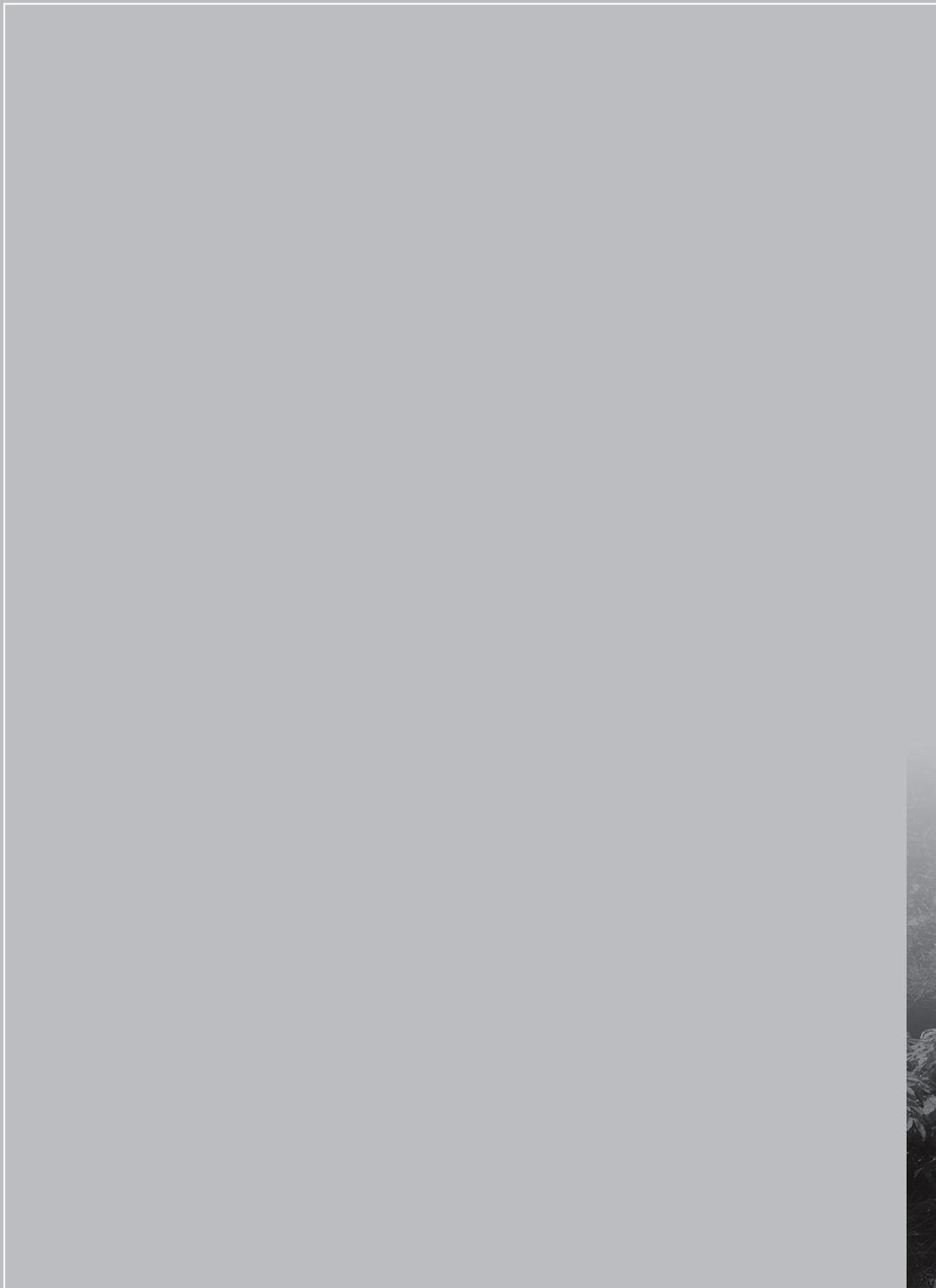
동배 따러 간다고 요 핑개 저 핑개 대더니
 동배나무 밑에서 시집갈 공론만 한다네
 얼사 엄마 둥개디어라 사랑가리로 돌려라

저기 가는 저 남자 대가리 모양을 보아라
 농민 모자를 썼다는 게 낯요강 뚜껑을 썼구나
 어야디야 어야 얼싸 암마 둥게 디어라 요것이 내 사랑이로다(박광순)

자장가

돈을 주랴 너를 살까 꽃을 주랴 너를 살까
 얼싸 둥둥 내 아기야 자장자장 자장자장

꼬꼬닭아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일을 한다
 얼싸 둥둥 내 아기야 자장자장 자장자장(박광순)



제7장
생산민속



제7장

생산민속

작목반

하추리에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채, 송이, 잣, 고로쇠 등의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소득향상과 공동의 문제점을 찾아 모임을 주도하고 반별로 관리를 한다. 산불관리도 한다.

송이는 45명 정도 되는데, 주민이 거의 올라가서 채취를 한다. 운영비로 10만 원을 거두어 관리를 한다.

산나물

삼추씩, 잔대씩, 곧드레, 취나물, 곰취, 미나리씩, 고사리, 개미취, 미역취, 참두릅, 개두릅, 금낭화, 병풍나물, 참나물, 모시대 등이 있었다.

금낭화라는 것도 묵나물 해놓으면 맛있다. 큰 산에 가면 병풍나물이라는 게 있다. 고사리도 많았는데 지금은 나무가 우거져서 고사리를 사 먹어야 한다.

송이산가꾸기사업

사업목적: 산림소득사업

사업자대표: 박병철(하추리 송이작목반)

주소: 하추리 379-9

1차 사업 2ha(2009년도)
사업비 3,954(단위 천원)
보조 1,213
자부담 2,741

2차 사업 8ha(2010년도)
사업비 15,742(단위 천원)
보조 9,445
지부담 6,296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대상지 안내

보호협약수탁자: 김재노
대상지: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 외 4필
대상면적: 1,814ha
보호협약기간: 2011.1.~2016.12.31.(05년간)

이 지역은 인제군국유림관리소와 김재노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국유림의 산불 방지 및 도벌방지 등에 대한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산림에서 산불 및 병해충 발생, 불법행위 등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제국유림관리소 및 보호협약 수탁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국유림관리소장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협약수탁자 김재노

하추리 음나무 재배단지

주소: 하추리 424
재배면적: 8,242m²

재배수량: 2,400본

재배주: 박봉운

지원처: 인제군

재배년월: 2009.03.

사냥 이야기

옛날 돼지도 잡아보고 산양도 잡아보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곰이 있었는데 곰은 못 잡았어요. 여기 골짜기에 굴밤이 열면 그거 따먹으려고 와요. 굴밤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 꺾으면서 지나간 자리가 자국이 남아요. 그런데 이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3군단이 신남에 있을 적에 군단장이 지시를 했어요. 여기 매봉산에 가면 곰도 있고, 그때는 산양이 많았어요. 산양이 좋단니까. 그걸 작전을 했어요. 군대에서요. 그래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그게 많았는데. 그걸 사냥을 할 때 수놈을 잡아야 사냥 하는 맛이 있는데. 암놈 하나 밖에 못 잡아 봤어요. 그때는 총이 많았어요. 수복되고 나서 M1 총이 지급이 돼서 있었어요. 공비가 나오니까 준비한 거지요. 공비가 안 나오면 집에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실탄은 많으니까. 산에 가면 맨 실탄이니까. 매봉산 올라가다 보면 그게 귀가 밝아요. 벌써 이만치 가면 내 뛰거든. 숨어서 살살 가면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들키면 내 뛰거든요. 내 뛰다가 뒤를 돌아보며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썩야 해요. 워낙 빨라서 내 뛰면 못 잡아요.

토끼 사냥은 울무로 했어요. 울무도 사면 나고 나서 끈이 흔하고 많으니까 울무지. 그 전에는 토끼 덫을 놓았어요. 토끼가 가는 길목에다가 덫을 놓아요. 미끼는 칩을 놓고요. 그렇게 칩을 놓으면 토끼란 놈이 그 안에 들어앉아서 칩을 갇아 먹다가 덫에 걸려 죽는 거지요. 어떨 때는 두 놈이 들어가 있다가 맞아죽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혼자 앉아 잘라 먹다가 죽는 수도 있고요. 덫은 나무를 엮어서 둘을 엮어놓아요. 그게 무거우니까 내리 눌러서 쥘개 죽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덫을 만든 것 보면 신기하죠.

우리는 클 때 족제비라고 있어요. 족제비를 잡으면 겨울에 옷을 한 벌 해 입는다는 거예요. 족제비도 털이 하얗게 빛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잡으면 광목을 한 통 받은 산다는 거예요.

여우는 사변 나고 삼팔선 막히고 탄광에서 쓰던 사이나가 나와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쥐약이 나와서 없어졌어요. 여우 털은 비싸서 여우 한 마리를 잡으면 식구가 겨울을 나는 옷을 한 벌씩 다해 입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우 잡으려고 사냥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끈이 없으니까 노끈을 해가지고, 노끈도 세 겹으로 꼬아야 해요. 올무를 놓으려면, 그놈이 세니까. 그래서 걸리면 덜렁 들리게 해 놓아야지. 그냥 흘치게 해 놓으면 그놈이 줄을 끊고 빠져 나가요. 내가 여우 올무 놓는 것을 배웠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김영모 제보자)

인제 하추마을 2년 연속 도 우수 정보화마을에 선정

인제군 하추 마을이 2년 연속 도 우수정보화마을에 선정됐다. 인제군은 도에서 도내 59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결과 전차상거래 및 소득분야, 홍보실적 등 15개 항목에 대한 운영실적과 마을의 노력도, 발전가능성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인제읍 하추리마을이 최우수마을에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하추리마을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강원일보, 2017.12.1.)

인제 하추리영농조합법인 우수기업마을 선정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노)이 우수기업마을에 선정됐다. 인제군은 지난달 27~2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전국마을기업 박람회&공동체 한마당 행사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이 행정안전부장려상을 수상,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법인은 내년도 사업개발비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우수마을기업 인증서를 교부 받는다. 법인은 5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마을기업으로 직접 재배한 잡곡류와 들기름 등을 가공해 온·오프

라인으로 판매하는 한편 도리깨 마을이라는 자체 로고를 만들어 마을기업의 인지도를 높여 왔다. 또 법인은 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함께 장학금 기부 및 물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강원일보, 2017.11.2.)

잡곡 기르던 마을 공동사업 키워 축제 발전

지역경제살리는 6차산업 하추리 영농조합법인 인제 하추리 마을회관 입구에는 지게를 지고 밀집 모자를 쓴 농부가 총을 든 소련군에게 술병을 건네는 조형물이 있다. 하추리는 6·25전쟁 당시 매봉·한석산 전투가 벌어진, 유해 발굴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격전지였다. 38선 쟁탈전이 삼엄했던 시절에도 화전민인 주민들은 경계를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마을마다 `이름 만들기'가 한창이던 2000년대, 하추리는 잡곡농사 연장 이름을 따 `도리깨 마을'이 됐다. 농사를 숙명으로 여기는 하추리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렇게 두 번 보였다. 나아가 6차 산업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가공·판매·체험 한번에 가능한 마을 사업장=하추리 사람들은 예부터 `홍년 들면 하추리 와서 화전이나 일귀 먹지'라는 말을 들어왔다. 들깨, 조, 수수 등 잡곡류를 생산해 온 하추리는 안정적인 생산이 이뤄진 마을이었다. 그만큼 새로운 시도가 어려웠다. 2006년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5억원이 지원된다고 해도 어르신들은 “굳이 해야 하느냐”며 만류했다. 40~50대들은 달랐다. “한번 해봅시다” 나섰고, 2008년 받은 보조금을 농가별로 나누지 않고 폐교 옆 5,289㎡의 부지를 샀다. 이곳은 현재 판매장을 겸한 마을회관, 정보화센터, 도정공장, 체험장, 공연장이 밀집돼 있다. 마을 공동사업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고급 선물제품, 빵과자로 안정적 판로=지난 3일 하추리 마을회관 뒤편의 도정공장은 오전부터 분주했다. 잡곡 수확이 한창인 요즘이 가장 바쁜 이 공장은 2011년 잡곡프로젝트란 정부 사업에 선정되며 세워졌다. 마을 내에서 도정작업을 하고 삼척, 영월 등에서도 물량을 받고 있다. 도정을 마친 잡곡은 1kg에 1만원대, 2~3만원대 선물세트로 가공된다. 특히 인기 있는 건 빵과자다. 100% 국산 옥

수수를 도정한 후 빵과자로 만들어 껍질 없이 먹을 수 있어 7,000~1만원에 팔리는 ‘고급 영양 간식’이다. 또 가공식품 원료를 조합원들의 농산물로 시중 가격보다 10% 높게 쳐 확보하고 있다. 마을 농산물만으로는 모자라 인근 지역에서도 구매하고 있다.

■ 농촌 체험장 인기=도리깨 마을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숙박동, 공연장과 디딜방아 등 선대 때부터 내려온 농사기기를 모은 체험장이 있다. 바비큐파티와 캠프파이어도 가능해 수도권 학교의 체험학습장으로 선호도가 높다. 연간 방문객은 1만8,000여명. 지난해 정부가 전국 28개 마을을 선정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에도 포함됐다. 하추리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재현하는 도리깨 축제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열린다. 올해는 오는 18일 개막된다. 김재노 이장은 “원주민과 이주민이 절반씩 차지하는데, 매월 반상회를 열어 마을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며 “가을걷이 문화를 2차, 3차 산업으로 잘 계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림 기자(강원일보, 2017.11.10.)

청정지역 하추리의 친환경 농특산물 인기몰이

강원 인제군 하추리에서 생산하는 잡곡 판매 대금이 지난해 2억 원을 넘었다. 2013년 4천만 원, 2014년 8천만 원의 연 매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눈부신 성장이다.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2년 농촌진흥청 사업비 6억 원을 지원받아 25개 농가에서 수수, 조, 기장 등 7개 품목의 잡곡을 생산해 왔다. 이에 잡곡 가공시설을 현대화와 잡곡 생산·가공·유통 일원화 등을 통해 잡곡의 품질을 향상시켜 상품화하였다. 올해는 잡곡 재배 면적을 35ha에서 50ha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도 받았다.

잡곡은 항산화, 항암, 항당뇨, 항염 등 건강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우선 잡곡은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잡곡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수수와 피의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진 토코페롤보다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네랄,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당저하, 항염증 효과 등의 생리활성 효과도 밝혀지고 있어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소에 편중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

만, 당노와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운 현대인에게 매우 바람직한 곡식이다. 그 밖의 잡곡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많다.

현미, 현미찹쌀, 옥수수(탈피), 옥수수쌀, 차좁쌀, 기장, 서리태(검은콩), 팥, 백태(노란콩),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생산하고 수매하고 도정하여 포장까지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하추리 마을의 특산물들이다. 주민들의 땀방울이 깃든 만큼 한 해 내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 잡곡 말고도 특정계절에 고사리, 송이버섯, 산골취, 고로쇠수액, 명이나물, 능이버섯 등이 생산 판매된다. 이러한 하추리의 농특산물은 강원 인제 하추마을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하추리를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하추마을신문, 인제고등학교 마을신문기자 김정아)

하추리특산물

하추리 삼거리 장승 옆에 세워진 특산물 안내

1. 송이버섯: 송이버섯은 소나무뿌리 부분인 세근에 붙어사는 외생균입니다. 송이는 수분 함량이 89.9%이고 단백질 2% 지방 0.5% 탄수화물 6.7% 섬유질 0.8% 그밖에 비타민과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추리 송이는 수분 함량이 타 버섯보다 적어서 살이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2. 찰옥수수: 하추리 찰옥수수는 강냉이라고도 불리며 생산 시기는 7월 중순부터 9월까지입니다. 바타민 B1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무더운 여름의 나른함이나 식욕 부진, 무기력함을 이겨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 지방, 당질, 섬유소, 무기질, 비타민 등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 피부의 건조와 노화예방, 피부습진 등의 저항력을 높이는데 좋습니다.

3. 토종꿀: 토종벌은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철따라 피는 꽃들을 먹고 서식합니다. 벌들이 먹는 꽃에 따라 꿀의 성분이 달라지며 1년에 단 한차례 채밀되는 토종꿀은 하추리의 귀한 특산물입니다.



국유임산물 송이채취주민동의회 작성 2017

4.느타리버섯: 활엽수의 고목에 군생하며, 특히 늦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갓은 너비 5~15cm로 반원형 또는 약간 부채꼴이며 가로로 짧은 줄기가 달립니다. 느타리버섯은 항암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수족마비, 면역체계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플라루란(Pleuran)이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유지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조상의 땀방울이 느껴지는 하추리의 전통 도정방식

옛 어른들은 수확한 곡식을 가을 햇빛과 바람에 건조하고 전통적인 도정방식으로 낱알을 쫄거나 쏘었다. 도정(搗精)이란 벼나 보리 같은 곡식의 낱알을 쫄어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등겨층을 벗기는 일을 말한다. 전통적인 도정방식은 사람의 힘이 많이 들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만 하추리에는 도리깨방앗간이 있어 도정체험을 할 수 있다. 전통도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추리에서는 연자방아, 디딜방아, 통방아, 물레방아, 맷돌 등을 볼 수 있다.

연자방아는 연자매라고도 하며, 말이나 소가 절구위에 있는 돌을 끌어서 돌려 곡식을 뿔도록 만든 방아이다. 조상들은 간단한 곡식을 맷돌이나 절구, 매통을 이용하지만 대규모로 쫄는 데는 방아가 필요했다. 연자방아는 윗돌과 밑돌에 쓰이는 커다란 돌을 구해야 하고 힘이 좋은 동물에게 의존하는 부담이 있어 고가 귀한 농촌에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개인이나 마을공동 소유로 이용했다고 한다. 하추리 도리깨방앗간에 있는 연자방아는 체험을 위해 축소하여 만들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추마을신문, 인제고등학교 마을신문기자 전개용)

도정공장운영

구성: 운영팀(공장장, 공장운영팀), 지원팀(사무국장, 사무장)

출자자구성: 63가구 중 59가구 주주로 참여

유통판매: 소포장세트 개발판매, 들기름 착유 및 판매

운영소득: 잡곡수매기금 적립, 마을운영자금, 주민배당

잡곡수매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주민에게 안정적인 판로 및 가격보장, 농가수익 증대

주민생산 잡곡 수매로 가공 판매량 확보 자체도정 및 포장판매로 가격경쟁력 증대, 수익금 주민 배당

체험학교 운영

체험팀운영: 주민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체험팀(체험소득-체험팀소득)

주방팀운영: 주방팀장 채용 상시 근무, 부녀회원 순번제 순환근무(주방인건비 일 6~8만원)

농산물판매: 식자재납품, 방문객에게 농가의 농산물 판매(농특산품판매장, 단체 카카오톡)



체험 방문객 저녁식사 준비

체험학교운영소득: 마을단합행사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정월대보름 행사, 잡곡축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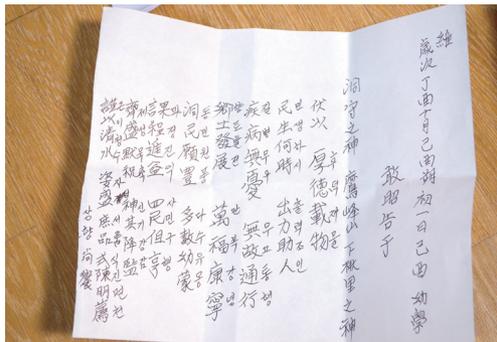
체험학교운영에 40여명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14년 4월말 현재 전년대비 3배 가까운 1억3,800만원의 매출기록했으며, 인건비, 숙박, 농산물판매 등 직간접 주민소득향상 효과

산촌마을 체험활동

1. 봄: 산나물채취, 손모내기, 농사체험, 얼음밀이
2. 여름: 생태관찰, 민물고기잡기, 농사체험, 계곡트랙킹, 내린천래프팅, 번지점프, 슬링샷, ATV, 아르고
3. 가을: 농사체험, 토종꿀채취, 버섯따기(송이, 느타리, 능이)
4. 겨울: 빙어낚시, 손두부만들기, 썰매타기, 얼음축구, 메주만들기, 조형물만들기

도리깨축제

2017 농림식품부 우수축제로 당당히 나서다. 2017년 11월 셋째 주인 18일 19일에 열린 도리깨축제의 축사에서 메인으로 올라온 말이다. 이날 하추리도리깨



도리개축제 프로그램2017

축제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가 분주하였다. 물론 오래 전부터 준비해 놓은 물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었다. 축제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2017 하추마을 제6회 도리개축제를 알리는 글귀와 프로그램이 세워져 있었다. 축제를 알리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하추리마을의 도리개축제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의 끝자락에서 긴 겨울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축제를 엽니다. 지난 봄과 여름, 한 해 동안 농부의 땀과 자연이 일궈낸 풍성한 수확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특히, 옛 탈곡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한 도리개마당놀이는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특색 있는 볼거리입니다. 저희 도리개마을 하추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축제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도리개축제 추진위원회-

그리고 그 옆에는 주요프로그램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었다. 09:30 감사마당 추수감사제, 10:20 거리마당 거리행진, 11:00 개막식 뽕포 및 내빈소개, 11:20 탈곡한마당 도리개마당놀이, 12:00 문화마당 각종공연, 13:00 놀이마당 고무신과 삼태기, 13:30 솜씨마당 장기자랑, 14:00 탈곡두마당 도리개마당놀이, 14:40 놀이마당 북북북남시, 15:00 솜씨마당 장기자랑

축제설치를 하는 걸 보면서 노인회관 쪽으로 갔다. 노인회관에 들어서자 하추리농악대가 연습한 박자 연습흔적이 칠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상쇠가 대원을



거리제



거리행진

테리고 연습을 한 것이다.

노인회관 부엌에서는 축제를 알리는 제의인 거리제를 지낼 제물 마련에 한창이었다. 아주머니들이 부엌을 드나들면서 제물을 마련하고, 사랑방에서는 축문을 잘 챙기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제의 준비가 끝나자 곧바로 누군가 마을입구로 가자고 했다. 마을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상을 펴고 진설을 했다. 입구에는 도리깨 축제를 알리는 표식이 세워져 있었다. 장승이 있는 바로 앞이었다. 장승은 버섯모양의 머리를 하고 하추리산촌대감과 하추리산촌대남이라고 썼다. 장승 옆에는 가족all來 하추마을의 상징물이 세워졌다. 가운데 아이를 두고 아빠 엄마가 서로 손을 잡고 있으며, 머리는 산모양이고 발 아래는 강물모양이다. 제상 진설이 끝났다. 제상에는 신위를 앞에 놓고, 양초 두 자루, 시루떡, 돼지머리, 물, 황태포, 약과, 과질, 다과, 대추, 밤, 사과, 배, 감, 제(막걸리), 향이 놓아졌다.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 노인회장이 제관이 되어서 제의가 진행되었다. 순서는 흥기대로였다. '고사의 진행절차'라 하여 1. 봉주취위, 2. 분향강신: 초헌자가 삼배할 때 흥



도리깨축제 식전행사

사자 모두 삼배한다. 3. 참신, 4. 초헌 첫잔, 5. 독축, 6. 아헌례 둘째 잔, 7. 종헌례 셋째 잔, 8. 망요례: 지방 축문을 붙을 붙여 하늘 높이 던져 올리면서 참석자 전원 큰 박수와 큰 소리로 만사형통을 기원한다. 9. 음복 순으로 하였다. 신위는 “下楸里 洞守之神 神位(하추리 동수지신 신위)”하여 하추리 마을을 지켜주신은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丁酉十月己酉朔 初一日己酉 幼學

敢昭告于

洞守之神 鷹峰山 下楸里之神

伏以 厚德載物 民生何時 出力助人 疾病無憂 無故通行 鄉土發展 萬福康寧
洞民願豐 多數幼蒙 課程進益 四民俱亨 齊盛默祝 神其降監 謹以清水 姿盛庶
品 式陳明薦

尙饗

유세차정유십월기유삭 초일일기유 유학

감소고우

동수지신 응봉산 하추리지신

복이 후덕재물 민생하시 출력조인 질병무우 무고통행 향토발전 만복강녕
동민원풍 다수유몽 과정진의 사민구형 제성묵축 신기강감 근이청수 자성서
품 식진명천

상향

세월이 지나 정유년 시월 초일일이 되었습니다. 유학 ○○○는 감히 신
령님께 알려 고합니다.

마을을 지켜주시는 신령인 매봉산 하추리 신령님께 엎드려 빕니다. 덕을
두텁게 하시고 재물을 실어주소서. 하추리 주민들이 어떤 때 어떤 일을 하더
라도 남의 도움이 있게 하시며, 질병의 근심이 없고 사고 없이 통행할 수 있
도록 하시며, 향토발전을 이루고 만복이 깃들여 강령하도록 하소서. 마을주
민들의 소원에 풍요롭게 하시며, 여러 어린아이들이 학업을 닦는데 이익이
있도록 하시며 하추리 주민 모두 누리게 하소서. 가지런히 재물을 마련하여
조용하게 비오니 신께서는 강림하셔 보옵소서. 삼가 맑은 물과 맵시 있고 무
성하게 여러 가지 제물을 제의를 올리려고 진설하고 밝게 천거합니다.

신께서는 제물을 받으소서.



도리깨질 소리 공연 1



도리깨질 소리 공연 2

제의가 끝나자 돌아가면서 음복을 하였다.

거리제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와서 조금 후 미리 준비한 트랙터와 깃발을 앞세우고 거리행진을 하여 축제장으로 들어왔다. 이어서 각 프로그램에 따라 축제가 진행되었다. 축제장 옆에는 먹거리와 각종 산물을 판매하였다.

이 축제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2017년에는 6번째였다. 2012년에는 축제 명칭이 ‘가족올래잡곡축제’이었는데 2015년부터 ‘가족올래 하추마을 도리깨축제’로 바뀌었다. 주민 69가구 215명(2016년 기준)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잔치마당이다. 도리깨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도리깨마당놀이는 2016년에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6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초청으로 6회에 걸쳐 공연을 하였다. 또 2017년 9월 8일에는 평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강원도민속예술대회에 참가하여 공연을 펼쳤다.



축제장 먹거리 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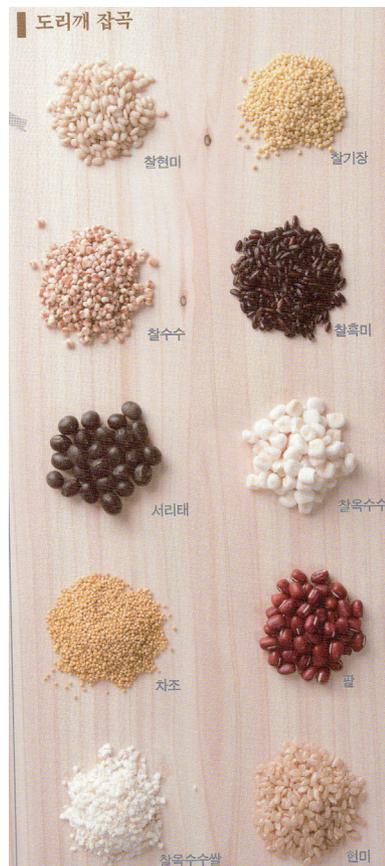
하추마을 도리깨 잡곡

하추마을은 잡곡을 직접 생산해서 수매를 하고 방아를 찧어 포장 판매를 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는 팸플릿에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남설악 기슭의 하늘내린 인제 청정지역 산촌마을 하추리 한계령의 맑은 물을 머금고 조합원의 땀방울로 빚어낸 맛과 품질이 우수한 착한 가격의 안심 먹거리라 했다. 그리고 최신도정시설을 말하고, 잡곡의 우수성과 맛있는 잡곡밥 짓기를 소개한다.

잡곡은 미네랄,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항산화활성이 우수하다. 그 외에도 혈당저하, 항염증 효과 등의 생리화성 효과도 밝혀지고 있어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소에 편중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운 현대인에게 매우 바람직한 곡식이다.

맛있는 잡곡밥 짓기는 1. 좋은 쌀과 잡곡을 고른다. 2. 잡곡과 쌀을 씻을 때 첫물은 빨리 헹궈 낸다. 3. 쌀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볍게 4,5회 씻는다. 4. 쌀밥보다 물을 1.3~1.5배로 조절한다. 5.(기호에 맞게)5~30분 정도 물린다. 6. 밥이 되는 시간은 34~36분. 7. 압력밥솥에서는 밥이 끓으면 10분 불을 끄고, 14분가량 뜸을 들인다. 8. 맛있는 잡곡밥을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가족all來 하추리 영농조합법인)





하추자연체험학교

하추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체험학교이다. 이를 소개하는 팸플릿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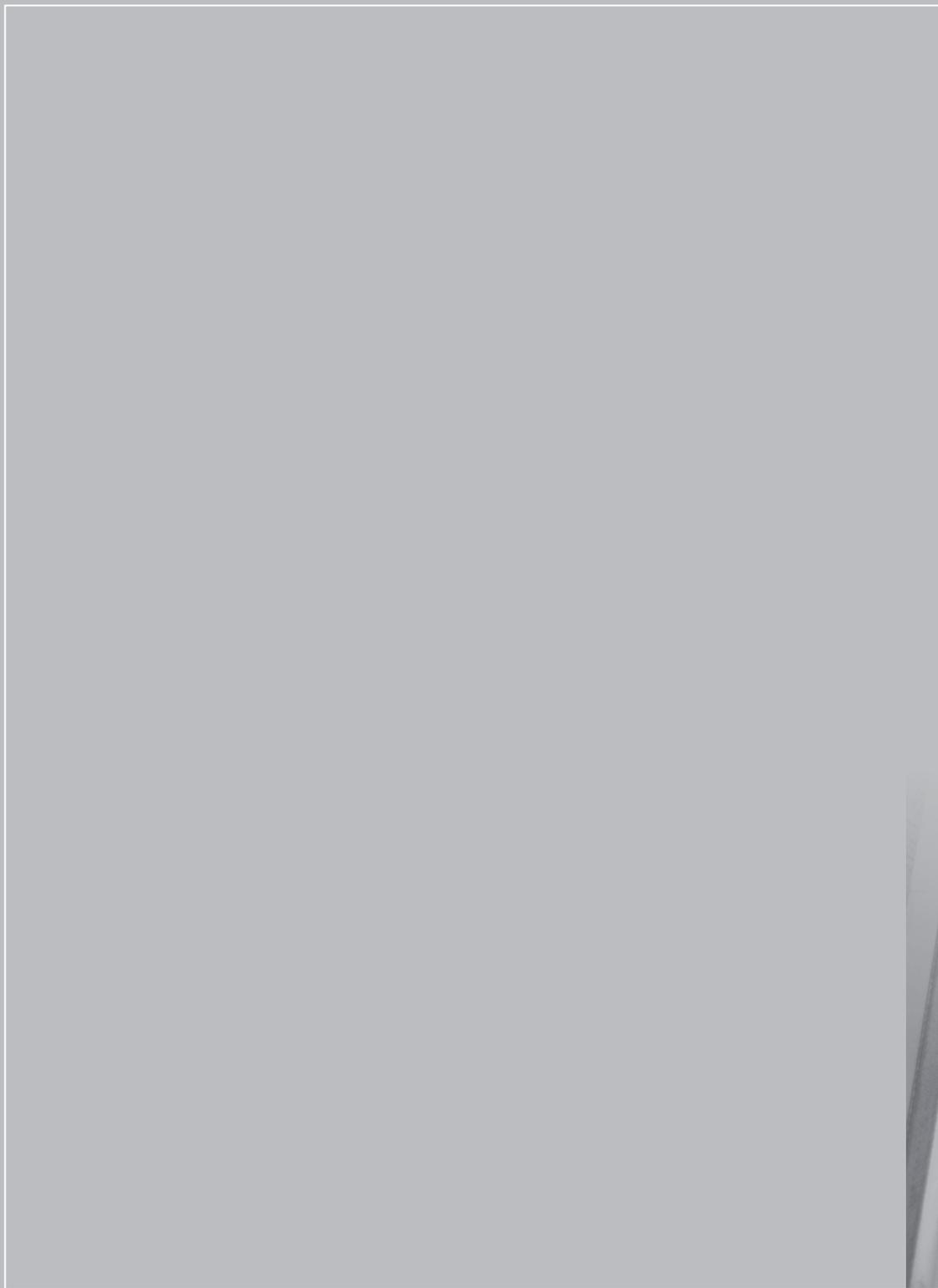
숙박시설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숙소로 1,2층 총 6개의 방으로 바닥식, 2층 침상식, 군내무반형 등으로 구성되어 각 방당 10~50명씩 총 120명 가량 동시 숙박이 가능하며, 남녀 구분 차단 문 및 각 방 앞마다 실내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 부속건물로 남녀화장실과 남녀샤워장이 있습니다. 또한 인솔자를 위한 교무, 교장 숙소 2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마을 식수로 쓰이는 800고지 청정수를 사용하는 수영장, 각종 교육을 위해 음향 및 빔프로젝트, 방문자용pc12대, 전자교탁이 완비된 60명 수용 가능한 세미나실, 80명 동시 식사가 가능한 식당, 음향, 조명, 노래방까지 가능한 야외공연장, 각종 체험을 위한 전용 체험장, 대형버스 및 승용차 주차와 캠프파이어 야외행사 운동경기가 가능한 1,2 운동장 등을 완비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에는 소원풍등날리기, 운무체험, 황토염색, 목공예, 손두부만들기, 자작나무숲걷기, 서든어택, 래프팅, 떡만들기, 버섯탕수만들기, 비누만들기, 운하수보기, 4륜오토바이, 짚와이어 등이 있다.(하추자연학교 팸플릿)

약초 캐기

약초는 주로 잔대와 삼추씩을 캐다. 약초를 캐서 약초상에 가져다 팔았다.



제8장
일생의례



제8장

일생의례

태처리

옛날에는 태를 그날 안 내가고 삼일 만에 내 갔다. 짚으로 싸서 토막이를 해서 뇌똥다가 3일 만에 내다 태운다. 그러면 그때 삼신에다가 미역국하고 밥하고 해서 물 한 그릇하고 해서 애 장수하게 키워 달라고 빌고는 그 밥을 애 엄마가 먹는다.

태를 태울 때는 나무를 쌓아놓고 그 꼭대기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웠다. 그걸 누가 훔쳐 가면 애가 길하지 않다고 해서 다 탈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태를 훔쳐 약을 하면 애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다 타고 나서 재까지 처리하였다. 옛날에야 그랬지. 지금이야 병원에다 내버리고 오는데 뭐가 문제가겠냐.



백일기념

서당속

마을밤나무에서는 서당이 열렸는데, 훈장어른이 이 동네에서 고개를 넘어 귀

둔리 쪽으로 가면 있는 마을에서 오신 분이였다. 훈장어른은 전문적으로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쳤다. 여름철이면 밤나무 가지 위에 원두막 식으로 나무를 가로지르고 그 위에 널빤지를 대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곳에는 마을사람들도 올라가서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서당도 열렸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한문 공부를 하였다. 아이들이 놀다가 훈장어른이 오면 막 뛰어가서 함께 공부를 하였다. 그때 훈장어른께서 밤나무 줄기에 한시를 써 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지워져서 볼 수가 없다. 보통 10여 명이 올라가서 앉을 수 있었다.

훈장어른은 당시 연세가 70이 넘었다. 공부하는 과목은 제일 먼저 천자문을 하였고, 다음은 무제시(無題詩)라고 해서 시를 공부하였고, 다음은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사서삼경 순으로 했다. 매년 서당이 열릴 때는 개접이라 해서 행사를 하고, 서당이 닫힐 때는 폐접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였다. 이때는 주로 국수를 놀러 먹었다. 책을 한 권 땔 때마다 책거리라고 해서 부모들이 한턱을 내었다. 이때는 국수를 놀리고, 떡을 하고, 막걸리를 해서 동네 노인들과 훈장어른께 드렸다. 국수는 보통 메밀국수였다.(제보자 박성기)

학교

학교 5학년 다니다가 말았어요. 졸업은 못 했어요. 5학년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망돼 가지고 집에서 살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학교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혼인례

결혼도 어려서 했어요. 철도 모르고 했어요, 부모네가 일찍 그렇게 주시데. 18살에 했어요.

할아버지는 가리산리에 살았어요. 그래 가리산리라는 동네로 시집을 갔어요. 꽃가마 타고요. 그쪽으로 시집을 갔다가 이리 하추리로 이사를 왔지요. 이웃은 아니고 중신으로 간 거지요.

중신은 이 동네 아저씨가 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로 또 와서 살게

됐어요. 친정 가까운 데로 왔지요. 옛날에는 일찍 갔어요. 연지 끈지 찍고 족두리 쓰고 가마타고 갔지요. 옛날에 나는 몸이 약했어요. 가마 안에 듣기는 소리가 “야, 가벼워서 좋다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마를 메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시아머니가 나오시지는 않고 가마가 집 안에 척 들어가니까 요 문턱에 문지방 넘어가는 곳에 바지를 얹어 놓았더라고. 박



바바지를. 그거를 밟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깨지지 않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깨지지 안 깨지겠어요. 그게 방법인지 그렇게 바지를 얹어 놓았더라고요.

결혼식은 여기 하추리에서 했지요. 할아버지가 가마 타고 와서요. 남자들도 가마 태워 와서. 갯봉지도 옛날에는 아주 장난 하느라고.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재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막 던지고 그러지요. 그래 재를 할아버지가 다 맞아서 하였지요. 다 맞았지요. 그래서 씻고 뭐 그랬어요.

초례는 상에다가 뭐 이렇게 차려놓고 맞절하고 그러지요.

사주도 가져와요. 사주는 결혼하기 전에 받지요. 함이라고, 그 동네사람이 그것도 팔자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뽑아 가지고 질빵 지워서 함 단지 지고 와서 방안에다 이렇게 상을 놓고. 그 상 위에다 떡시루해서 놓고 떡시루 위에다 함 단지를 올려요. 그리고 그걸 풀어 보던데요. 그 함에는 치마저고리 뭐 옷, 패물 그런 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꺼내면서 보는 거예요. 집안 친척들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받더라고요.

결혼식날은 집에 다 모이지요. 집에서 음식이랑 다 해가지고요. 결혼식도 집에서 하고요. 초례상에는 닭도 붙들어 놓고, 수탉 암탉 붙들어서 양쪽에다 놓고, 청실홍실 닭 목에다 이렇게 걸고, 그리고는 맞서서 이렇게 절을 해요. 절은 여자가 먼저 해요.

첫날밤은 족두리 벗기고 그러지요. 치마저고리 신랑이 다 풀어주고 그러지요.

장난 하느라고 문구멍 다 뚫어 보고요. 그래 들여다보고는 뭐 어떻게 벗겨라. 뭐 해라 그러고, 난리예요.

첫날밤에 머리맡에 상을 차려 놓더라고요. 밤, 대추 이런 걸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쌀 한 복지개 놓고, 밤, 대추만 차려놓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바로 시댁에 가서 잤어요. 그러고 삼일 만에 친정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 왔다가 또 갔지요. 친정에 오니까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새 사위 왔다고 하면서 장난 하느라고 커다란 멜빵으로 발목을 동여매고 막 두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색시 불러서 말리라고 해서 말리고요. 노래도 하라고 그러는데 노래를 할 줄 몰라서 노래는 안 했어요. 노래 잘 했으면 좀 했겠는데, 노래 못 한다고 안 했어요. 신랑 달 때는 먹을 것 내놓으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삼일 도배기하고 친정으로 왔다가 시댁으로 바로 갔지요. 뭐 바로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요. 나이가 어리니 가서 잘 할 줄도 몰랐지요. 열여덟 살에 가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지요. 지금은 나이 먹어서 가서 얼마나 잘 해요. 옛날에는 아궁이에다가 나무 때서 밥을 했어요. 물도 머리로 여다가요. 동이라고 요렇게 있는데 빠리 위에다 이고 다녔어요. 그래 시부모들이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아속

결혼한 지 일 년 후에 바로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애 낳고 나서 애들 아버지가 군인을 잤어요. 그때는 군 생활도 오래 했어요. 한 6년씩 그렇게 했어요. 첫 애를 낳고 군인을 갔으니, 나도 고생도 좀 했지요. 혼자 다 했으니까요.

애를 낳으니 할머니가 손주 배냇저고리를 해서 주더라고요. 안 버리는데. 이제는 버렸지요. 오십 년이 넘었는데요. 우리 손자 거는 다 간직하고 있어요. 옛날 누비포대기 이런 걸 다요. 우리 손자가 지금 31살 인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배냇저고리,



백일기념

포대기 뭐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네 것이라 했더니, 할머니 그걸 왜 안 없어요. 그래. 그래도 이걸 네 나중에 커서 보라고 놔뒀다고 그랬어요.

백일에는 뭐. 지금은 백일잔치도 하고 다 갖춰서 다 해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백일이 오나 안 오나 그저 돌 때나 어떻게 해주고 그랬어요. 백일은 그냥 넘 어갔지요.

돌 때는 거 수수 있잖아요. 수수경단하고 송편도 좀 하고요. 수수로 열 살까지 해주면 좋다고 그래서 열 살까지 해주고 그랬어요. 송편 해주고, 미역국 끓여 주고요.

생일마다 수수떡은 열 살까지 해줬어요. 열 살까지 수수떡을 해주면 살이 풀린대요. 그렇게 좋다고 해서요. 애들이 삼남매인데 다 해줬어요. 열 살 넘으면 생각나면 해주고 생각 안 나면 그만이고 그랬지요. 돌 때 삼신한테 미역국 끓여 놓고 빌지요. 첫 돌 때만 빌고 여느 때는 안 빌었어요.

수연례

환갑잔치요.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 할아버지는 환갑잔치 잘 차려 줬어요. 저는 애들이 와서 환갑잔치 한다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동네사람들 다 모이고 친척도 다 모이고 그래서 집에서 했어요. 동네사람들



회갑기념

와서 놓고 뭐 하루 종일 그랬어요. 돼지도 잡고요. 지금은 고기를 사오지만, 그때는 동네사람들 모여가지고 이틀사흘 먹으면서 돼지잡고 음식 만들고 하는 거지요. 그때가 좋기는 좋더라고요. 음식이며 모든 것을 집에서 다 했어요. 동네사람들 모여서 음식 해주는라 혼났지요. 지금은 뭐든 다 사오니 편한데, 집에서 하자면 힘들어요.

회혼례

재 결혼이요. 회혼식 그런 거는 여기서 못 본 것 같아요. 드레스 같은 것 입고 하면 보기 좋을 건데, 여기서는 못 봤어요.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것 보는데.

상장례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자밥을 해요. 사자밥은 메를 지어가지고, 사자 거(초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에 입는 것 하얀 적삼 이런 걸 지붕에 얹고. 지금은 다 지붕이 없지만, 그전에는 초가집이라고 짚으로 해 이었는데 거기서 올려 던지면서 부르는데, 사자 뭐 강원도면 강원도 뭐 처음서부터 그렇게 내리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북북북 하면서요. 그때 밥을 세 그릇, 무나물 세 접시. 그리고 여는 거는 없어요. 신발 짚세기 그런 거는 안 하던데요. 상은 안 해요. 그냥 밖에 내다놓고요. 상은 놓기는 놓았겠지요.

사자밥을 차릴 때 발자국이 그냥 남는 게 아니고, 뭐 시켜야 돼요. 뭐 새가 되면 새발자국처럼 하고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 거를 하면 그게 덜 좋다고 잘 안 하던데요. 뭐 새가 되어 가면 새발자국이 남는 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려면 남들이 주인 몰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소 쓸 때 상제들은 다 따라가요. 여자들도 다요. 산소에 가서 곡하고 울고 다 그래요. 상여 따라 다 가요. 산에 가서는 회다지를 하는데 그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윤옥순 제보)

혼인례

혼례 치르고 갈 때 가마타고 가잖아요. 이웃이니까 가서 자고 오지는 않잖아요. 거기 가서 초례 치르고. 신부는 신랑이 타고 온 가마를 타고 신랑은 걸어서 오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가마체에 옛날 청년들이 이웃집 총각이 우리 동네에 혼례 치르러 온다고 하면 잣봉지 있잖아요. 그걸 심하게 칠 때는 가마체에 매갈려 갖고 잣봉을 치려고 그러다보니까. 집어넣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마체가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부러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 다른 게 아니라 그전에 우리 마을에 그런 예가 있었다요. 알기로는 우리

마을에 친구 제일 큰 형이 ○○ 씨라고. 그 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80세가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일흔 대여섯 되셨을 분인데. 그 분이 그게 부러졌대요. 배나무 골 그쪽으로 처녀한테 혼례를 치르러 갔는데. 그쪽 총각들이 나와서 장난을 친 거지요. 그래 잣봉을 심하게 치려고 그러다가 가마채가. 인제 둘이 올라타다시피 하니까 똑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혼례는 치르고 와서 한두 달 정도 살다가 대처로 분가를 나갔어요. 신혼이니까 농사짓지 말고 대처 나가 살라고 나갔는데. 신혼생활 3~4개월 만에 객사를 했어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장가를 갈 때 가마채가 부러지면 안 좋다는 거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안 좋은 일의 징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장난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저희 형도 가마를 타고 그랬거든요. 그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지가,

“그 잣봉할 때 가마채 못 매달리게 해.”

그러셨어요. 그래 그게 재미었는데 매달리지는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멀리서 던지고 그런 것은 되지만 가마채에 매달리지는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마채가 부실하면 든든한 것으로 교체하라고 했어요.

갈 때는 신랑이 가마를 타고 가고, 올 때는 신부가 가마를 타고 와요. 신부가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신랑은 걸어오고요.

혼례복은 마을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마을에 혼례복을 갖고 있었어요.

상장례

상여집이 우리 마을에 있었지요. 있다가 지금은 없어지고요. 상여는 틀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요. 그 상여집이 있으면 무섭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해나면서 상여집이 떠내려가고 그랬지요. 그래 아예 없애고 이 마을회관에 보관하자. 그게 뭐 나쁜 거냐. 뭐 그랬어요.

저는 밤에 혼자서 거길 가도 별로 무서운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상여틀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작고하셔서 상여로 모셨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옛날 식으로 상여 메고 상을 치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여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그 김군호 친구가 상여소리를 잘 하잖아요.

회다지는 그 김군호 친구가 소리를 메겨요. 그 소리의 맥을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모여라 하면 우리가 다 달려들어서 하지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던 대로 따라하는 거지요. 강원도에서는 횡성분들이 잘 한다고 해서 그쪽의 관련된 분들이 와서 뭐라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풍속대로 하지요. 그걸 한 번에 못 고치잖아요.(김재노 제보)

훈인례

나야 뭐 열여덟 먹어 시집을 왔으니. 올해 일흔셋이요. 그래도 나보다 더 어리게 열여섯 먹어 시집 간 사람도 있고 열일곱 먹어 시집 간 사람도 있어요. 그때가 선달 초여드렛날이었어요. 결혼식 날이요. 아이고 그때 눈이 와 가지고요. 그때는 그래도 쓰리퀴터 타고 왔는데요. 가마 타고 양은이고개까지 와서 여기를 메고 올 수 없으니까 쓰리퀴터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마당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시집왔던 자리 그대로 살아요. 아이고 그때는 집에서 국수를 눌렀잖아요. 메밀쌀을 두 가마씩 디딜방아에 찼어 국수를 눌렀으니, 얼마나 뜨거워 죽겠는지요. 그 진편으로 조카딸이 앉았는데, 나이는 나보다 많아도. 거 뜨겁냐고 손도 한 번 안 들여 보더라고요. 이 아랫목에 앉아서 뜨거워 죽을 뻔 했어요. 불은 계속 때지. 색시가 앉았는데 뭐 얘기만 하고 만져 보지 않아서 뜨거워 혼났어요.

첫날밤은 진동에서 신랑이 와서 자고요. 사랑방에서 자고 날 데리고 오는 거지요. 옛날에는 다 색시집 가서 하룻밤 자고 오지요. 사랑방에서 새손하고 그렇게 자고 데리고 오는 거지요.

바가지는 시어머니가 깨는 게 아니라, 신랑이 색시집에 들어올 때 신랑이 밝아 깨지요. 신부가 밝아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구먼. 그러면 살이 없어진다고 살을 깨부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날 데리러 올적에 췌지요.

큰상 차려서 가져왔을 때 밤 대추 뭐 이런 거 첫날 저녁에 먹으라고 친정에서 상을 차릴 때 주더라고. 그걸 먹으면 아들딸 많이 낳는다고요. 그래 잘 살지도 못했는데, 이불 같은 걸 안 해 가니 신랑집에서 한 벌 해주니 그냥 그거 덮으면 되

고. 그래도 큰상을 차려 줘야 신랑이 낮이 난다고 큰상을 차려주면서 광주리에 몇 개씩 싸서 떡을 보내면서 이불을 안 해 줬어요. 그래 신랑이 이불을 해 준 것을 덮고 살았지요. 그래 가지고 새손들이 일곱 여덟 명이 오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가



초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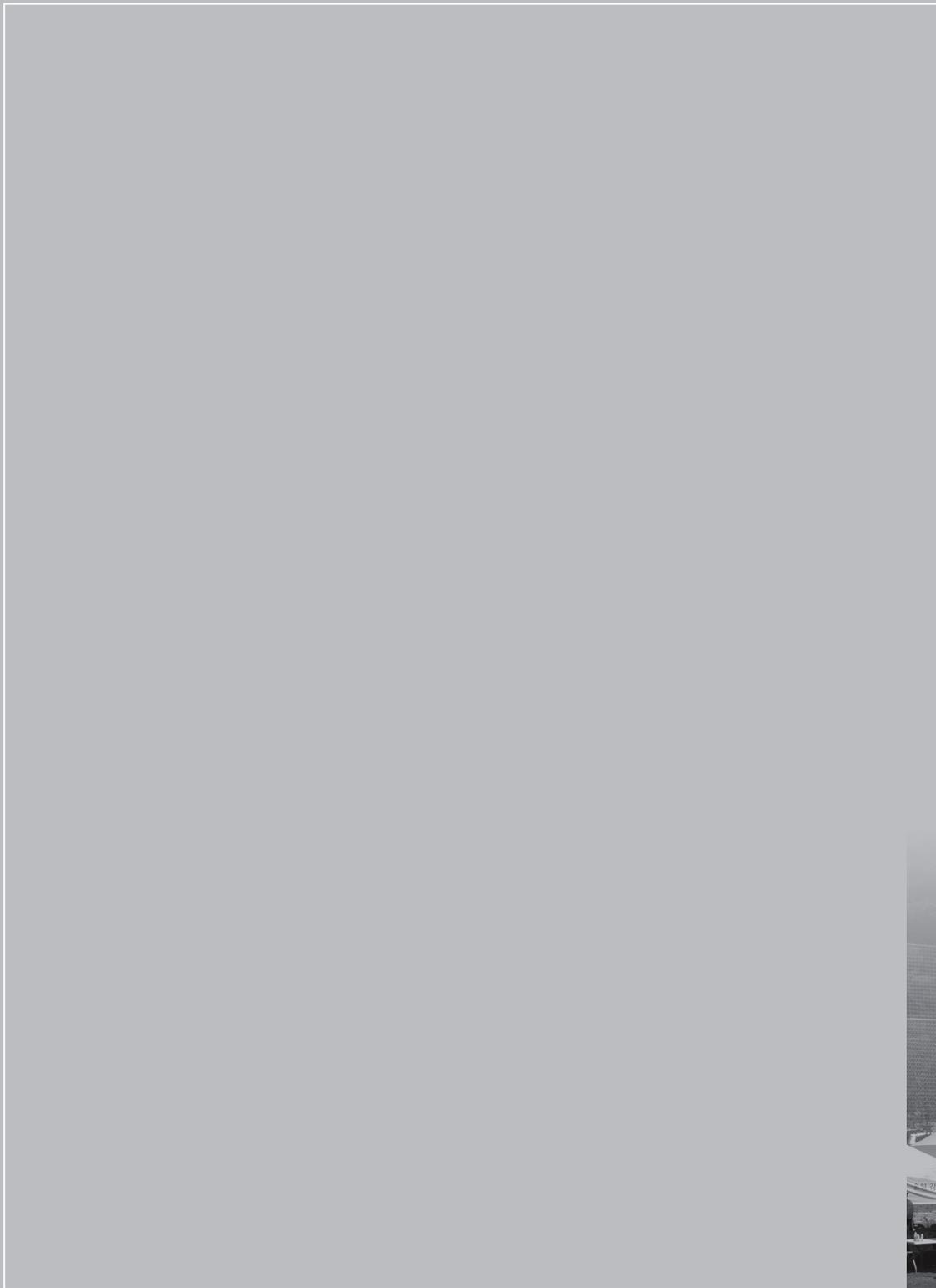
느라고요. 그리고 상각 하나 오지 뭐. 그러니 여럿이 다녔지요 뭐.

함도 받았지요. 함은 그전에는 비로도 치마저고리 세벌 싹 해서 함에다 싸가지고 왔어요. 함을 받을 때 떡 시루가 아니라 물을 떠놓았어요. 거기서 전안하고 하룻밤 자고 바로 왔지요. 그 이튿날 아침에 밥 먹고 바로 왔지요.

신랑은 약혼할 때 왔어요. 그때는 중매가 두 군데서 떨어졌대요. 해안에서 떨어지고 나한테서 떨어지고요. 그래 가차운 데부터 갔다 와서 맘이 없으면 그냥 돌아와서 해안으로 간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자고 안 오더라나. 그래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야가 맘이 드는 게 보구나. 안 오는 것 보니. 하하. 그래 가지고 술을 잘 먹었는데. 복판 방에 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해 줬어요. 그래 선반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못 잡수니. 선물이 들어온 것을 집에 가득 두었잖아요. 그걸 먹고 싶어 복을 뻥 했다잖아요. 그래 저걸 달라고 하면 딸을 안 줄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앞에 두고 못 먹어서 죽을 뻥 했대요. 술을 꽤 좋아했어요.

수연례

환갑잔치는 그냥 동네 사람들 불러서 하고 그랬지요. 옛날에는 그것도 돈 받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옷 섬이라도 해주고 그랬지요. 지금은 환갑잔치는 안 하잖아요. 칠순을 하든가 그러지 환갑은 안 하지. 옛날에는 부주 받고 돈 받고 그랬지요. 그렇게 많이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칠순은 하지요.(박광순 제보)



제9장 민속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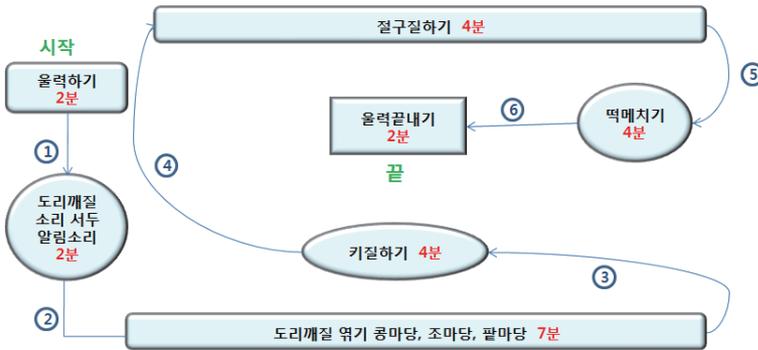


제9장

민속놀이

인제 하추리 도리깨질소리

2017 강원도민속경연대회 출품, 평창 용평면 공설운동장에서 공연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리깨질소리

하추리도리깨축제는 잡곡축제를 생각하다가 영감을 얻어서 시작하였다. 추수를 할 때 잡곡은 대부분 도리깨로 털기 때문이다.

도리깨놀이를 할 때 소리에 회다지소리가 가미되어 나타난다. 이는 하추리도리깨소리가 만들어진 배경 때문이다. 농촌의 애환을 공동체로 풀어내는 방식이다. 곧, 농사를 지어서 놓았는데 늙은 부모만 남기도 자식이 사고로 죽었다. 이에 타작할 때가 되었으나 노부부는 힘이 없어 탈리 방법이 없었다. 동네 청년들은 그 집의 사정을 미리 알고 울력을 해서 타작을 도왔다. 이에 노부부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먼저 간 자식을 떠올려 더욱 슬펐다. 이런 사연을 소리로 승화시켜 소리로 부른 것이 도리깨질 소리이다.

과정은 도리깨, 키질, 절구질, 떡메, 먹기(대동놀이) 순으로 진행된다. 방법은 50명 정도가 도리깨질을 하고, 사물팀 10명, 키질, 절구질, 떡메질로 이어진다.

마을에 윤길용이란 도리깨질소리의 보유자가 있었는데 작고를 했다. 이에 30세 때부터 도리깨질소리를 윤길용 씨와 함께 하던 김군호 씨가 이를 이어 받았다. 이들은 마을의 상이 났을 때는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앞소리 뒷소리를 이어서 선후창으로 이어받는 소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평창에서 2017년 9월에 열린 강원도 민속예술대회에서 출품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유래

하추리에서 마을청년들이 죽은 아들을 대신해 노부부를 도와 울력할 때 부르던 소리 -

하추리는 강원도의 전형적인 산촌이다. 산촌 하추리는 대대로 산에 의지해서 잡곡을 심어 먹고 살았다. 1970년대 화전정리 전까지는 화전이 마을의 유일한 생산터전이었다. 험악한 산중에 살다보니, 마을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해야 했다. 울력이 발달한 원인도 마을의 지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추리 사람들은 산촌에서 힘든 일을 공동으로 하다 보니, 그에 어울리는 나름

의 소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소리꾼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 중 근대에는 이미 작고한 소리꾼 조동빈(1950년대 작고) 씨가 있었고, 조동빈 씨를 이어 윤길용(1990년대 초 작고) 씨가 있었다. 이 분들은 마을의 모든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소리를 했다. 상여소리, 회다지소리와 같은 의식요, 도리깨질소리와 같은 노동요, 타령조의 유희요 등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이런 소리를 윤길용 씨는 당시 30대인 김군호(남, 59, 2017년) 씨에게 전수를 하였다.

그런데 도리깨질소리는 고 윤길용 씨가 이 소리를 전수하면서 선대부터 들었던 유래를 마을사람들에게 말했다. 유래의 요지는 이렇다. 하추리에 옛날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화전을 해놓고 거두지 못하고 석이를 따다가 죽었다. 노부부는 겨울이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데도 거두미를 못했다. 이를 본 마을 청년들이 울력으로 노부부의 추수를 해주었는데, 그때 젊은 아들의 영혼을 달래며 회다지조로 도리깨질소리를 하며 타작을 해주었다.

이 노래가 지금까지 마을에 전승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마을축제인 ‘도리깨축제’ 때 공연하며, 자매결연 지역 서울 송파구에서도 출장 공연을 했다.



2017 강원도민속예술축제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특색

- 의식요[회다지소리]와 노동요[타작소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애절한 곡조의 소리마당극-

인제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는 내설악 한계령 끝자락으로 이어지는 산중마을 하추리 일대에서 부르던 노동요(勞動謠)이다. 자식을 잃은 노부부를 도와 울력으로 곡식을 털며 슬픔을 달래던 이 고장 특유의 소리와 절차이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회다지곡조의 리듬으로 불리다가 유희요조로 바뀌어 부른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는 화전민들의 애환과 울력의 마을공동체의식이 담긴 절차로 진행 된다. 노동력을 상실한 이웃을 자발적으로 도우며 마을축제적 성격의 노동집약을 보여주는 소리의 형태를 취한다. 이 때문에 도리깨질소리는 도리깨로 곡식을 터는 소리를 시작으로, 턴 곡식을 키질하는 소리, 키질로 정제한 곡식을 절구로 찜는 소리, 이웃에서 떡을 해와 함께 나눠 먹으며, 자식을 잃어 노동력을 상실한 노부부의 슬픔을 달래서 마을의 노동축제로 승화 시켜 나가는 소리로 이어진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 사설은 회다지곡조의 애절한 노동요로 자식을 잃은 노인을 위로하고,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참의미를 담고 있다.

◇ 발굴 및 재연

- 원래 마을에서 불리어지던 소리를 마을사람들이 ‘도리깨축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리마당극 -

고증: 마을에서 전승되는 소리로 하추리의 소리꾼 고 윤길용의 구술

소리꾼: 고 윤길용 씨로부터 사사 받은 김군호(남, 59) 소리꾼

연출 및 감독: 박재균(하추리 구 이장), 최윤필(국민대통합아리랑)

시나리오 구성: 2012년 도리깨축제(하추리마을축제) 때 재연 시작. 박재균(하추리 구 이장), 김재노(이장), 김군호(하추리 소리꾼), 박봉수(하추리 정보사무장), 강성애(하추리 체험사무장)

시나리오 정리: 이학주(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 구성

시간: 25분

장소: 집 마당

출연인원: 57명(백의조와 홍의조, 키질, 빗질, 절구질, 떡메질, 도리깨질 등)

소리: 앞소리/뒷소리(선후창)

◇ 놀이마당 시나리오

준비마당 ⇒ 도리깨질소리공연 준비

- 도리깨질소리 기본 소품을 소리마당극에 이어 먼저 설치한다.

첫째마당 ⇒ 노부부 타작, 마을 청년들 입장으로 울력 시작

- 노부부가 굵은 허리로 마당에 들어와서 작대기로 콩을 툐다. 최대한 긴장감과 적막감을 준다.

- 노부부가 콩을 툐고 조금 후, 선소리꾼(마을 청년대표)이 마을청년들을 모아 노부부 집의 울력을 하자고 사설을 한다.

(마을사람 여러분! 돌쇠가 지난여름에 매봉산에서 석이를 따다가 낙상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은 추워지는데 돌쇠 부모님이 힘이 없어 콩마당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돌쇠네 콩마당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 마을청년들은 모두 좋다고 소리치고, 마당으로 들어간다.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라는 소리제목 깃발을 앞세워 입장을 한다.

- 〈농자천하지대본〉과 〈인제 도리깨마을 하추리〉 등의 깃발과 출연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소품을 들고 입장을 한다.

- 이때 선소리꾼이 돌쇠 부모님께 마을사람들이 콩마당을 한다고 사설을 한다.

(돌쇠 부모님 돌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들이 울력으로 콩마당을 해드릴 테니, 이제 쉬세요.)

- 돌쇠 부모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당에서 퇴장을 한다.

둘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시작, 콩마당, 팥마당, 수수마당, 조마당

- 소리마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구성원은 크게 후렴을 외친다. 선소리꾼이 도리깨질소리를 하면서 각 마당에 대한 신호를 주므로 이를 잘 따른다.
- 콩마당을 시작하면, 흥의조와 백의조는 마주서서 도리깨질을 제자리에서 좌우로 이어간다. 콩마당이 끝났다는 선소리꾼의 신호에 따라 도리깨질을 하던 사람들 도리깨를 돌리며 환호한다. 콩마당이 끝나면 비질을 빨리 진행한다. 징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넘어간다.
-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팔마당, 수수마당, 조마당을 한다. 도리깨질은 좌우에서, 앞뒤로, 그리고 옆으로 치기를 한다.

셋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키질로 이어짐, 키질마당

- 선소리꾼이 소리로 마당이 바뀌는 장면임을 알린다.
-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서 도리깨로 툇 곡식을 키질로 까불어서 낱알을 낸다.
- 도리깨질을 하는 사람은 도리깨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키질 장면을 돕는다.
- 기수와 농악대는 같이 돌며 흥을 돋운다.

넷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절구질로 이어짐, 절구질마당

- 선소리꾼이 소리로 마당이 바뀌는 장면임을 알린다.
-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서 절구질을 해서 곡식가루를 낸다.
- 도리깨질을 하는 사람은 역시 도리깨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절구질 장면을 돕는다.
- 기수와 농악대는 같이 돌며 흥을 돋운다.

다섯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떡메질로 이어짐, 떡메마당

- 선소리꾼이 소리로 마당이 바뀌는 장면임을 알린다.
-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든다.
- 돌쇠 부모님은 떡을 마을사람들에게 돌리면서 고마움을 표한다.
- 기수와 농악대는 같이 돌며 흥을 돋운다.

마무리마당 ⇒ 길놀이 퇴장, 흥겨운 잔치마당

- 선소리꾼이 마을사람들에게 울력을 하느라 고생했음을 소리로 알린다.
- 참가자 모두 끝까지 후렴을 큰 소리로 한다.
- 농악을 신나게 울리면서 마을사람 모두 신나게 춤을 춘다.
- 퇴장을 하고, 이어서 흩어진 소품을 챙긴다.

◇ 도리깨질소리 사설

- 소리사설이 도리깨질이 끝날 때까지 이어짐으로 상당히 길게 불러짐. 소리내용은 고정되어 있으나 내용 자체가 일꾼들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이 많이 적용된 상황임 -

에허어라 당쇠. 에허어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콩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가지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놓고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노당쇠님. 힘을 내어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김군호 소리꾼

여보세요. 김당쇠님. 좌우연계를 넘어가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콩을 까붙어 물에 불려. 에루화라 당쇠.
 삶은 콩을 메주 쭈어.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고추장 담가 먹어본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박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네 힘을 빌어 콩마당을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에 늘어서면 저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저기 저 당쇠 무얼 하나.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조마당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네 힘을 내어. 조마당을 때려놓고.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이 여기 오서. 조마당을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조마당을 때린 뒤에 까붙어 날려 씻은 조를 인절미를 빚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요 마당은 팔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팔마당을 때려날려. 에루화라 당쇠.
 동지선달 기나긴 밤을.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팔죽을 쭈어 모아놓고 이웃사촌과 나눠보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어서 빨리 때리다가.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앞을 보고 들어가요.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정리마당.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때려 얹어 뒤집어 놓고.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저당쇠님. 좌우행렬을 뒤집어 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오늘 같이 좋은 날 언제 언제 또 있을까. 에루화라 당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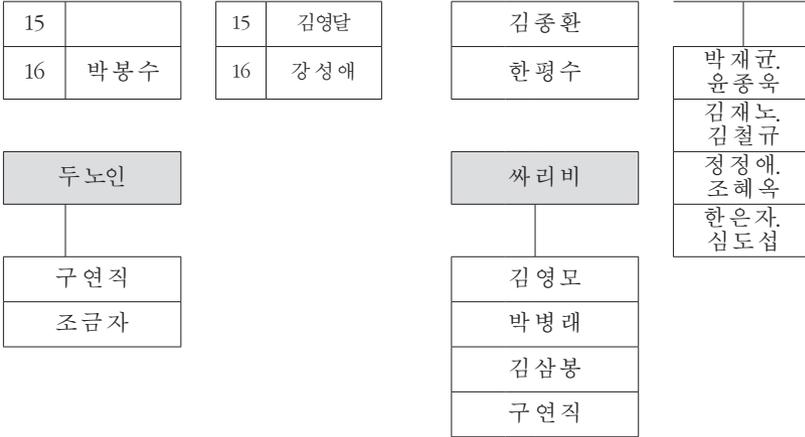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오늘 날이 또 있을 꺼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강원도라 인제군에 이다지도 깊은 산중에 오늘 같이 여러분이
 고이고이 살고 있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오늘 행렬을 보고 갈제.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대한민국 강원도에 인제군이 뚝 떨어졌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진행사가 어딜 갔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이번 마당은 키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심당쇠님. 고이 이쁘게 까불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경당쇠님. 고이 이쁘게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고이 이쁘게 까불어주소. 절구질로 넘어간다.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박당쇠님. 수수방아를 찧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임당쇠님. 수수방아를 찧어 봅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당쇠님. 김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당쇠야. 저당쇠야. 우리 실킨 놓고 갑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김당쇠님. 떡을 쳐서 인절미를.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떡을 쳐요. 떡을 쳐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인절미를 떡을 쳐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에허야 당쇠야. 때리고 부수고 놀아보세.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여보시오. 박당쇠님. 소리로 놀아봅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후렴의 당쇠: 마당쇠의 준말로 사용한다. 원래는 회다지소리에서 불리던
 ‘에허어라 달호’에서 도리깨질소리로 바뀌면서 ‘에루화라 당쇠’로 후렴이 변
 했다. 첫 소리에서 나오는 후렴과 뒤의 후렴이 다른 원인이다.
 (김군호(남, 59) 소리. 2016년. 인제읍 하추리 싸리목길 42)

◇ 참가자 명단

- 참가자 모두 하추리사람들로 구성 됨. 시나리오 구성, 연출, 조직 등이 모두 하추리사람들에 의해 이뤄짐 -





참가 인원 : 57명

◇ 도리깨질소리에 얽힌 이야기

- 하추리 토박이 고 윤길용 소리꾼의 구술로 작성된 이야기 임 -

조선조 때였다. 하추리에는 마을 일이면 빠지지 않고 내 일처럼 하던 박 씨 부부가 열아홉 장성한 아들 돌쇠와 같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 집이지만 늘 서로를 위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랑은 누구 못지않았다. 자신이 굶는 것은 대수롭지 않으나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 뭐든 지 주었다.

돌쇠는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 때가 되자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빨리 돈을 모아 장가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서였다. 돌쇠는 집안이 가난해서 논밭이 없는 터라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남의 허드렛일을 해주며 살았다. 그러다가 마침 그해는 화전을 일구어서 콩과 메밀과 팥과 수수를 많이 심었다. 곡식이 자라는 모습에 늘 흡족해 하며 돌쇠는 밤낮을 모르고 일을 했다.

어느덧 하지가 지나고 비가 촉촉하게 내린 하추리 매봉산에는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석이버섯이 곱게 피어났다. 돌쇠는 크기도 크러니와 모양도 좋아서 절벽에 피어난 석이를 따면 꽤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매봉산에 올라서 석이버섯을 따올 게요.”

“얘야, 조심 하거라.”

“매일 가던 곳인데요 뭐. 다녀오겠습니다.”



2017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뒤풀이 점심 장면

돌쇠는 부모님에게 석이버섯을 따러 오겠다고 하고 매봉산으로 향했다. 돌쇠는 석이버섯을 많이 따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생각을 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장비를 챙겨두고 흥얼대며 매봉산으로 향했다. 매봉산 절벽에는 석이버섯이 새까맣게 붙어 있었다.

“빨리 따서 가야겠다.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텐데.”

돌쇠는 밧줄을 절벽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매고 망태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밧줄을 풀며 아래로 내려갔다. 생각보다 석이버섯은 많았다. 돌쇠는 신이 나서 밧줄을 잡고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석이버섯을 따다. 그때였다.

“툭!”

밧줄이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걸려 움직이면서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다. 석이버섯을 더 따려고 여러 곳에 옮겨 다닌 것이 화근이 되었다. 밧줄은 금방 터지고 말았다. 돌쇠는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박 씨 부부는 순식간에 다 키운 아들을 잃고 말았다. 열아홉 젊은 청년은 장가도 들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찌나? 아이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하늘은 참 무심도 하시지.”

줄지에 아들을 잃은 박 씨 부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하루 이틀이 가고 몇 달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박 씨 부부는 사는 재미가 없이 매일 슬픔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덧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와서 추수를 할 시기가 되었다. 하추리 산골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싸늘한 가을이 다가왔다. 짐짐마다 논밭에 널려 있던 곡식을 거두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때였다. 돌쇠와 친구인 김수기가 동네사람들에게 의견을 내었다.

“내일 돌쇠네 화전밭 울력을 하면 어떨겠소?”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심전심이었다고나 할까. 김수기의 말 한마디에 아침 이른 시간에 동네 젊은이들은 박 씨 부부의 아들 돌쇠가 심어놓은 화전에 오른 것이다. 울력을 할 참이었다.

“여보게들, 우리가 마음이 통했나 보네. 힘껏 베어서 지고 가세.”

마을의 젊은이들은 저마다 콩과 메밀과 팔과 수수를 베어서 지게에 짊어졌다. 돌쇠의 부모가 살고 있는 마당에는 금방 나락으로 가득했다. 젊은이들은 콩을 널어놓고 도리깨질을 했다. 그때였다. 동네에서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잘 하는 소리꾼 김 노인의 소리가 시작되었다.

“에허어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슬픈 노랫가락이 흥겨움을 더하여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도리깨질을 하던 사람들은 김 노인의 소리에 맞춰 후렴을 하면서 더욱 힘차게 콩을 털었다.

“이 마당은 콩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가지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놓고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

도리깨질에 맞추어서 소리는 이어졌다. 박 씨 부부는 슬픈 회다지곡조로 흘러나오는 도리깨질소리를 들으며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상패

그날 동네 아낙들은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울력을 하는 젊은이들과 박 씨 부부에게 주어 나누어 먹었다. 그 후 하추리에는 울력의 전통이 이어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공동체가 전승되고 있다.(이학주 정리, <하추리의 울력전설>)

공기놀이

5개의 공기돌을 가지고 하나부터 다섯 개를 올려 숫자로 내기를 하는 게임이다. 게임방법이 아주 많다.

그네

단옷날에 뛰는 놀이이다. 마을 앞 밤나무에 매어놓고 뒀다. 그네는 힘도 있어야 하고 요령도 있어야 한다. 잘 타는 사람은 입으로 나뭇잎도 탄다.

널뛰기

널판을 놓고 양쪽에서 뛰어 노는 놀이이다.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농상기놀이

다른 곳은 하는 것 같은데 하추리에서는 하는 걸 보지 못했다.

먹자치기

선을 그어놓고 하는 놀이이다. 주로 여자들이 하는 놀이이다.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비석은 세워놓은 돌을 넘어트리면 이긴다. 손부터 머리 어깨로 해서 발등까지 내려가면서 던진다. 편을 갈라서 한다.

얼음썰매

눈썰매는 겨울에 비료포대를 들고 올라가서 탄다. 강에 얼음이 얼면 탈것을 만

들어서 얼음썰매를 탔다. 나무 끝에다가 대못을 박아 얼음을 지친다.

연날리기

여기 하추리는 골이 깊어서 연날리기에 적당하지 않다. 연을 날리기는 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주로 꼬리연을 날렸다.

자치기

아이들 놀이로 자치기를 주로 했다. 자와 메뚜기를 만들어서 치는 놀이이다. 쳐서 자로 채서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긴다. 튀길 때 상대가 앞에 있다가 잡으면 아 웃이다. 잡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친다.

찜뽕

지금으로 말하면 야구이다. 연공(부드러운 공)을 손으로 쳐서 찜수를 낸다.

진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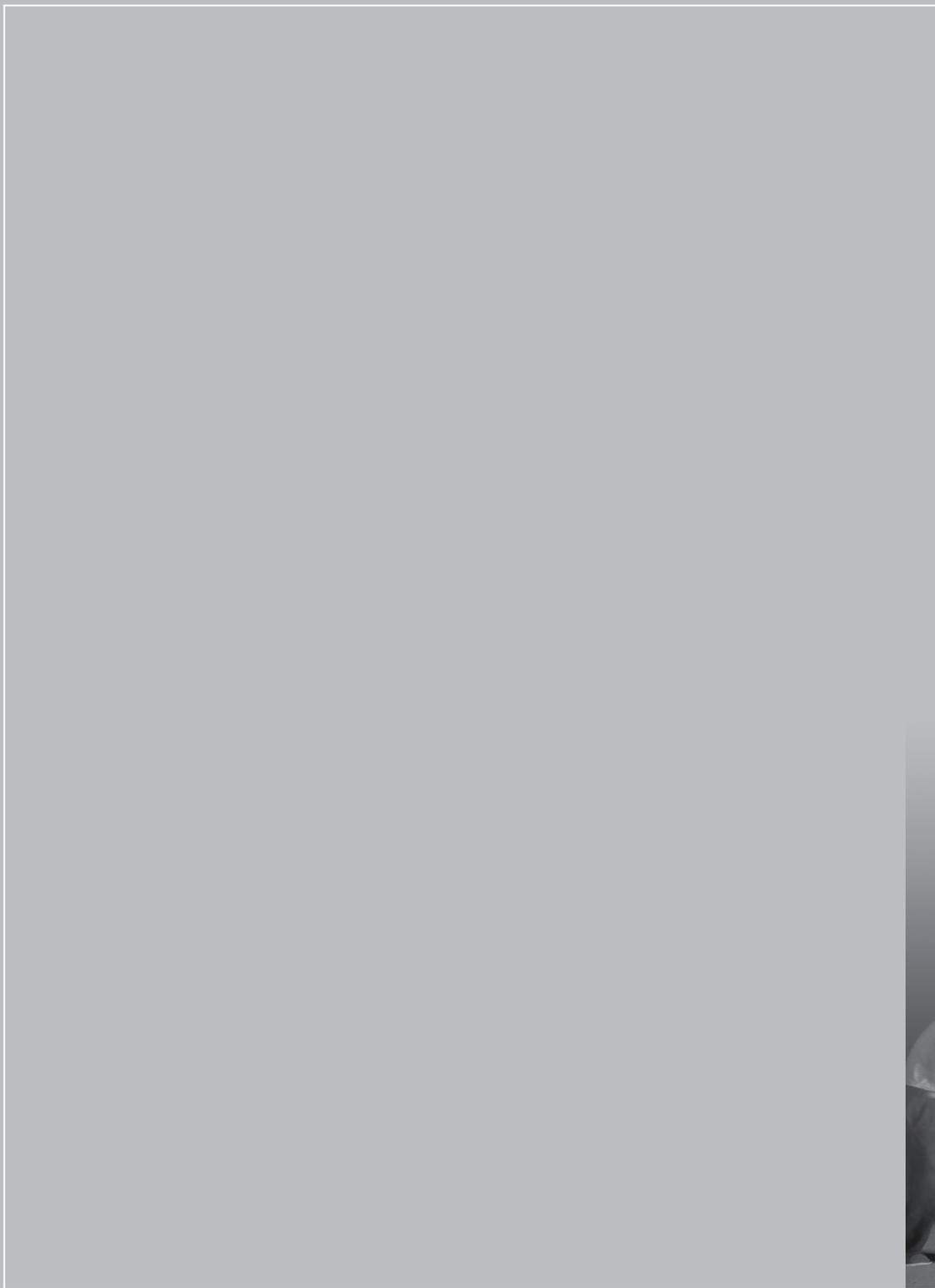
그림(선)을 그려놓고 상대방을 밀어내서 진을 뺀 게임이다. 상대방을 다 밀어낼 때까지 게임이 진행된다.

투전

투전은 진목, 화투 등이 있다. 진목은 한 뺨 정도의 막대를 깎아 숫자를 써서 한다. 일본애들은 비슷한 것으로 조이라는 게 있었다. 끝수 높은 사람이 이긴다. 수가 여러 개인데 기술자는 다르다. 동네에 진목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투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없다. 다들 안 사람들 고생만 시켰다. 투전을 하면 고생만 한다. 소 팔아먹고 땅 문서 가져다가 다 잃고 한다.

호미씻이

농사일을 하다가 김을 다 매면 하는 놀이이다.
(박성기 제보)



제10장
민간요법



민간요법

감기

옛날에는 감기는 따로 약도 안 썼다.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파뿌리를 삶아서 물을 먹었다. 꿀물을 타서 먹기도 했다. 파리를 베서 쪽 걸어놨다가 꼬들꼬들하게 말린 것을 삶아 물을 먹었다. 감기로 목이 아플 때 파리를 먹는다. 봉나무 봉탱이라고 벌레집이 있는데 그걸 따다가 삶아 먹었다. 봉나무 열매는 두부를 만들 때 간수로 쓰기도 했다. 옛날에는 간수가 귀해서 봉나무 열매로 대응했다. 소금이 귀할 때라 봉나무 열매를 썼다. 봉나무 봉탱이는 벌레가 집을 지어서 만드는 것인데 원래 한약재로 쓰인다. 봉탱이는 잎사귀에 달린다. 옛날에는 한약방에서 봉탱이를 사갔다.

귀신가두기

귀신가두기는 경을 읽으면서 한다. 음나무를 잘라서 나무토막을 만들어 구멍을 판다. 구멍은 5개나 7개를 판다. 그릇에 콩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대를 받아서 막 하다가, 콩을 구멍에 넣고 이어서 한지를 나무토막에 뚫은 구멍에 넣고 구멍을 재떡으로 꼭 막는다. 그런 후 새끼줄로 묶는다. 그리고 삼거리에 가서 땅을 파고 묻었다. 삼거리에 묻는 것은 사람이 많이 밟아야 귀신이 못 나온다고 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아픈 사람의 병이 낫기는 했다. 재떡은 아궁이에 불을 때고 남은 재를 물에 개서 만든 떡이다.

경기

아이들이 경기를 해서 쓰러지면 바늘로 손가락을 땀다. 검지, 중지, 약지 등의 손가락 가운데 파랗게 힘줄이 돋은 곳을 땀다. 침을 놓아 물을 빼면 노란 물이 나왔다. 이걸 바람침이라 한다. 그렇게 우리 애들을 침을 놓아 고쳤는데, 글썄 동네에서 아이가 경기를 하니까 침을 놓아 달라고 데리고 왔다. 그래 내 아이니까 침을 놓았지 난 남을 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잘 놓는데 뭐가 안 되냐고 했다. 그래 침을 놓았더니 나왔다. 그래 나중에 고맙다고 양말을 선물로 가져왔다. 애들이 경기가 들었을 때 여기 손가락을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다. 그래서 손가락 중간을 따면 새카만 피가 돈다. 우리 아버지가 경기한 애들을 그렇게 땀는데, 내가 어려서 보고는 우리 애들이 아프니 급해서 그렇게 했다. 옛날엔 애들이 경기를 많이 했다. 그것도 먹는 게 없어서 그랬을 거다.

또 벽에 있는 진흙가루를 긁어서 물에 타 먹었다.

많이 놀라서 경기를 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복술이를 불리서 귀신잡이도 하였다.

골절

부목을 했다. 버드나무를 꺾어서 양쪽에 대고 묶는다. 옛날에 손가락에 뼈가 으스러져서 버드나무 부목을 하였다. 아물면서 기형이 되어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게 와서 고칠 수 없다고 했다. 뼈를 제대로 맞춰야 하는데 어긋난 대로 아물어서 기형이 된 것이다.

귀신방애

집안에다 엄나무를 걸어두었다. 가시가 크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새로 집을 지으면 심기도 하고 걸기도 하였다.

참두릅보다 엄나무 두릅이 맛이 더 좋아서 집안에 많이 심는다. 닭백숙 할 때도 같이 넣어 삶는다.

귓병

귀에 고름이 생겨 밖으로 흘러나오면 하는 방법이다. 대파에 살아있는 지렁이

를 넣어두면 지렁이가 녹아 물이 되어 나온다. 이 물을 귀에 흘려 넣으면 고름이 멈추고 아픈 귀가 낫는다.(박성기(남, 88))

귀에 물이 들어가면 귀젓이 자꾸 나오고 약을 넣어도 안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대파를 잘라서 지렁이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안에다 넣는다. 그리고 위를 묶는다. 그렇게 두고 하룻밤만 있으면 지렁이가 녹아 물이 된다. 그 물을 귀에다 넣으면 다른 약으로 고치지 못하던 것도 다 낫는다. 우리 삼촌이 저 원통에 있는데, 그 삼촌이 어려서부터 매일 귀젓이 이렇게 흘렀다. 그런데 그거를 했는데 그만 딱 떨어졌다. 그래서 그게 맞는다는 거를 안다. 귀젓은 귀에서 고름 같은 게 흘러냄새도 나고 그러는 증상이다. 그제 물이 들어가서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다. 어려서 그랬는데 총각이 될 때까지 냄새를 풍기며 고름이 나왔다. 그런데 지렁이 물을 넣고 나니 딱 떨어져서 나왔다.

눈병

눈에 삼이 서면 삼잡이를 하였다. 삼이 서면 눈이 새빨개진다. 사람 얼굴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눈에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바늘로 눈을 찌르면서 삼이 잡혀야 빠준다고 했다. 또 삼 잎을 삶아서 눈을 씻기도 하였다.(박성기(남, 88))

그전에는 눈을 고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눈에 삼이 섰다고 그러면 의원이 삼 잡는다고 눈 아픈 사람을 세워놓고 얼굴을 그린다. 그리고 그 눈 부위에 눈을 그리고서는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두고 집에 와 있으면 나왔다. 바늘을 찌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해가 딱 올라올 때 했다.

삼 이파리를 삶아서 그 물에다가 눈을 씻는다. 삼베할 때 쓰는 삼(대마)이다. 그전에는 집집마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지금은 삼이 귀하다. 예전에는 삼베로 옷을 해 입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하지도 않는다. 그거 아니라도 옷이 좋은 게 많으니 귀할 수밖에 없다. 대마초라 그래 가지고 못 하게 한다.

더위

더위를 먹었을 때는 익모초를 달여 먹었다. 꿀을 타먹기도 한다. 개꿀이 더위에 약이라고 해서 먹었다. 개채로 먹는데 그 개가 약이다. 위장에도 좋다. 꿀을

뜰 때 개꿀을 같이 먹는다. 지금 화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개꿀에는 화분도 있고 꿀도 있고 다 있다. 밀이 사람에게도 좋다.(박성기(남, 88))

또 산에 가면 바위에 새카만 석이버섯이 붙었다. 그것도 사람이 안 다니는 산에 가야지 다 따서 없다. 바위에 버섯처럼 돌아 있는데, 그걸 따다. 못 따면 장에 가보면 더러 나온다. 그걸 가져다가 깨끗이 씻어서 펄펄 끓는 물에다가 넣으면 물이 아주 시커멓게 우러나온다. 그렇게 몇 번 행귀서 그 물은 내 버리고, 버섯을 물에 넣어 푹 삶는다. 삶아서 건더기는 체로 걸러내고 물을 퍼 놓았다가 가라앉혀 위를 떠서 먹인다. 설사를 할 때도 석이버섯 물을 먹이면 낫는다. 그 석이버섯은 반찬 해 먹는 것이다. 그게 비싸다. 작은 봉지 하나에도 비싸다. 그게 반찬을 해 놓으면 오돌오돌 한 게 맛있다. 머리 아플 때도 석이버섯을 달여 먹었다.

동상

동상은 특별한 약이 없이 그냥 앓았다. 성냥을 대고 발에다 황점을 했다. 설이 되면 콩을 한 짐 지고 양양에 가서 고기를 사온다. 그때 눈을 뚫고 갔다 오면 동상이 걸린다. 그러면 성냥개비를 몇 개씩 대고 불을 붙인다. 그렇게 황점을 하고 나면 데서 황이 붙는다. 황점을 한 곳은 살이 타서 마른다. 나중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낫는다. 황점을 하면 덧나지 않는다.

두통

석이버섯을 달여 먹으면 머리 아플 때 나왔다.

딸꾹질

그릇에 물을 떠놓고 네 번을 돌아가면서 마시면 금방 낫는다. 물을 마실 때 숨을 쉬지 말아야 한다. 가장 좋은 처방이다.

풍독

채독이라 하는데 물에 잘 씻겼다.

마마

마마 걸리면 약이 없다. 마마에 걸리면 거의 다 죽었다. 마마가 잘 오지는 않지만 왔다하면 거의 다 죽다시피 했다. 마마에 걸리면 얼굴이 없어 곰보가 된다. 해방되던 해에 ○○○ 제보자가 마마에 걸렸다. 다 죽었다고 아랫목에 밀어 놨는데, 아버지가 응답을 구해냈던 게 있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이나 먹여 본다고 잡아 먹었다. 그리고 얼마 후 죽었다고 밀어놨는데 살아났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열이 나고 아프다.

목이 아플 때

집 간장을 끓여서 입에 물고 있었다. 짠 거를 그냥 하지 말고 물을 좀 타서 물고 있었다. 혹시 물고 있다가 보면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시원하면서 따갑고 아픈 게 덜하였다. 집 간장이라야 한다.

몸조리(후복)

오소리 열(쓸개)이 여자들 아기 낳고 부엌을 때 삭히는 것으로는 제일 좋다. 물에 타서 마시면 너무 써서 안 된다. 그걸 녹여서 얼른 꿀떡 삼키고 꿀을 타서 마시면 된다. 쓰니까 꿀떡 삼킨다. 또 오소리 열이 말라서 딱딱하니까 조금 잘라서 그것 채로 꿀떡 삼켜도 된다. 그거 구하기가 힘들다. 요즘은 없다. 출산 후 후복(몸조리)에 좋으니까 약으로 먹는다.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했다.

못에 찔렸을 때

찔린 부위에 피를 빼고 좃농을 떨어뜨렸다.

무릎

개구리를 잡아서 먹으면 좋다. 개구리는 술안주로도 좋다.

무좀

옛날 무좀에 걸렸는데 누가 비상이 좋다고 해서 발랐다가 죽는 줄 알았다. 나중에 손까지 파여서 피가 나고 애를 먹었다.

밭목 비었을 때

침을 맞았다. 또 물모래에 찢질을 했다. 강가에 가서 모래를 모아놓고 그 속에 밭을 넣어서 몇 번 찢질을 하면 나왔다.

뱀에 물렸을 때

침을 맞아야 한다. 침을 놓아서 독을 빼야 한다. 독을 빼면 누린 물이 나온다. 옛날에 나물 뜯으러 갔다가 뱀에 물렸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왔다. 집으로 안 오면 죽으니 그냥 온 것이다.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얼른 얘기라도 해야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살이 아주 부을 수 있을 만큼 부었다. 그게 달박곰에서다. 그곳에는 달박곰, 구멍바우골, 음정골, 원골 등 그쪽에 이름이 많다. 우리 동네가 검은석이다. 돌이 많다고 해서 검은석이라 했다.

다른 약이 없고 독이 번지지 말도록 묶어두고 물린 부분을 빨았다. 옛날에 멧잎으로 묶었다. 뱀에 물렸을 때 침을 놓는 것은 보지 못했다.

벌에 쏘였을 때

벌에 쏘이면 나올 때까지 그냥 놔뒀다. 된장을 쏘인 부위에 발랐다. 된장도 그게 약이다. 지금은 된장을 하면 보리쌀도 넣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메주를 썬서 메주콩으로만 했다. 그래서 그게 구수하고 맛있었다. 지금은 보리쌀을 한 말에서너 되씩 뺏아서 밥을 해서 섞어 넣는다.

보약

살아있는 도롱뇽을 삼켰다. 꼬리를 들고 머리부터 입으로 넣으면 스프룩 목구멍으로 들어간다.

복통

배가 아플 때는 질경이뿌리를 달여 먹었다. 질경이를 뿌리를 캐서 깨끗하게 씻어서 삶아 물을 해서 마시면 배가 아픈 게 낫는다.

또 익모초를 달여 먹는다. 또 생즙을 내어 짜서 밤에 밖에 두었다가 밤이슬을

맞혀서 먹는다. 그렇게 이슬을 맞혀야 효과가 있다.

볼거리

찜질을 했다.

부종

호박을 삶아 먹이면 좋다고 한다. 또 질경이 뿌리를 찢어서 먹었다. 소태나무도 삶아서 물을 먹이면 부종이 낫는다.

불임

여자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냉병을 앓아 못 갖는다고 한다. 산신께 빌기도 한다. 절골이라고 혼자 독단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따로 모셔놓고 다니기도 했다. 점도 쳐서 알아봤다. 좋다는 것은 다 했다. 당귀를 달여 먹기도 했다.

사마귀

뿌리를 파내야 낫는다. 깊이 박혀서 피가 막 나고 그런다. 오래 두면 자연히 낫기도 한다.

상문살

상문살은 상가에 가서 걸리는 것이다. 상문살에 걸리면 내쳐야 된다고 했다. 삼거리 나가서 정화수 떠놓고 빌다가 칼을 잡고 던졌다.

상가에 갔다가 오면 예방으로 아궁이 들여다보고 굴뚝 보고 오라고 했다. 상가에 가서 음식이 나오면 바로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이든지 젓가락으로 집어서 상에다 내어놓고 먹는다. 예를 들어 콩나물이 나오면 콩나물 하나라도 먼저 집어서 상에 내려놓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 고수레처럼 다른 귀신들이 먼저 먹게 주는 것이다.

상처

상처가 나면 담배를 붙였다.

설사

잔대나 삼추씩이나 석이를 달여서 물을 먹이면 설사가 멈췄다. 삼추씩은 캐다가 싹 씻어서 껍질을 갈아야지 그래야 물이 깨끗하다. 껍질을 갈으면 속이 하얗다. 그걸 삶아서 물을 식혀서 먹였다. 애들이 그 전에 설사를 하면 그렇게 먹였다. 깨끗이 껍질을 꺾으면 그냥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더기를 바쳐야 한다.

잔대는 캐다가 껍데기는 까지 말고 싹 씻어서 그걸 삶아 건더기를 체에 바쳐 걸러서 물을 놔두면 침전물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위에 뜬 물을 먹였다.

질경이 뿌리를 끓여서 물을 먹이면 낫는다.

소가 병이 났을 때

소가 병이 나면 수의사 불러서 치료한다.

소버짐(기계충)

머리에 하얗게 버짐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지면 칼을 들고 긁어낸다. 또 무슨 기름으로 지지기도 했다.

속앓이(냉병)

화로에다 납작한 돌을 달궈서 배에다 얹어 놓는다. 이 병은 여자들이 많이 걸린다. 냉병 걸리면 임신이 안 된다. 돌은 손바닥 크기 정도를 썼다.

손님

애들이 아프면 바람만 쐬지 못하게 하고 이불 덮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였다. 애들이 아파도 나가서 일을 계속해야 하니, 기계가 없으니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니 애들을 끼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식중독

인진쑥과 익모초를 먹는다.

약썩

오월 단옷날 식전에 이슬이 떨어지기 전에 베어다가 엮어 말린다. 뜸을 뜨기도 하고 다려 먹기도 한다.

어혈

똥물을 먹인다. 맞든가 어디 굴러서 어혈이 맺히면 똥물을 걸러서 먹인다.

잇몸병

충치나 잇몸이 성하지 못해서 아프면 참기 어렵다. 이때 아픈 이는 뽑아내고, 마늘을 불에 구워 아픈 부위에 끼워 넣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픔이 조금 가셨다.

이빨을 뽑고 나서 아프면 집 간장을 끓여서 입에 물고 있었다.(박성기(남, 88))

이가 아프면 마늘을 까서 화로에 구워서 그걸 아픈 부위에 물고 있으면 시원하다. 마늘을 꼬챙이에다 끼워서 노랗게 굽는다. 그러면 아픈 게 가라 앉는다. 옛날 시집와서 내가 이가 아파서 고생을 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디보자고 그러더니 집게로 아픈 이를 강제로 뽑았다. 그래서 이 어금니 다 뺐어요. 이가 빠질 때는 으지직 소리가 난다. 그 생살을 강제로 뽑았으니 얼마나 아팠겠냐. 그리고 마늘을 구워서 그곳에 넣어 자고 일어나면 아픈 이가 나왔다. 이거는 내가 해 봐서 안다. 지금은 그때 뽑은 이를 서울에 가서 다 해 넣었다.

체했을 때

바늘로 엄지손가락을 뚫다. 먼저 어깨 부위부터 훑어 피를 손으로 모이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실로 감고는 바늘 끝을 찢러 탁 튕긴다. 그러면 새카만 피가 나온다. 그렇게 양쪽을 다 하고 나면 트림이 꺼~억하고 나온다.

취침을 놓는다. 취침을 팔뚝만큼 길이로 잘라 깎아서 목으로 넣어 쑤신다. 옛날 아주 구식이다. 내시경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목구멍으로 처음 넘어갈 때나 힘들지 넘어가면 괜찮다. 이걸 취침이라 한다.

치질

청개구리를 살아 있는 채로 먹는다. 다리를 잡고 살아 있는 채로 꿀떡 삼킨다.

티눈

티눈은 뿌리가 깊이 박혀서 칼로 파내면 낫는다. 티눈은 파내지 않으면 뿌리가 자꾸 성해서 아파서 발을 던지도 못한다. 파내보면 많이 아프지도 않다. 아이들한테는 티눈이 잘 생기지 않고, 어른들에게는 잘 생긴다.

학질

학질에 걸리면 바늘을 낚시처럼 이렇게 만든다. 그런 다음 불에 달궈서 배를 지진다. 학질은 처음에는 하루씩 걸려서 앓는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매일 앓는다. 약이 따로 없었다. 초등학교 때 걸렸는데, 처음에는 조금 떨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오한이 나기 시작하면 무척 아프다.

학질은 돌립병이 아니다. 같이 생활을 해도 걸린 사람만 걸린다.

홍역

홍역은 그냥 찜질하고 바람 들지 않게 관리를 했다. 바람 못 쐬게 하고는 그냥 앓았다. 그러면 그게 다 나왔다가 쓰러져 가지고 가라앉는다. 굶지는 못하게 하였다. 굶으면 얼굴에 상처가 난다. 홍역이 걸려도 거의 다 죽었다. 홍역이 동네에 들면 3분의 2는 죽었다. 옛날 전쟁 때 홍역이 들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거의 다 죽었다. 전쟁 때니 약이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게 내버려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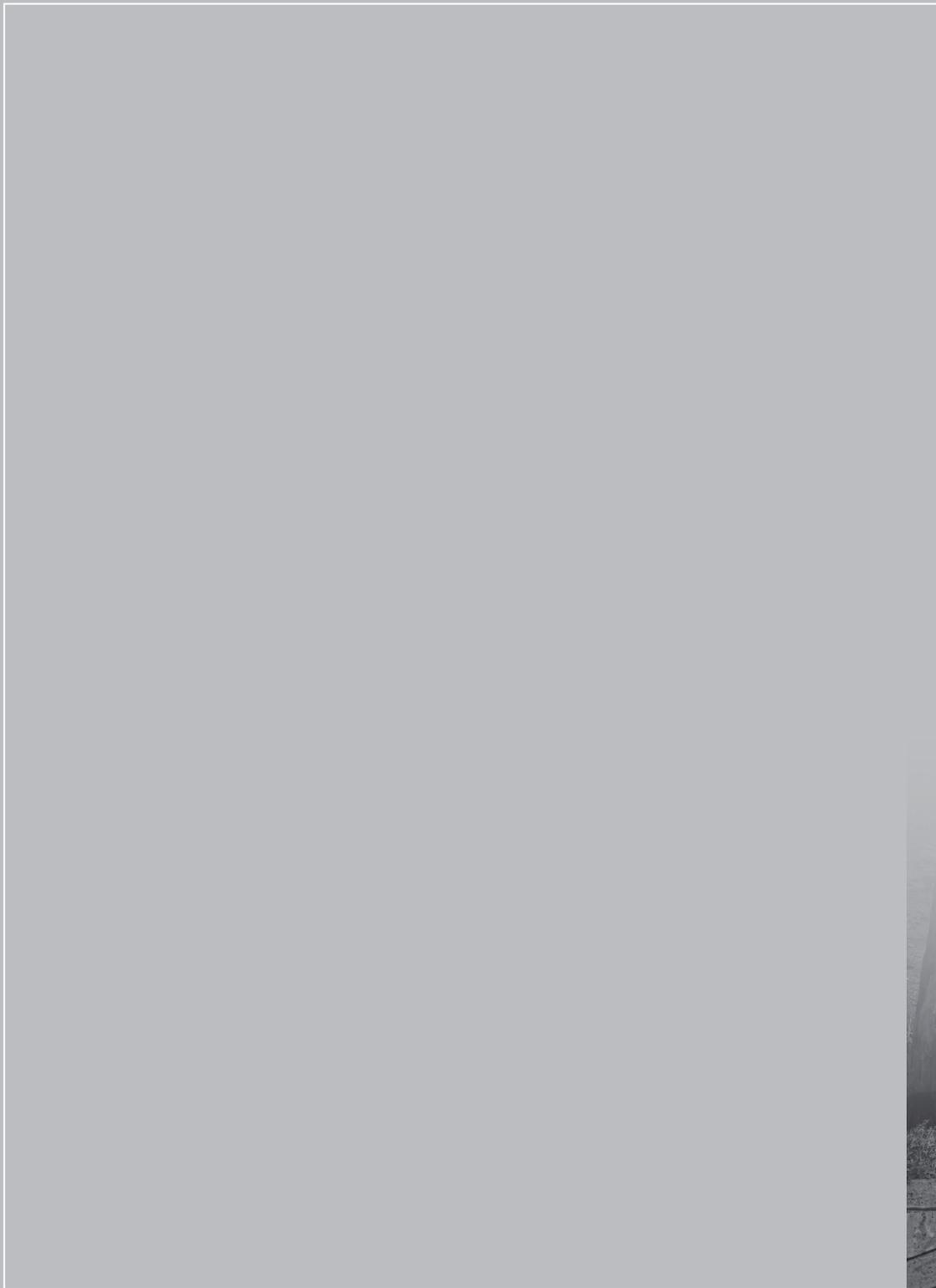
화상

불에 데면 진흙물을 발랐다. 오소리 기름을 발랐다. 오소리기름을 바르면 살갗이 부풀어나지 않는다. 오소리기름은 오소리를 잡았을 때 배나 내장에 붙은 지방질이다. 이 기름을 뜯어서 보관했다가 조금씩 잘라서 뜨거운데 녹여서 기름이 주르르 나오면 그걸 발랐다. 오소리 기름이 텐 데는 최고이다. 오소리 기름은 오소리를 잡아야 구할 수 있다.

화재예방

불난 집에 갔을 때는 그냥 집으로 오면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탄 서까래 하나라도 타넘고 오라 했다.

제보자: 박성기(남, 88), 박광순(여, 73), 윤옥순(여, 79), 박재균(남, 61)



제 11 장

민속신앙

안택고사

성주신체인 성주단지는 부엌과 방 대들보 사이에 한지에 쌀을 담아 접어서 모셨다. 안택고사는 봄가을에 걸쳐 두 번 지냈다. 가을에는 돼지를 잡아 크게 지냈다. 떡시루, 메, 북어를 올리고 복술이를 불려서 축원을 하였다.

박성기 씨 댁에서는 특별히 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 길렀다. 이 돼지는 안택고사 때 쓸려고 기른 것이다. 봄에 돼지 새끼를 길러 가을이 되면 돼지를 잡을 만하였다. 안택고사를 지낼 때는 먼저 아침에 서낭당에 가서 돼지를 잡아 통돼지를 서낭님께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서 다시 복술이가 축원을 하면서 안택고사를 지냈다.

봄에는 음력 3월경, 가을에는 9월경에 날을 받아 지낸다. 1945년 8.15광복이 된 후에는 하지 못했다.(박성기 제보)

텃고사

성주를 모시면 보통 일 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봄가을로 두 번 하기도 했다. 시루떡을 해서 식구들 수저 다 꽃아서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일 년을 잘 나게 해달라고 빌었다. 소지를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창호지를 했다가 용마루에 달았다. 이것을 텃고사라 했다. 터에다 고사를 하니 텃고사라 했다.

그전에는 지당에도 서낭당 그런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 지당은 청

개울이라는 데 용화사 밑에 있다. 그리고 더디미도 있었는데, 요즘 안 지내는 것 같다. 텃고사도 이제는 안 지내더라고. 텃고사는 텃고사대로 지내고, 산지당에는 또 지당제사를 지내고 그랬다.

터줏가리가 텃고사였다.

조왕신은 따로 모시지 않았다.(박광순 제보)

삼신

삼신도 따로 모시지는 않았다. 삼신은 아기 낳았을 때만 첫 국밥 끓여놓고, 그리고 삼 나갔을 때 끓여놓고는 다르게는 안 했다. 삼신은 처음에만 그랬지, 나중에는 안 했다. 삼신 나가는 거는 특별히 따로 하지 않았다.

태를 3일 만에 내서 태우면서 삼신상을 차렸다. 미역국, 밥, 물을 떠서 놓고는 아이 장수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빌었다. 삼신달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박광순 제보)

1반 서낭제- 더디미서낭제

옛날에는 검은석에서도 지냈다. 그리고 더니미에 1반 서낭당이 있었다. 그래서 마을제사를 지냈는데 요즘은 지내지 않는다. 더디미 맞은 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서낭당이 있다. 지금 빈집이 있는 그 뒤쪽이다.(박광순 제보)

2반 서낭제-청계골서낭제

청계골에 있는 제당에서 2반 마을제사를 지낸다. 마을에서는 제당 또는 산신당이라 하고, 서낭당이라고도 한다. 통상 제당이라 부른다. 신은 산신님이다.

제당의 위치는 청계골 용화사 앞에 있다. 하추리를 가로 질러 흐르는 냇물 옆에 있다. 이 냇물은 옛날에 작은 개울이라 불렀다. 지금의 내린천은 큰개울이라 하였다. 개울이 흐르는 가에 꽤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는 여러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 소나무가 얼마나 크고 숲을 이루었는지 그곳에는 송이가 났었다. 소나무 위에는 피꼬리가 집을 짓고 새끼를 쳐 갔다. 소나무아지가 얼마나 큰지 개울가로 늘어져서 온통 그늘을 만들었다. 그런데 2006년 수해가 나서 물이 그 위로

흘러 대부분 떠내려가고 지금은 큰 소나무는 죽어 고목이 되었고 작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소나무를 살리고자 막걸리를 주고, 수액주사를 주기도 했으나 결국 소나무를 살리지 못하였다.



제의와 진설(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2)

또 바위의 비탈에 기대자라고 있는 커다란 도토리나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수해 때 떠내려갔다. 제당 앞 바닥에 시멘트와 물들로 널

찍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은 수해 전이었다. 그 전에는 바닥이 모래였다. 시멘트로 해 놓은 지는 약 20여년 된다. 이곳에 제당이 위치하게 된 이유는 옛날 이곳으로 길이나 있었다. 개울 가로 길이나 있어 귀둔리 방면으로 걸어서 넘던 길가에 해당한다.

이곳 제당이 있는 곳은 워낙 경관도 뛰어나고 해서 마을 사람들의 복 놀이나 천렵터로 좋았다. 겨울이 되어 얼음이 얼면 아이들은 얼음썰매를 타기도 하였다. 여름에 놀이를 할 때 개울물이 너무 차서 오래 물에 들어가 있지를 못했다.

이곳 제사는 예전에 음력 3월과 9월에 날을 받아서 지냈다. 도가를 할 사람은 생기와 복덕을 봐서 맞는 사람이 했다. 도가로 선정되면 제사가 끝날 때까지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금기를 하면서 집에서 제물을 준비했다. 지금은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로 날을 고정해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아침 6시 경에 올라가서 시작했다.

가을에는 돼지를 잡아서 통째로 제물로 올렸다. 돼지는 강가 현장에서 잡아 손질을 하여 통째로 올렸다. 도가로 선정된 사람은 금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각종 필요한 제물을 준비했다. 술도 서낭당 옆에 땅을 파고 누룩을 해서 위를 봉해 묻어두었다가 현장에서 술을 퍼서 제사에 썼다. 용화사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절 앞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잡아 제사를 올리기가 뒤흔었는데, 마침 용화사 측

에서 부탁을 해서 그만두었다.

참가하는 사람은 2반 마을제사이기 때문에 2반 사람만 참가했다. 지금은 반장이 혼자 가서 지낸다. 반장이 혼자 올라가서 제를 지낸지는 2년여 쯤 되었다. 반장이 제주, 도가 등을 다 한다. 지금은 돼지는 잡지 않고 떡, 메, 포 등을 간단하게 올리고 소지를 살라 축원을 한다. 소지는 가가호호 모두 올려준다. 예전에는 박성기 씨가 올라가서 축원을 하고, 축문을 써서 고하고 독축이 끝나면 축을 살랐다. 지금 보관하지 않아 없다. 예단은 한지와 실을 제사를 지내는 바위 아래쪽에 걸어둔다.

이곳 산신님은 아주 영험하시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곳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였다.

또 옛날 어느 겨울이었다. 이곳에서 산관을 해서 나무를 트럭에 싣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때 나무를 싣고 내려가던 제무시(트럭)가 길에서 굴러 산신당이 있는 개울 위에 떨어졌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희한하게도 운전수도 멀쩡하고 제무시도 멀쩡했다. 운전수는 그대로 차를 몰아 내려갔다.(박성기 제보)

아래는 박재균 구이장이 제공한 소지와 축문 등의 자료이다.

도가소지

이소지는 일장은 다른 소지가 아니옵고 금일 이 치성을 올리는 도가 소지 올시다.

누가 도가요?

이반 반장 김근호 이라 하옵니다.

금년 신수를 곱게 나옵실적에 일 년 열두 달 삼백 육십오일 하후 같이 지나가고 안과태평 무병공로로 점지 시켜 주신다면 소지일장 맑게 맑게 타 하늘 등천 하옵시고 그렇지 못하다 허시거든 흐린 끝이 자락을 뚜렷이 내어 길흉판단을 가려 주시옵소서...

개인소지(지금부터 소지는 하추리 2반 개인 소지 올시다)

이 소지 일장은 다른 소지가 아니고 000 씨 소지 올니다.

일년 이면 열두달 과년이면 열석달 삼백 육십오일

하루같이 지나가소서, 안과태평 무병공로로 점지를 시켜 주신다면, 소지 일장

이 맑게 타 등천을 하옵소사 이소지를 올립니다.

축원

복이 축왕 천지 신명은 감응 강신 하소서

금년 대세는 기묘년이 읊고 달로 칠월이요 날로는 열아흐래, 일진은 계속일진
이윽고 우리 동중 각인각성 집집마다 오늘 정성을 드리오니 반가이 흥향 즐거이
응감 하소서 우리 동중 남녀노소 입은 덕도 많거니와 금년 일년 열두달 삼백 육
십 오일이 오고 갈지라도 연액, 월액, 일액, 시액, 삼재팔난 관재귀설 근심걱정 우
환가환을 외주월강 천리로 소멸소멸 하시어 소망 성취 만사대통 점재점재 하옵
실제 부귀공명 축원이라. 발원 축원 소원대로 우리 마을 물이 맑고 집집마다 불
이 밝아 수화정명 점지될채 명당뜰엔 옥이 돈고 옥당뜰엔 명이 돈아 달뜰 광명
해뜰 세계로 점지점지 하소서

○○○상향

축문

유 세차 병신삼월 기미 삭 초 삼일 신유

維 歲次 丙申三月 己未朔 初三 辛酉

유학 김근호 감소고우

幼學 ○○○ 敢昭告于

성황지신 복유존신 지인지공

洞守之神 伏惟尊新 至人至公

진차일알 기령혜몽 매세맹동

鎮此一謁 既靈惠夢 每歲孟冬

제두치성 금우세수 감진차례

齊斗致誠 今又歲首 敢陳次來

명전양일 길축사례 성복축

明展良日 吉祝事례 成伏祝

금년 강복양양 오곡풍등

今年 降福洋洋 五穀豐登

육축번창 호표원적
 六畜蕃昌 虎豹遠跡
 문용준세장 가가길경
 蚊龍遵歲藏 家家吉慶
 인인안강 지협망사 불승송황
 人人安康 持俠望奢 不勝悚惶
 신인구의 만세무강
 神人俱依 萬歲無疆
 물수비박 서음형상
 物雖菲薄 庶飲馨香
 尙 饗

3반 서낭제

휴양림 관리실이 있는 아래 물가에 있었다. 이곳은 경관도 좋을뿐더러 내(川)가 있어서 제의를 지내기에 좋았다. 그 아래에서는 마을에서 여름이면 천렵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하추리 3반은 자연휴양림 아래에 있는 서낭당에서 마을제사를 지냈다. 돼지머리, 메, 과일, 포를 해놓고 동네치성을 했다. 옛날에는 그곳에서 돼지를 잡았다. 돼지는 치성을 드리고 나누어 먹었다. 농촌에서 집집이 한두 마리 기르는 돼지를 사다가 제물로 썼다. 도가는 매년 돌아가면서 하였다. 도가는 부정 탄 거는 봐서 안 되고, 술도 그 집에서 하고, 도가 집에서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했다. 귀틀집 식으로 당집을 짓고 작대기 걸쳐놓고 문창호지를 걸었다.

3월 3일 일 년에 한 번 지냈다. 9월 9일에 지낼 때도 있었다. 휴양림 바로 아래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있는 곳에 큰 소나무가 있다.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칠석날제사[용화사 칠석제]

용화사 스님들이 매년 칠석날에 이곳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법회를 연다. 아침 10시경 예불이 끝나고, 11시쯤에 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내준다. 제사가 끝나면 이곳에 올렸던 각종 과일 등은 마을 노인정에 보내준다.(박성기 제보)

2017년 음력 7월 7일 양력 8월 28일 오전 11시 하추리 용화사에서는 칠석제를 행했다.

청호(靑昊) 스님과 박성기 어른이 말해 준 대로 필자는 칠석날 제사를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하추리로 갔다. 도착하니 아침 9시 49분경이었다. 차를 몰아 청계골로 접어들어 산신제터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세웠다. 벌써 산신당 옆에는 제상이 차려져 있었다. 깨끗하게 주변을 청소하고 깔끔하게 과일 등이 진설돼 있었다. 차에서 내려 제상을 진설해 놓은 곳으로 가니 아무도 없었다. 사진을 찍고 진설된 음식을 샅폈다.

제상에는 수박, 멜론, 야자, 마나나, 귤, 자두, 배, 대추, 밤, 사과, 포도, 시루떡, 양초 2개, 향, 제주(祭酒), 쌀이 진설되어 있었다. 고기류는 전혀 없고 과일과 떡이 주를 이루었다.

진설된 음식을 샅피고 조금 더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필자는 걸음을 옮겨 법당 쪽으로 갔다. 법당에 이르니 몇 대의 자동차가 마당에 세워져 있고, 스님 한 분이 종각에서 종을 칠 준비를 하였다. 직감으로 법회를 열려는 것을 알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법당에는 같은 복장을 한 신도들이 약 15명 정도 줄을 맞춰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앉아 있었고, 스님 5명이 역시 부처를 향해 앉아 있었다.

이 자리는 용화선원을 창건한 스님의 칠석설법을 듣는 자리였다. 이미 타계하셨지만 당시 녹음한 음성을 통해 설법을 들었다. 스님은 칠석에 관해서 설법을 했는데, 요지는 수명장수기원과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것이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칠석제 진설



칠석제 초헌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해서 온갖 생물과 생명에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 허공계에 치성광여래가 계신데 그 중에 칠성님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 그러면서 스님은 수명장수를 하려면 살생을 금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이 수명장수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귀하길 바라는데, 부귀를 얻으려면 복(福)을 심어야 한다. 보시(報施)를 많이 해야 부귀도 들어오는데, 보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 살길을 터주고, 병든 자에게는 약을 주어 낫게 하고,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으로 학비를 보태주어 공부하게 해주고, 노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시원에서 고시공부를 하는 힘든 자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꼭 누구를 돕는 다기 보다는 인연 따라 보시를 하다보면 스스로 부자가 되니, 인연 따라 보시하면 부자가 되는 길이다. 물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지만, 물을 건너면 배를 버려야 한다. 이미 물을 건넜는데도 배를 지고 다니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 보시를 했으면 보시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야 한다. 누구를 도와주었다는 생각을 잊어야 올바른 보시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법과 권법이 있는데, 실법은 최상법이고 권법은 방편법이다. 실법이 최상법이지만 하지만 어떤 때는 방편법인 권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것이 실법이 아니라고 권법을 외면하면 실상을 놓칠 수도 있다. 지혜는 실법과 방편법을 따지지 말고 그

당시 가장 좋은 법을 따르는 것이다. 물에 빠진 여자를 남자라서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생명을 일단 살리고 봐야지, 그게 실법이 아니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상이 대략적인 스님의 설법에 대한 요지이다. 눈을 감고 차근차근 스님의 설법을 듣고 있자니 아주 쉽게 다가왔다. 이웃을 도와 함께 사는 이웃공동체의 삶을 말씀하시고 있었다. 나를 세상에 나게 만들려면 이웃을 도와주고 칭찬해야 한다는 논리라 생각했다.



칠석제를 지내는 용화사 신도들

칠석법회가 끝나자, 스님과 신도들 모두 산신당으로 향했다. 청호 스님이 앞장을 서서 산신당으로 갔다. 스님은 필자를 알아보고 반겨주었다. 제물을 진설해 놓은 곳에 다들 모였다. 장소는 하추리 2반 산신제터 뒤편이다. 원래 마을에서 지내는 산신당 앞에서 칠석제사를 올리는데, 올해만 위에서 한다고 설명을 했다. 곧, 원래는 2반에서 지내는 같은 장소에서 지냈으나 소나무가 썩어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 위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이때 시간은 오전 11시경이었다. 스님들이 앞에서고 신도들이 뒤에 죽 늘어섰다. 스님과 신도들은 〈반야심경〉 독송을 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술을 따라 올렸다. 칠석제의 목적이 하추리 마을 안녕기원이라 했다. 스님이 초헌을 한 후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술잔을 올리고 의식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헌작을 하고 칠석제는 끝났다.

제의가 끝나고 모두 공양간으로 가서 용화사에서 마련한 공양을 하였다. 그리고 제의에 올렸던 과일은 노인회관으로 옮겨 노인들에게 드린다고 했다.

장승제1-도리깨축제

하추리에서 지내는 거리제사이며 추수감사제이며 또 마을기원제이다. 도리깨축제를 할 때 아침에 지낸다. 도리깨축제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하므로 장승

제도 그때 지낸다. 장소는 하추리로 들어오는 마을입구에 있는 장승 앞이다. 시간은 아침 9시 30분경이다. 2017년에는 도리깨축제가 11월 셋째 주인 11월 18일과 19일에 열리므로 18일 아침에 지낸다.

2008년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제상에는 주과포와 떡을 올린다.

우마차로 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태우고 마을까지 이동을 한다.(박병철 제보)

2017축제장승제(거리제)

제상에는 신위를 앞에 놓고, 양초 두 자루, 시루떡, 돼지머리, 물, 황태포, 약과, 과질, 다과, 대추, 밤, 사과, 배, 감, 제주(막걸리), 향이 놓아졌다.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 노인회장이 제관이 되어서 제의가 진행되었다. 순서는 흥기대로였다. ‘고사의 진행절차’라 하여 1. 봉주취위, 2. 분향강신: 초헌자가 삼배할 때 행사자 모두 삼배한다. 3. 참신, 4. 초헌 첫잔, 5. 독축, 6. 아헌례 둘째 잔, 7. 종헌례 셋째 잔, 8. 망요례: 지방 축문을 불을 붙여 하늘 높이 던져 올리면서 참석자 전원 큰 박수와 큰 소리로 만시형통을 기원한다. 9. 음복 순으로 하였다. 신위는 “下楸里洞守之神 神位(하추리 동수지신 신위)”하여 하추리 마을을 지켜주신은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丁酉十月己酉朔 初一日己酉 幼學

敢昭告于

洞守之神 鷹峰山下楸里之神

伏以 厚德載物 民生何時 出力助人 疾病無憂 無故通行 鄉土發展 萬福康寧
洞民願豐 多數幼蒙 課程進益 四民俱亨 齊盛默祝 神其降監 謹以清水 姿盛庶
品 式陳明薦

尙饗

유세차정유십월기유삭 초일일기유 유학

감소고우

동수지신 응봉산 하추리지신

복이 후덕재물 민생하시 출력조인 질병무우 무고통행 향토발전 만복강녕
동민원풍 다수유몽 과정진의 사민구형 제성묵축 신기강감 근이청수 자성서

품 식진명천

상향

세월이 지나 정유년 시월 초일일이 되었습니다. 유학 ○○○는 감히 신령님께 알려 고합니다.

마을을 지켜주시는 신령인 매봉산 하추리 신령님께 엎드려 빕니다. 덕을 두텁게 하시고 재물을 실어주소서. 하추리 주민들이 어떤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의 도움이 있게 하시며, 질병의 근심이 없고 사고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시며, 향토발전을 이루고 만복이 깃들어 강령하도록 하소서. 마을주민들의 소원에 풍요롭게 하시며, 여러 어린아이들이 학업을 닦는데 이익이 있도록 하시며 하추리 주민 모두 누리게 하소서. 가지런히 제물을 마련하여 조용하게 비오니 신께서는 강림하셔 보옵소서. 삼가 맑은 물과 맵시 있고 무성하게 여러 가지 제물을 제의를 올리려고 진설하고 밝게 천거합니다.

신께서는 제물을 받으소서.

장승제2-정월대보름행사

마을입구의 장승에서는 정월대보름축제를 열면서 거리제를 지낸다. 정월 15일 아침 8시 30분경에 마을에서 주관을 하여 지낸다. 이날은 제상을 진설하고 마을 잘되게 해달라고 축원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덕담을 나눈다.

저녁에는 달집태우기를 하는데, 소원지를 걸고 축원을 하고 제사를 지낸 후 풍물단 20여명이 풍물을 치고는 달이 떠오를 때쯤 시작한다. 음식은 부녀회에서 준비한다. 풍물단은 고깔, 두건, 꽃 장식 등을 하는데, 상모는 돌리지 않는다. 쥐불놀이도 하지 않고, 풍등은 가족별로 띄운다. 한 해는 풍등이 더 높게 날기를 바라며 초를 두 개를 넣었는데 산에 올라가서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산불이 날까 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풍등의 불을 끄고 수거하기도 하였다.(박병철 제보)

아래축문은 박재균 구이장이 제공하였다.

장승제 축문

복이 축왕 천지 신명은 감응 강진 하옵소서 금년대세는 ○○년이옵고 달은 정월이요 날은 열닷세요 일진은 ○○ 이온바 우리동네 각인각성

가가호호 오늘 정성을 드리오니 반가히 음향.즐거이 음감하소서 우리동
 네 남녀노소 입은공덕도 태산이오나 금년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오일이
 오고 갈지라도 년액,월액,일액,시액,삼채필란.관재귀설,근심걱정.우환 가
 환을 외주월강 천지로 소멸하시와 소망성취. 만사대통 점지 정재하옵실
 재 부귀광명 축원이라 발원축원 소원대로 우리 마을 물이 맑고 집집마다
 불이 밝아 수하청명 점지될 제 명당 뜰엔 옥이 돋고 옥당 뜰엔 명이 돌아
 달뜬 광명 해뜬 세계로 점지 정지 하소서

○○○ 상향

유 세차 기축정월 신미삭 십오일을유
 維 歲次 己丑正月 辛未朔 十五日乙酉
 유학 ○ ○ ○ 감소고우
 幼學 ○ ○ ○ 敢昭告于
 동수지신 매봉산 하추리지신 복유존신
 洞守之神 鷹峰山 下楸里之神 伏惟尊新
 지인지공 진차일알 기령혜몽
 至仁至公 鎮此一謁 既靈惠夢
 매세맹동 제두치성 금우세수 감진차래 명전양일
 每歲孟冬 齊斗致誠 今又歲首 敢陳次來 明展良日
 길축사례 성복축 금년 강복양양 오곡풍등 육축번창
 吉祝事례 成伏祝 今年 降福洋洋 五穀豐登 六畜蕃昌
 호표원적 문용준세장 가가길경 인인안강 지협망사
 虎豹遠跡 蚊龍遠歲藏 家家吉慶 人人安康 持俠望奢
 신인구의 신인구의 만세무강 물수비박 서음형상
 不勝悚惶 神人俱依 萬歲無彊 物雖菲薄
 尙饗

유 세차 기축정월 신미삭 십오일을유
 維 歲次 己丑正月 辛未朔 十五日乙酉
 유학 ○ ○ ○ 감소고우
 幼學 ○ ○ ○ 敢昭告于
 동수지신 매봉산 하추리지신 복이

洞守之神 鷹峰山 下楸里之神 伏以
 후덕재물 민생하시 출력조인 질병무우 해상공기
 厚德載物 民生何時 出力助人 疾病無憂 海商工機
 무고통행 향토발전 만복강녕 동민원풍 다수유몽
 無故通行 鄉土發展 萬福康寧 洞民願豐 多數幼蒙
 과정진익 사민구형 제성묵축 신기강감 근이청수
 課程進益 四民俱亨 齊盛默祝 神其降監 謹以清水
 자성서품 식진명천 상 향
 姿盛庶品 式陳明薦 尙饗

도리깨고사

2017년 8월 23일 오후 6시 30분에 경로당 앞에서 도리깨고사를 지냈다. 노인 회관에서 주관하였는데, 목적은 2017년 9월 8일에 평창 용평면에서 열린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하추리에서 <도리깨질소리>를 출연하는데, 사고 없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의였다.

그 전 같으면 산에 가서 한 잔씩 붓고 해야 하는데, 그냥 가서 무의식적으로 막 해 온다 말이야. 예전에는 동네에서 뭘 한다고 하면 산에 가서 산제사를 지냈다. 매봉산에 가면 동네에서 하던 곳이 있어요. 매를 지어 올려서 술 한 잔 붓고, 나무를 베어오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막 가서 해 왔으니. 여기서라도 고사라고 지내고, 그러면 부락 단합도 되고, 그래서 그 뜻에다 여기서 고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아마도 도리깨 해놓고 고사 지내는 데는 여기 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매봉산이 큰 산인데, 산림을 해 오면서 고하지도 않고 막 베어왔으니 우리 동네 하는 일에 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냈어요. (김영모제보)



도리깨고사 초헌 장면



도리깨고사 진설



도리깨고사 장면

도리깨도 다 완성시켰고요. 우리 도리깨 축제 때까지 무사히 다 좀 해달라고 해서 한 번 지내려고요. 매년 지내는 게 아니고, 올해만 지내요. 이따가 여섯 시 반에요. 축문은 안 쓰고 축원만 해요. 그냥 노인들이 마을에 살고 없이 잘 끝내달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한 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패도 따로 없어요.(구연직 제보)

김영모 전 노인회장의 생각으로 도리깨고사를 지냈다. 순서는 노인정 옆 마당과 노인정이 붙은 벽 면 앞에 상을 펼쳐 진설을 하고, 구연직 노인회장이 초헌을 하고, 김영모 전 노인회장이 아헌을 하면서 축원을 하였다. 그곳에 상을 진설한 것은 도리깨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잔을 따르고 절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남녀 구분 없이 술을 따르고 절을 하면서 함께 제의에 참석하였다. 제의가 끝나고는 마을식당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마당에서 도리깨질소리 연습을 하였다.

필자는 이날 도리깨고사를 지낸다는 제보를 받고 하추리를 찾았다. 도착 시간이 약 4시경이었다. 이른 시간인데 노인정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노인정 부엌에서는 부녀회원 몇 명이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밥상 위에는 향로, 과일, 포, 제주(祭酒)를 올려놓아 제상으로 옮길 준비를 끝냈다. 저녁 6시경이 되자 도리깨를 보관해 둔 노인정 벽면에 제상이 차려졌다.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행히 천막을 쳐놓아 비가 떨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깔개를 깔고 상을 펴고 상위에는 종이를 폈다. 그리고 양초와 과일과 포를 올리고 제주의 뚜껑을 뗐다. 제주는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였다. 제상에 진설한 내용을

보면, 돼지머리 삶은 것, 팔 시루떡, 바나나, 배, 사과, 북어포, 양초2개이고, 그리고 상 앞에는 향로를 놓았다. 지방과 축문은 따로 없었다.

진설이 끝나자 노인회장이 돼지 입에 돈을 물리고 술을 따르고 절을 하였다. 이어서 구 노인회장이 헌작을 하고 도리깨질소리가 아무 탈 없이 진행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축원을 하였다. 다음에는 마을사람들이 이어서 헌작을 하였다. 제의가 끝나자 음복을 돌아가면서 하였다.

음복이 끝나고 마을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회관 마당에서 도리깨질소리 연습을 하였다.

반별제사

하추리에서는 매년 음력 3월3일과 9월9일 아침에 반별로 산신제사를 지낸다. 박수터 뒤 휴양림 아래인 계곡사랑 옆의 소나무에서 3반이 지낸다. 싸리골에 나무가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베었다.

2반은 청계골 용화사 앞 제당에서 지낸다. 축문은 박성기 씨가 관리를 했는데, 나중에 아들 박재균 씨가 관리를 하였다. 금줄을 새끼로 짜서 치고, 움막을 지어 제기를 보관했다. 현장에서 돼지를 잡아 제물로 올렸는데, 요즘은 돼지머리만 올린다. 예전에는 소머리도 올렸다. 2006년 수해 때 피해를 봐서 소나무도 죽고, 움막도 물에 떠내려갔다.(박병철 제보)

매봉산 산제사

매봉산에 가면 산제사 지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술 한 잔 부어놓고 그러는 곳이 있어요.

그전에는 매봉산에서 산심도 많이 나오고 그런 영험한 산이에요. 돼지를 잡던 뿔을 잡으면 귀하고 세뜨기하고 그걸 떼서는 불에 구워가지고 고사를 지내요. 포수가 어른인데 포수가 못 떼게 하잖아. 그래 고사 지내고 술 한 잔 먹고 그러면 세뜨기하고 귀떼기 하고 떼서 그러지요. 산제사 지내고 나면 귀떼기가 성한 게 없어요. 귀떼기 다 떼먹고요. 잡고 나서는 바로 그곳에서 고사를 지내지요. 총, 창, 지팡이 등 가져갔던 물건을 그곳에 다 쌓아놓고요. 지금 어떤 사람은 창이며 총 때문에 사람이 다치는 것은 그게 막 잡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때는 내가 나이

가 어렵지만 노인들이 하는 걸 봐서 알지요.

그때는 내가 어려서 젊은 사람이니까, 산을 잘 탄다고 그래서 포수가 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홍천 사람이 와서 산심을 큰 걸 췌어요. 큰 걸 췌는데, 그 사람이 홍천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서 고사를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토종돼지라고 조그맣잖아요. 큰 걸 가져올 수는 없고 조그마한 돼지를 가져와서. 이 매봉산 가면 지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걸 잡아서 피를 흘려서 놓고, 돼지는 각을 떼서 산신제를 지내고요. 그리고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나눠 주고요. 그래서 그걸 얻어먹을 줄 알고 그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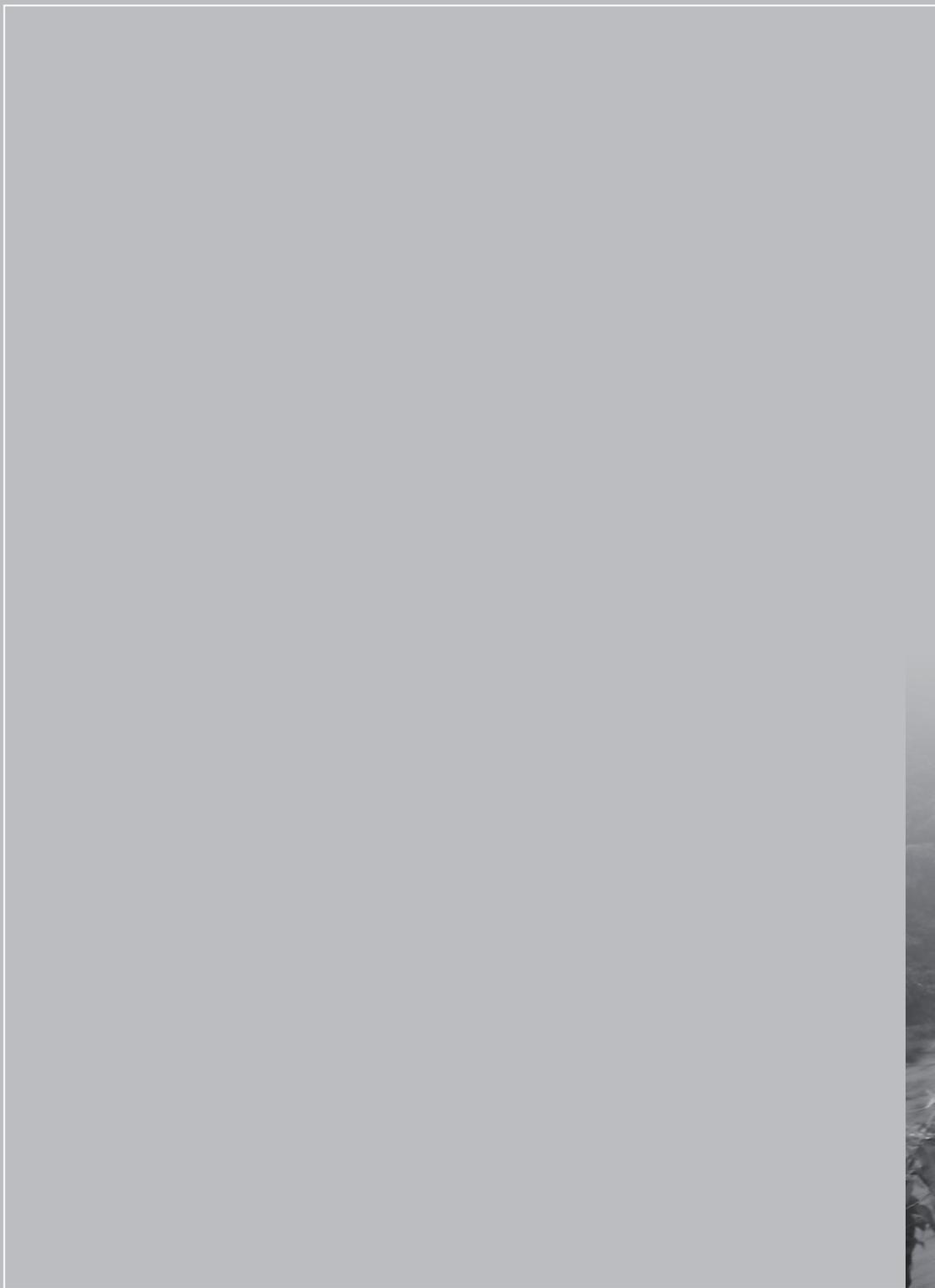
그 다음에는 사변 나고 나서 그때는 중구난방이 됐어요. 그때는 총을 주니까 산에 가서 막 잡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많았어요. 이 매봉산이 영험한데, 그 사람들 큰 짐승을 잡으면 고사도 지내고 이래야지, 그냥 무시하고 막 잡아서 나오니까, 산 지호(산신령이 노함)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네들이. 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얘긴 하고.

지금은 큰 나무가 없어졌을 거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앞에 돌로다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넓적한 돌을 이렇게 엮어서 비 안 맞게 만들고요. 거기다가 신을 모시고 그랬어요. 붉은 형짚, 실 그걸 갖다놓고 신을 모셨어요. 거기 가서 여기 싱거운 양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앞에 심 캐러 가면 막을 치고 자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오두막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자면서. 그 양반이 이장을 할 적이에요. 이장을 하면서 내가 어른인데 내가 하추리에 최고 어른인데 이렇게 다 뭐하는 거냐고. 헛소리를 했다 말이야. 그래 놓고는 무서워서 그날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 소리를 해놓고요. 그래 산에서 나무 부러지는 소리도 나고 그러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 이 산이 영험해요.

지당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요. 지방도 넓적한 돌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수복돼 가지고 내가 가 봤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그곳에서 산삼 캐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움막을 치고 자면서 기원을 하곤 그랬지요. 술 한 잔 부어놓고 밥 한 그릇 지어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산신당에다 매일 정화수라고 그러지. 그걸 매일 떠다놓고. 노인들이 한 얘기를 듣기를 그 산삼이 지금과 같이 앓고, 지금은 장뇌삼을 막 갖다 심으니까. 인제 평창 지역인데. 평창 이 씨네가 어떤 고을 원으로 있으면서 이 매봉산에다

삼씨를 한 말을 뿌렸다고 해요. 그래 삼씨를 뿌려서 삼이 이렇게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에 삼이 많았지요.

6.25때 하남 사람인데 군대 실탄을 지고 올라가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삼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전쟁 중에 그걸 썩 새가 없으니까. 포는 떨어지지 탄알은 날아오지 그러니까. 뻥히 보고 지나면서 전쟁 끝나면 썩 거라고 그랬는데. 그만 전쟁 중에 죽었던 말이야. 그래 후대 자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산에 그런 삼이 많다고 해서 거기 가서 찾으니까는 같은 산이지만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 못 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김영모 제보)



제12장
내가 아는 하추리





참고문헌

- 『국역 강원도지』, 강원도, 2005.
김선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2』, 인제문화원, 2010.
인제고등학교 마을신문편집부, 『하추마을신문』, 인제군평생학습센터, 2016.11.19.
『인제군사』, 인제군, 1996.
『인제군 유적 지명 전설』, 인제문화원, 2007.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하추리 도리깨질소리』 팸플릿, 인제군.인제문화원,
2017.9.7.~8.
『조선지리지자료』, 경인문화사, 2007.

〈제보자〉

- 구연직(남, 73)
김군호(남, 59)
김영모(남, 83)
김옥수(남, 67)
김재노(남, 59)
박광순(여, 73)
박병철(남, 60)
박봉수(남, 56)
박성기(남, 88)
박재균(남, 61)
윤옥순(여, 79)
지영기(남, 74)
청호(靑昊) 스님
하추리 주민들

※ 필자가 찍은 사진 외의 사진자료는 박재균, 박광순, 박봉수 제보자로부터 받았음



저자소개

문래산인 文來山人 이학주 李學周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에서 출생했다. 현재 춘천시 후평동에서 살고 있다.
 대학은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다녔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2000.2)를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고,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를 강의하고 있다. KBS춘천라디오에서 2010년 4월부터 2017년까지 <강원로드>를 800회 방송했다.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다.

저서는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문학세계』(2002), 『아들 낳은 이야기』(2004), 『강원인의 일생의례』(2005),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2009), 『북산면 사람들』(2010), 『사랑과 낭만의 도시 춘천』(2011), 『수동골 사람들』(2011), 『고전문학의 서사세계』(2012), 『한반도 배꼽 이야기』(2013), 『설화와 문화원형』(2014), 『스토리텔링과 마을관광 박물관』(2015), 『내설악 그 명승에 빠지다』(2015), 『정자리 사람들』(2016), 『류인석』(2017) 등 수십 권이 있다.

논문은 「『오토기보코(伽婢子)』 <노래로 맺은 인연(歌を媒として契る)』에 나타난 생사관과 글쓰기: 글쓰기의 치유력(治癒力)을 중심으로」(2016), 「<崔致遠>을 통해 본 傳奇小説의 글쓰기론: 전기소설적인 판타지를 통한 주제부각 측면에서」(2016), 「동아시아 전기소설을 통해 본 글쓰기치유로서의 자산계승」(2016), 「류인석 전신영정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2016), 「류인석 의군도총재의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글쓰기 방식 新마인드맵의 원리를 활용한 선양 및 관광자원 발굴」(2016), 「解冤과 祈願의 상관관계를 통한 관광자원 원형 발굴 연구: 삼척 신남리 <애마위> 전설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2016), 「인제 마의태사설화의 문화적 의미와 관광문화콘텐츠 방안: 시공세계(時空世界)글쓰기와 고전의 현대적 활용」(2017), 「해당화서당설화의 서사원형과 관광자원의 잠재성 분석」(2017), 「고려 팔관회와 춘천 외바퀴수레싸움의 축제적 상관성을 통한 관광문화콘텐츠 활용」(2017), 「민속신앙의 존속과 변천: 인제군 정자리를 중심으로」(2017), 「가리산 설화에 나타난 산에 대한 의식」(2017), 「전(傳)을 통해 본 류인석의 인생관」(2017), 「<龍宮赴宴錄>의 치료관광스토리텔링 전통: 용궁을 통한 치료관광스토리텔링의 패러다임 구상」(2017), 「東明王篇」을 통해 본 李奎報의 스토리텔링 전개(2017) 등 수십 편이 있다.

